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한일교사 교류 20년,
그 소통과 이해의 발자취”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한일교사 교류 20년,
그 소통과 이해의 발자취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를 발간하며



글로벌 시대, 국가 간 교사 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사들 간 교육경험의 공유와 문화적 교류는 교사 역량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교육 현안을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타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일찍이 이와 같은 국가 간 교사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부터 일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와 양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양국 교원들의 상호 방문이 무산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19년 동안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한일 교직원 간 진정한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지난 20년간 약 2,900여 명의 한일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실행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해 온 대표적인 한일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업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는 이 프로그램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국과 일본 간 교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교육 협력 강화에 필요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시민교육, 교육 2030 등 유네스코의 교육 이념 실천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교직원 분들이 계셨기에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편찬을 위해 사료 제출 및 인터뷰에 정성을 다해 주신 교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의 기록이 한일 양국의 교육 협력과 교사 역량강화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国境を越えた教職員交流の必要性と重要性は昨今のグローバル時代にはいくら強調してもし過ぎることはありません。教職員同士の経験の共有と文化的交流は、教師自身の能力を高めるだけにとどまらず、将来の教育課題を国際的に議論し、他の文化に対する学生たちの理解を深める機会を提供します。

韓国ユネスコ国内委員会（KNCU）は早くから国家間の教職員交流の重要性を認識し、2000年から日本の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ACCU）と両国の政府から支援を受けて「ユネスコ日韓教師対話」を毎年実施しています。残念ながら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で計画が中止になった2020年を除くと、両国の教職員の相互訪問は過去19年間一度も欠かさず続けられてきました。その結果、本事業は日韓の教職員間で真の対話の窓口の役割を果たすとともに、過去20年間、約2,900名余りの教職員が参加する中、ユネスコが追求する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の教育、地球市民教育などを実施・普及することに寄与してきた代表的な日韓教職員交流プログラム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な意味で事業20周年を迎えた今年、『ユネスコ日韓教師対話20年史』を発刊する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ことです。『ユネスコ日韓教師対話20年史』は、このプログラムの歩みを振り返ると共に、近くて遠い韓国と日本の教職員が、このプログラムを通じて今後両国の友好増進と教育協力の強化に必要な新しいビジョンを提示するのに一役買うものと期待しています。

最後に、「ユネスコ日韓教師対話」事業は、長い間地球市民教育、SDG4-教育2030などユネスコの教育理念の実践のためにプログラムに参加し、多大な関心を寄せてくださった教職員の方々のおかげで続けられています。お忙しい中、『ユネスコ日韓教師対話20年史』編纂のために資料の提供やインタビューにあたたかい御協力をいただいた教職員の方々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今回の『ユネスコ日韓教師対話20年史』の記録が日韓両国の教育協力と教職員の能力強化に一層寄与する土台と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韓国ユネスコ国内委員会 事務総長
金光豪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한일교사대화(한일 교직원 교류사업)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과 프로그램의 주역으로 교류에 참여해주셨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양국의 교직원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을 이어준 프로그램으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오랜 파트너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결코 평온하고 순탄한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을 '교육'으로 연결하여 교직원 간 대화와 체험을 중시해 온 본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고도 귀중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감염확산으로 인류사회가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간의 교류와 배움이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대면형 교류 프로그램의 실시는 어렵더라도 서로 지혜를 모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양국이 본 사업을 실시해 온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는 교직원 국제교류 사업을 '선생님이 변화하고, 학생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는 배움의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일 교직원 여러분의 대화와 교류는 상호 이해와 관용을 길러 미래를 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대면교류가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의 발간으로 지금까지의 활동이 정리되고, 또 그 성과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한일 양국 사이의 교류가 한층 더 증가될 수 있다면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익재단법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 이사장
다무라 테쓰오

日韓教職員交流事業の20周年に当たり、心からお慶びを申し上げます。

韓国ユネスコ国内委員会（KNCU）の皆様をはじめとし、プログラムの運営に携わってこられた多くの方々、そしてプログラムの主役として交流に参加された教職員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20年という長い期間にわたり日韓両国の教職員が安心して参加できる、二つの国をつなぐプログラムとして共に歩み続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KNCUの長年のパートナーであるACCUを代表し、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この20年間は決して穏やかで平たんな日々だ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日韓が「教育」で繋がり、教職員同士の対話と体験を大切にしてきたこのプログラムは、このように20年間続いてきた大変稀有で貴重な事業です。2020年に入り、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世界的な感染拡大を受けて人類社会が厳しい局面に直面している今こそ、これまでの交流と学びが活かされるものと信じております。

対面型の交流プログラムの実施は難しくとも、お互いに知恵を絞り柔軟に対応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ことも両国が本事業を実施してきた大きな成果の一つであります。ACCUでは、教職員国際交流事業を「先生が変わる、子どもが変わる、学校が変わる 学びの場」と位置付けております。日韓教職員皆さまの対話と交流は、相互理解と寛容さを育て、未来を切り開く力を秘めています。その価値は、対面交流が困難な時期であっても決して失わ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今回、これまでの活動が記念誌としてまとめられ、その成果が多くの方々に伝わり、更なる交流に繋がっていくことは私共にとっても大きな喜びです。

本事業が今後も発展しながら続いていくことを心より祈念し、お祝いの言葉に代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公益財団法人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ACCU) 理事長
田村哲夫

한일교사대화 2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한일교사대화(한일 교직원 교류사업)가 2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사업은 2000년 3월 제가 문부대신으로서 한국을 방문하여 문용린 당시 교육부장관과 가졌던 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 파견단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 교직원 및 관계자분들이 따뜻하게 환영해주셨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지난 20년간 3,000명에 가까운 한일 양국의 선생님들이 본 사업을 통한 교류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보다 더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이 서로 더 깊이 이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사업은 양국의 교직원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보다 좋은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양국의 상호 이해 촉진과 신뢰 관계 구축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20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물리적인 교류가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앞으로도 한일교사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진행 및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발간에 힘써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아시아 문화센터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前) 문부대신 및 외무대신
현 참의원 의원

나카소네 히로후미

| 祝辞

| 寄稿メッセージ

日韓教職員交流事業が、20周年という記念すべき節目を迎えることを、心よりお慶び申し上げます。

本事業は、2000年3月に私が文部大臣として韓国を訪問し、当時の文龍麟(ムン・ヨンリン)教育部長官と会談した際の合意に基づき開始されました。2007年には、私自身、派遣団の団長として韓国を訪問しましたが、韓国の皆様から温かく歓迎していただいたことを鮮明に覚えています。その後も本事業は着実に発展を続け、この20年間で3,000人近くの日韓両国の先生方が本事業の交流に参加されていることを、心から嬉しく思います。

日韓両国の更なる強固な関係構築のためには、多様なチャンネルでの交流を通して、両国国民の深い相互理解を醸成することが必要です。その中でも本事業は、両国の学校の先生方が未来を築く子どもたちの将来について語り合い、より良い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意見を交わす場となるものであり、日本と韓国の相互理解促進と信頼関係構築に必ず役に立つ、というのが今も揺るがない私の信念です。

2020年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感染拡大により、物理的な交流が困難な年となりました。その中でも、両国の関係者が力を合わせてこの難局を乗り越え、今後も本事業が着実に実施され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

最後に、本事業の実施及び記念誌の刊行に御尽力いただいた韓国ユネスコ国内委員会及び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をはじめとする関係の皆様へ、心よりお礼を申し上げます。

元文部大臣・元外務大臣
参議院議員
中曽根弘文

| 축하

한일교사교류, 20년을 축하하며



한일교사교류 20년, 축하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소라 히바리의 엔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2007년인 듯 싶습니다.

그 해에 있었던 한일교사대화의 방일 단장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 팀은 남쪽으로 향했고, 저의 팀은 홋카이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대학교수 한 분이 소개되어 그의 집에 들러 차와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환담을 나누었고, 그가 부르던 노래가 흥미로워 가사를 받아 적었는데, 그게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아아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게
어느새 세월이 흘렀네.
아아 흐르는 강물처럼, 끝도 없이
그냥 하늘이 황혼으로 물드는 것뿐이라네.

이를 계기로 익숙해진 이 노래는 일본 사람을 만날 때는 물론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일교사교류의 한 파편으로 얻어진 이런 귀한 자산이 어디 나에게만 있었겠습니까? 한일교사교류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아마 적어도 하나 둘씩 이런 귀한 자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일 간의 이해의 자산이 축적되어온 것이지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맺어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한일관계가 아주 순조로워지는 시기였는데, 2000년 3월에 한일교육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본 측에선 나카소네 히로후미 문부대신이, 한국측에서는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 참여했습니다.

나카소네 문부대신은 일본 국회의원 신분을 겸하고 있었으며, 부친이 일본 수상을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라는 분이어서 그런지 일본 정가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다루어진 굵직한 의제가 5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일교사교류였습니다.

이 의제는 양국 간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흔쾌히 합의가 되었는데, 한일 간 파트너십의 핵심적 출발점은 교육이고, 거기에서도 교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상대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한일 간 파트너십 형성의 핵심적 가치로 인식된 것입니다. 서로 준비가 되는 대로(예산조치 등),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하기로 한 덕분에, 2001년부터 우리 측 교사들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기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 간은 우리 측의 일본 방문만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일본 측의 한국 방문도 개시되어서 명실상부한 한일교사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카소네 전 문부대신은 외무대신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은 참의원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사교류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른 듯합니다. 가끔씩 한국에 올 때면, 저와 만나서 교육부장관 시절에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또 2007년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일본 측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한일교사교류 사업에 대한 그의 진정성 있는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웃과의 깊이 있는 이해의 교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미래의 불화와 적대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양국 간의 보다 건강한 미래를 기약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일 간의 교사교류는 지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한일교사교류가 이제 20주년을 맞아 성숙한 단계에 접어듭니다. 계속 발전시키고 확대·심화시켜서 한일 간에 공생공존하는 이해의 축대를 쌓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깃발로 존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일교사교류 20주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前) 교육부장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 용 린

日韓教職員交流、
20年を祝って

韓日教師交流2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流れる川のように、いつの間にかこのように歳月が流れました。美空ひばりの演歌の歌詞を思い出します。2007年のことです。その年にあった韓日教師交流プログラムの韓国代表団の団長として日本を訪問しました。他のグループは南に向かい、私のグループは北海道に向かいました。そこである大学教授を紹介され、彼の家立ち寄ってお茶を飲みながら楽しい歓談を交わし、彼が歌った歌が面白くて歌詞を書きとめたところ、それがまさにこの歌でした。

ああ 川の流れるように ゆるやかに
いくつも 時代は過ぎて
ああ 川の流れるように とめどなく
空が黄昏(たそがれ)に 染まるだけ

これをきっかけに親しんだこの歌は、日本人に会う時はもちろん、日本について話す時、私のとても貴重な財産になりました。韓日の教師交流の一片として得られた貴重な財産は、私にだけあったのではないはずです。韓日の教師交流に参加されたすべての方が、おそらく少なくとも一つ二つはこのような貴重な財産を得たに違いありません。これこそが日韓間の理解の資産が蓄積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なのです。

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の任期中「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が結ばれるなど韓日関係がとてもうまくいっていた時、2000年3月に韓日両国の教育大臣会合がソウルで開催されました。日本側は中曽根弘文文部大臣が、韓国側は私が教育部長官として参加しました。

中曽根文部大臣は、日本の国会議員としての地位を兼ねており、父が日本の首相を務めた中曽根康弘という方だったためか、日本の政界ではかなり比重の大きい人物でした。本会合で取り上げられた大きな議題が五つありましたが、その一つが日韓間の教師交流でした。

この議題は両国間において何の障害もなく快く合意されましたが、それは韓日間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出発点は教育であり、そこで教師が最優先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認識の共有があったからです。教師たちの相手国に対する肯定的な認識が、韓日間のパートナーシップ形成の核心的な価値として認識されたのです。お互いに準備が整い次第（予算措置など）、できるだけ早いうちに施行することにしたおかげで、2001年から韓国側教師たちの日本訪問が実現するようになったと聞いております。最初の数年間は韓国側の日本訪問だけでしたが、2005年からは日本側の韓国訪問も開始され、名実ともに日韓の教師交流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その後、中曽根元文部大臣は外務大臣にも就任され、今は参議院議員として国会議員の役割を果たされていますが、彼にとってこの教師交流に対する思いは特別なものです。時々韓国に来られる時は、私と会って教育部長官時代に合意した内容について話をする事もあります。また、国会議員の身分で日本側の団長として韓国を訪問したこともあります。日韓教師交流事業に対する彼の真剣な関心に敬意を表します。

近隣との深い理解の交流は、人類の普遍的価値となります。未来の不和と敵対に備えて予防する最も効果的な手段でもあります。過去の痛みを乗り越え、両国間のより健全な未来を目指すという点から韓日間の教師交流は極めて未来志向的な事業であります。

韓日の教師交流は20周年を迎え、成熟した段階にさしかかります。発展を続け、拡大し深化させて、韓日の間に共生・共存する理解の軸を築く真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旗として存在す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韓日教師交流20周年を重ねてお祝い申し上げます。

元教育部長官
ソウル大学名誉教授
文龍麟(ムン・ヨンリン)

목차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한일교사 교류 20년, 그 소통과 이해의 발자취'

20-year History of
Korea-Japan Teachers'
Dialogue Programme



002	발간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004	기념사	다무라 데쓰오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006	축사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의원(前 문부대신·외무대신)
008	축사	문용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前 교육부장관)
016		1부. 2001~2004 씨앗을 뿌리다
017		제1장 한일 문화개방과 유네스코
028		제2장 한일교사 교류의 출발
050		2부. 2005~2010 싹을 틔우다
051		제1장 한국 정부 지원의 일본교직원 방한 시작
062		제2장 교류의 본격화, 교사들의 신뢰감 축적
118		3부. 2011~2020 꽃을 피우다
119		제1장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말하다
156		제2장 함께한 20년, 함께할 100년
212	기획	사료 공모전
224		에피소드
230		20주년 축하 메시지
238	부록	한일교사대화 참가 실적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20-year History of Korea-Japan Teachers' Dialogue Programme

일러두기

유네스코학교는 2013년까지 유네스코협동학교로 불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오해와 혼선을 막기 위해서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에 가입해 활동하는 회원교라면 활동 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유네스코학교'로 표기했음을 밝혀둡니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은 2010년 이전까지 “한일 교직원 교류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과 성격, 주관 기관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20년간 지속된 이 사업을 “한일교사대화”로 통일하여 명명합니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은 2010년 이전까지 “한일 교직원 교류 사업”으로 불렸으며, 사업 명칭은 2015년까지 한국, 일본교직원 초빙(초청) 프로그램, 이후는 한국, 일본교직원 방문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부.

2001~2004

씨앗을 뿌리다

제1장 한일 문화개방과 유네스코
제2장 한일교사 교류의 출발

2부.

2005~2010

싹을 틔우다

제1장 한국 정부 지원의 일본교직원 방한 시작
제2장 교류의 본격화, 교사들의 신뢰감 축적

3부.

2011~2020

꽃을 피우다

제1장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말하다
제2장 함께한 20년, 함께할 100년

1부. 씨앗을 뿌리다

한일교사대화

교류의
맹아기(萌芽期).
변화의 첫걸음

2000년 3월
한일교육장관 회담

2001년 2월
제1회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3년 3월
일본 측 자체 예산 일본교사 11명 방한

2004
2002
1
2002
2002

1. 한일 문화개방과 유네스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1년, 세계는 또다른 밀레니엄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벌어진 9·11테러로 인해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전쟁의 종결과 평화에 대한 세계인의 바람 역시 더욱 커졌기에,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유네스코의 사명과 역할 역시 더 무거워졌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동시에,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공동 개최해야 하는 숙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새로운 세기의 물결은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한일 관계마저 서서히 변화시켰다. 1998~2004년 6년 동안 4차례 걸쳐 이어진 일본 대중문화 수입 허용 정책으로 굳게 닫혔던 양국의 문 사이로 문화와 정서가 흐르기 시작했다.

01. 교육을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평화’ 정신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 ‘유네스코 헌장’ 중에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유네스코의 사명과 책무가 새롭게 환기되었다. 국가 간 교류 증진에 힘쓰고 평화와 화합을 끌어내는 건 유네스코가 스스로 짊어진 역할 중 하나였다.

모두에게 잘 알려진 대로,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했다. 역사의 비극이었던 처참한 전쟁을 겪던 1942년에서 1944년 사이, 연합국 교육 장관들이 모여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1945년 11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37개국 대표가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해 유네스코를 창설했다. 교육과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 법칙,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제고하며,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사명이다. 그런 까닭에, 가슴 아픈 전쟁과 야만의 시대를 겪으며 형성된 ‘가깝고도 먼’ 한일 양국 관계에서, 유네스코의 정신과 역할은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은 유네스코 창립 이래 최우선 순위 분야였다. 유네스코는 문맹 퇴치 및 국제 이해 교육 증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은 물론 국제규범 제정, 회원국의 역량 강화 지원,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연대 등을 통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다양한 한일 교류 분야·영역 중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고, 유네스코가 역점을 둔 주요 교육활동의 연장선에서 양국의 교류 협력 의미와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유네스코 역할과 교육 분야 주요 활동

유네스코 회원국 / 정회원 193개국, 준회원 11개국

유네스코의 주요 역할

- Laboratory of ideas: 미래 주요 이슈들을 예견, 관련 전략·정책 발굴
- Standard-setter: 주요 도덕적, 규범적, 지적 이슈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범 창설
- Clearing house: 정보, 지식, 선례의 수집·배포, 혁신 사업 발굴·시험
- Capacity-builder for Member States: 회원국들의 인적 제도적 역량 개발
- Catalys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

유네스코 교육 분야 주요 활동

• SDG4(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교육2030

2000년부터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교육의제를 망라했다. 유네스코는 SDG4-교육2030 운영위원회를 통한 글로벌 교육 의제 조정 메커니즘 운영,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EMR: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발간 업무들을 추진 중이다.

•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계기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이후 SDG 4.7에 GCED가 국제사회의 교육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각종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면서 GCED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패러다임’(유네스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이행 계획)을 가리킨다.

• 문해 교육(Literacy Education)

문해 능력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로서, 문해 교육은 유네스코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기본 사업 중의 하나다. 한국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정신을 기리고,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장려하기 위해 1989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제정하여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에 시상해오고 있다.

•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UNESCO ASPnet: 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학교 교육을 통한 국제협력 및 평화의 문화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53년 11월에 창설, 유네스코 이념과 철학을 초·중·고 학교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 4개 중·고등학교가 처음 가입했으며, 2020년 12월 현재 초등학교 155개교, 중학교 107개교, 고등학교 314개교, 대학교 4개교, 특수학교 12개교 등 총 592개교가 유네스코학교로 활동 중이다.

02. 한일 민간 교류의 핵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반목과 불화의 빗장을 풀고 교류를 선도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부터였다. 한일은 새로운 관계 모색의 마중물이 필요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그 적극적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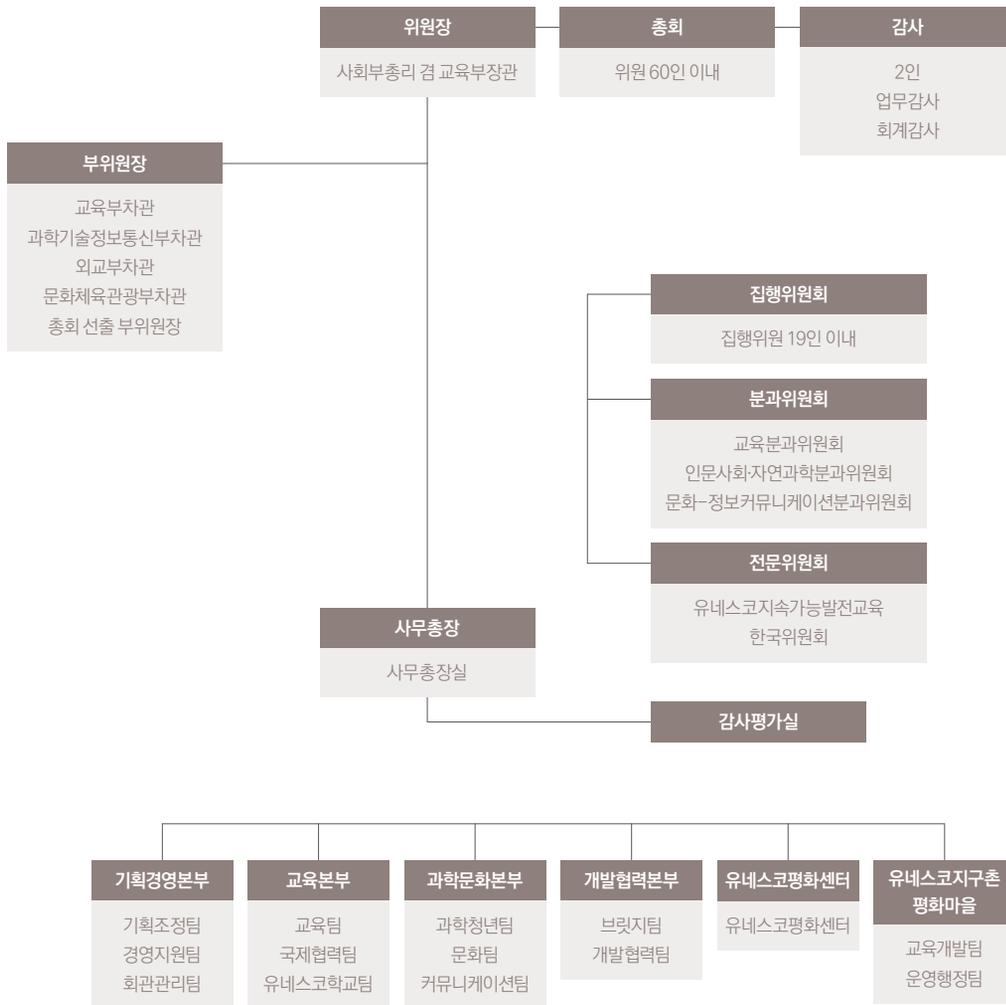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역사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5월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참석 회원국 32개국 중 찬성 27, 반대 1, 기권 4로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이 가결되었다. 같은 해 6월 14일자로 대한민국은 55번째 유네스코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가입한 지 불과 열하루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탓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정식 출범은 한동안 미루어졌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는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54년 1월 30일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위원장 5인(4개 부처 차관 및 총회 선출 부위원장 1인), 사무총장을 포함한 위원 60명 이내로 구성되며,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집행감독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검사하는 감사 2인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출범 이후 교육·과학·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활동은 세계평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과 세계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교류를 강조하는 유네스코 정신에 따른 것으로서 2001년 이후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 역시 유네스코 정신의 실천적 활동의 일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직도



1954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총회 모습
(출처: 국가기록원)

서울 명동에 자리한
유네스코 회관.
2015년 1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 7월 9일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개회식 모습



03. 변화의 서막,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과 파트너십 선언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과거사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선제적인 조치로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하여 일본의 협력적인 태도를 유도하였으며 양국 사이 잦은 어업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신 어업협정 체결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이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10월 방일 중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함께 채택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파트너십 선언문과 더불어 채택된 액션플랜은 향후 한국과 일본이 제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규정한 것으로 향후 한일협력의 실천적 규범이 되었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정상 간에 도달한 합의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내용적으로 풍부하고 형식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간의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실무적인 구상과 검토가 시작되었다. 당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대통령 취임 첫해에 복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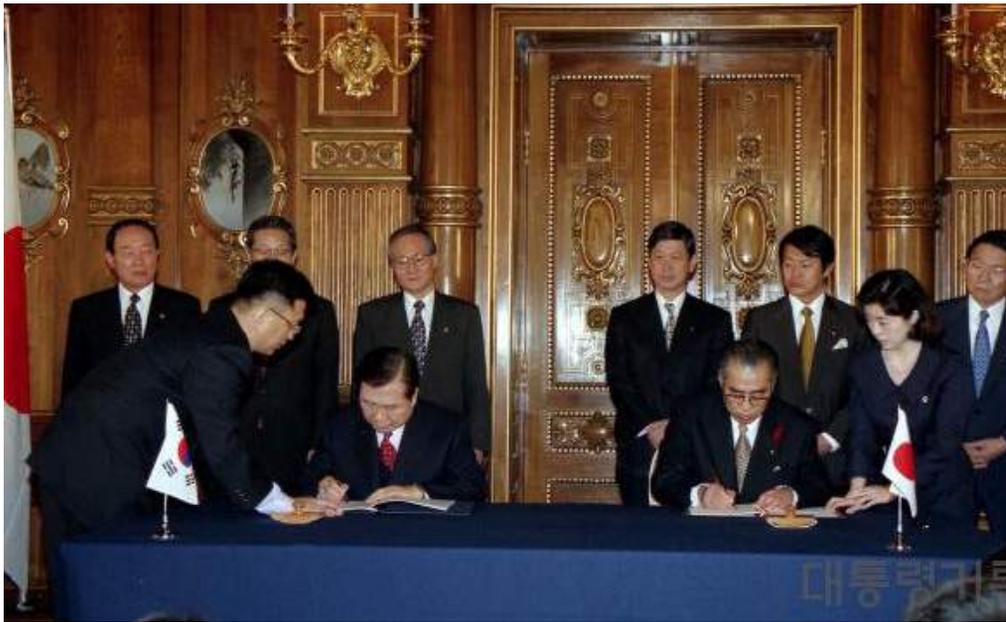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모습

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양국 정부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방일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최초 아이디어는 일본 측에서 먼저 제시한 것이었으나, 이를 구체화하여 기본 골격을 만든 것은 한국 측이었다. 두 정상 간의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20세기 한일 관계를 정리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사의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도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논할 때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곤 한다.

한일 관계의 새 이정표를 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구체화하는 액션 플랜도 마련되었다. 양국 간 대화 채널의 확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국민교류 및 문화 교류의 증진이 그것이다.

이 같은 실행안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상호 협력과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한일 교사교류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합의의 후속 조치 중 하나였다. 2000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曽根弘文) 문부대신이 방한해 문용린 교육부장관을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은 그 역사적 첫발을 내딛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일본 총리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조인식
(출처: 대통령기록관 pa.go.kr)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요약

한일 관계에 새 이정표를 제시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중 주요한 내용이 담긴 몇 항을 소개한다.

1항

(전략)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했다.

10항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깊은 상호 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 간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1항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구축 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일본문화 개방은 재일교포 작가들의 국내 활동은 물론 한일 합작 영화의 물꼬를 트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재일교포 2세 유미리 작가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가족시네마>는 우리나라의 박철수 감독이 연출을 맡고 재일교포 희곡 작가 양석일과 유미리 작가의 동생 유애리가 출연, 한국 영화 최초로 일본 현역 배우들이 출연하고 나라와 오사카 등지의 일본 현지에서 촬영된 작품이었다. 또한, 1999년 일본에서 개봉했던 공포영화 <링>이 한일 합작 영화로 리메이크되었다. 작품은 김동빈 감독이 연출, 배우 신은경과 정진영이 주연을 맡아 원작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이전의 한일 합작 영화는 일본이 전액 투자하고 한국 감독이 기용되는 방식이었으나 1998년에 제작된 <링>의 경우 12억 5,000만 원의 제작비를 한국과 일본이 나눠서 부담한 첫 한일 자본합작 영화로 기록됐다.



1999년에 개봉한 첫 한일 자본 합작 영화 <링> 포스터

2. 한일교사 교류의 출발

새천년과 함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중문화 개방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었다. 2000년 3월 일본 문부성 나카소네 히로후미 문부대신이 방한, 문용린 교육부장관에게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사 교류를 제안하면서 시작된 ‘한일교사대화(Korea-Japan Teachers’ Dialogue)’도 그런 움직임 중 하나다. 한일교사대화는 한국과 일본 양국 교사가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 현안을 이해하고, 상호 정보 공유와 지역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 교류는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 활동과 국제이해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에 적극적인 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선발되어, 양국 사이의 우호와 친선을 증진하고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궁리한다.

01. 도약의 디딤돌, 첫 한일 교육장관 회담

“2000년 3월 20일에 나카소네 당시 문부대신과 제가 만나 회담하던 중, ‘한일 간 교육 교류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몇 개 어젠다 중 하나가 ‘교사 교류를 하자’는 것이었죠. 일본은 대학 입시에 ‘대학 센터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능과 비슷한 시험인데요. 거기에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일본에 초대해 그곳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내지는 1년을 공부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었죠. 그런 여러 이야기와 함께 한일 양국의 교사들이 서로 교류하며 교육 협력을 해 보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처음에는 일본의 초청으로 우리 쪽만 방문했습니다. 당시 저는 교육부장관은 아니었지만 ‘이 사업은 상호 호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얼마든 돈을 대서 그쪽 사람들도 오도록 하자’고 의견을 냈고, 결국 일본 교사들도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일방적인 방문 프로그램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 문용린 전(前) 교육부장관

2000년 3월 20일, 한일 교육부장관 회담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문용린 교육부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문부상 겸 과학기술청 장관이 가진 만남은 1965년 수교 이후 처음인 교육장관 회담이자 문부상의 방한이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국 유학생 100명을 일본 공과대학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유학생을 1,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에 합의했다. 중·고교생 유학 사업도 도모하여 양국에서 470명을 선발해 2008년까지 상대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국의 유학생을 위한 도쿄의숙과 서울의숙을 설치하고, 양국이 동아시아 연구센터를 공동 설립하는 등의 비전도 제시되었다. 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문용린 장관은 상대국 언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수능시험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 일본어가 포함된 것처럼 일본도 대입수능시험인 대학입시센터시험에 한국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나카소네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2002년부터 일본 센터시험에 한국어 영역이 추가되었다. 한일교사 교류 역시 이때 처음 제안되었다.

그리고 2001년 2월, 50명의 참가자(한국 교사 47명과 인솔자 3명)가 일본에 방문해 한일 교육 교류의 물꼬를 텃다.

02. 역사적인 첫 걸음, 제1회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은 2001년 2월 역사적 첫걸음을 뗐다. 초·중등 교원 47명과 인솔자 3명을 포함, 총 50명의 인원이 참가한 행사는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총 20일간 도쿄, 히로시마, 교토, 가고시마 등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 교사 간의 교수 경험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 일본 교육 현황 및 일본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ies) 활용 교육의 견학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월 6일 '일본문화의 성격'과 '국제사회에서의 아시아'라는 주제의 특별강의를 시작으로 7일 '일본 교육정책과 교육개혁 추진 현황', '교육에서 정보기술의 활용 방안'에 관한 강의로 이어지면서 참가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연수단은 강의 청취 후 당시 대한민국이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며 추진 중에 있던 교육개혁 노력을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첫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당시 모습



2001년 2월 8일, 첫 방문 학교인 지바현 소재의 마쿠하리소고고등학교(幕張総合高等学校)에서 연수단은 일본 교육개혁의 현황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종합교과선택제, 자유등학교제, 정보 통신 네트워크화 정비, 그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 실시 등은 학생 중심의 교육 운영 체계로 당시 일본 교육계 내에서도 선구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튿날 이어진 국립과학박물관 견학을 통해 일본 선진 교육의 근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이 직접 여러 가지 기기를 조작하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각종 과학적 원리를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과학박물관의 체험식 교육 방식은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주입식으로 일관해온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2월 12일부터 그룹별 일정을 소화했다. 연수단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가고시마, 사가, 히로시마로 향했다.

가고시마 그룹 활동

“도쿄에서의 공식 일정 이틀 동안 현장 시찰 전 사전이해형식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강의에서 일본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부터 IT교육의 실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강의 내용에는 2002년에 실시되는 신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 IT교육의 필요성, 그러한 IT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일본의 외국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의 강화와 초·중등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부분은 한일 양국의 교사들 모두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제화에 대한 강의 중 한일 양국의 언어교육에 대한 기회를 늘림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아가 아시아 전체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의견은 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상이었습니다. (중략)

가고시마현 종합교육센터를 방문하면서 일본의 IT교육에 대한 노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사들의 장·단기 연수를 통해 IT교육을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컴퓨터 및 인터넷 설비를 확충하는 계획은 일본 문부과학성 및 교육위원회와 현장 교사들의 IT교육을 향한 일치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 가고시마 그룹 일본연수보고서 중

가고시마 그룹은 공식 일정 첫날인 2월 13일, 가고시마현 교육위원회에서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 현황을 전해 들었다. 가고시마현은 2001년 전 현에 걸쳐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교원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 2005년까지 초중등학교 전 교실에 인터넷 설치를 완료하여, 일본 55개 지역 1,700여 개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당시 가고시마현은 일본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인터넷 네트워크의 설치 및 활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튿날인 2월 14일, 연수단은 현 내 센다이(川内)시 교육위원회를 방문한 뒤 센다이 시립육영소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는 비록 지방 소도시에 위치했지만 첨단기술을 활용한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타 학교와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연수단은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 방법이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수업의 역동성과 품질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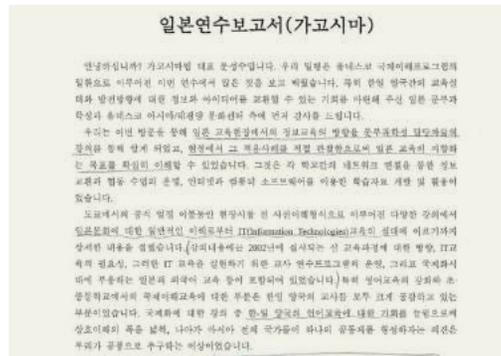
이어 오후에는 가고시마대학교 부속 소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가 진행하고 있던 이른바 복식 수업은 특히 섬이 많아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고시마 지역의 형편에 알맞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 가고시마는 해마다 전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다. 복식 수업은 한 명의 교사가 한 학년 또는 학급을 지도하는 동안 다른 교실에서는 학생 중 한 명이 수업을 이끌도록 만드는 수업 방식이다. 학교의 담당교사는 이것이 학생들의

가고시마대학교 교육학부
부속 소학교의 학생들
(출처: 가고시마대학교
교육학부 부속 소학교
www2-edu.edu.
kagoshima-u.ac.jp)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한편 샌다이시는 관내를 총괄하는 공동 급식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동 급식 시설은 학생들의 위생과 영양을 고려한 편리하고 경제적인 운영 방식이었다. 종합급식소에서 일괄적으로 샌다이시 내 전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 급식 운영 방식은 각 가정과 학교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2월 15일 방문한 가고시마 히가시고등학교는 당시 상당수 한국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하는 것처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연수단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한국어로 서로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환영의 의미를 담아 방문단을 위해 애국가와 한국의 민요를 합창했는데, 그곳에 함께한 모든 이가 감동했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따스한 우정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일본 민요에 맞춰 일본의 전통 무용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고시마 히가시고등학교에서 방문단이 느낀 감동과 경험에는 이후 20년 간 이어질 한일교사 교류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잘 녹아 있었다.



2001년 첫 방일 당시 가고시마 그룹 대표였던 문성수 교사 (제주 성산중학교)가 쓴 연수보고서 일부

사가 그룹 활동

“실은 한국을 알고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역사나 문화,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터이니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잘 알 수 있도록 문부 과학성 측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한국과 일본의 거리가 더욱 좁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려 합니다.(…) 한일 관계는 긴 역사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이제는 양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되새기는 일만큼이나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중시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 사가 그룹 일본연수보고서 중

사가 그룹은 2월 13일 현 교육위원회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사가 그룹의 프로그램은 도쿄의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의 일본 교육 현황에 관한 강연을 듣고 현지 체험을 통해 강연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이원화된 프로그램이었다. 대도시와 대비되는 사가현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오래된 도시의 정취를 느꼈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당시 사가현은 문부과학성의 중장기 교육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IT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원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이었다. 지방의 현임에도 정보센터가 내실 있게 구축되어 현 정보화 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가 그룹은 사가현 내 한 소학교에서 IT교육의 실제 적용 사례를 참관할 수 있었다. 소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인적, 물적, 환경적 자원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생들의 현장 체험에 활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소학교는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게 내실을 기해 IT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다. 당시에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한국이 일본을 이미 앞지른 상태였지만 일본이 달랐던 것은 착실하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모습에서 한국 방문단은 한국의 교육 현장에 상대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인 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했다.

당시 사가 그룹의 대표였던 김길순 선생(인천 서림초등학교)은 직접 쓴 연수단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방문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긴 역사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연수 중 일본의 기술과 경제, 사회 전반의 선진화된 여러 모습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연수 중 만났던 일본인 대부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성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일본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숲속에서는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처럼, 일본에 머무는 동안 내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 어떤 부분을 더 깊게 고민해야 할지 연수단원 모두는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서로 애정 어린 시선과 신뢰, 더 나아가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히로시마 그룹 활동

“날로 좁아지는 지구촌 시대에 일본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때 함께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 지역을 둘러 보면서 과거 한국과 일본의 고대 국가들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교류가 국제 이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이 국제 교류를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히로시마 그룹 일본연수보고서 중

히로시마 그룹은 2월 13일 오전 히로시마 한국총영사관과 교육청을 방문해 현지 교육의 현황을 파악했다. 오후에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와 NHK 방송국을 견학했다. 14일 오전에는 히로시마국제센터와 평화기념자료관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고등학교를 견학했다. 15일에는 오전과 오후 모두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돌아보며 현장의 생생함을 느꼈고, 16일에는 오전에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오후에 교육연구소를 견학하며 바쁜 일정을 채웠다.

이번 방문으로 히로시마 그룹은 일본이 세계의 여러 국가와 교류하고 하나의 지구촌으로 살아가려는 큰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역 차원에서 히로시마의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히로시마 현 국제센터에서 자원봉사자 800명이 통역과 홈스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 협력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과 부산에 지부도 두고 있었다. 히로시마시 공민회관에서는 1년에 한 번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이 각국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고, 히로시마 지역에 사는 외국인인 일본 음식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의 시간도 가진다.

한편 학교 차원에서 국제 교류는 히로시마에서 방문한 네 개의 학교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츠카이시시립 헤라 초등학교는 1999년에 3개국의 외국인을 초청해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00년에는 한국인 유학생 초청 교실, 미국인 화가 초청 평화교류, 어린이 국제교실, 우크라이나 키예프 합창단 초청 교류, 몽골과 쯤다마 교류 등 다채로운 국제 교류를 진행했다. 히로시마 상업고등학교는 한국의 가야금을 배울 수 있는 특별활동을 운영했고 영어선생님은 한국의 사물놀이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히로시마 미나미고등학교는 서울 대신고등학교와

축구 교류 및 사진과 미술, 서예 등을 통한 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히로시마 공업고등학교는 부산 공업고등학교와 2000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2001년엔 로봇 만들기 콘테스트 등의 공동 행사를 진행했다.

위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일본 방문 전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미 다양한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 교육의 국제 교류와 함께 IT 교육 현황은 한국과 여러모로 비교하고 탐구해볼 이슈였다. 일본의 IT 교육 계획을 살펴보면, 정보기술 관련 과정을 필수로 지정하고 인터넷 접속과 교내 LAN 설치, 교사 연수를 통해 모든 수업에 2005년까지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2002년부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업하고, 중등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필수로 되는 컴퓨터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었다. 또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제4차 정비 계획을 시행해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컴퓨터 1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일반 학급에서도 2대를 설치하고자 노력 중이었다.

방문 학교의 인터넷 활용을 보면 지바현립 마쿠하리소고고등학교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설을 구축하고 교사 1인당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지급했다. 또한 ID를 통한 출석 확인과 도서 대출, 전자 게시판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히로시마현립 고등학교는 인터넷 영어수업, 컴퓨

히로시마 그룹의
당시 활동 모습



히로시마 그룹의
당시 활동 모습



터 이용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중이었고, 히로시마 상업고등학교는 컴퓨터를 활용한 경영분석능력 육성 교육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그밖에 사이조중학교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수업과 교토대학교의 전자도서관 사례 등이 있다.

일본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활용은 최첨단의 RITE와 비교할 때 시작 단계지만, 3년 동안 시범학교를 두고 유해정보를 차단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철저한 검증 방식과 같은 부분은 일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파트너, 일본 ACCU(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비영리 재단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 Asia-Pacific Cultural Center for UNESCO)는 유네스코의 방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문화 진흥과 상호 이해의 기여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네스코 가맹국과 협력하여 문화협력, 교육협력, 인적교류 분야에서 현지의 요구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지역협력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교사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사진 콘테스트, 책 출판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0년대부터 ACCU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ACCU가 주관하는 출판 연수과정에 한국 출판계의 젊은 전문가들을 파견했으며, 1970년 말부터 매년 전국 45개 도시를 옮겨가며 ACCU 순회 사진전을 열어 사진예술의 발전뿐 아니라 사진을 통한 국제문화 이해에 이바지했다. 특히, 출판 분야의 인적 교류는 국내 출판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출판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学校教育に関わる教育プログラム

教職員の国際交流を通じた国際理解推進

未来を担う子どもたちを育てる「先生」を対象とした国際交流プログラムを実施しています。教職員が住む国の学校などを訪問し、現地の先生や児童・生徒と交流し、教育事情を学びます。顔が見える交流によって多種多様な文化の理解と友好を深め、教職員自身が変化していくことは、子どもたちの豊かな学びへとつながります。ACCUは長年の実績により培った国内外のネットワークを活かして多様な機関と協力し、学び合いの機会を提供しています。

- 活動地** ・日本教職員協会の海外派遣 ・海外教職員の日本への招へい
- 多様な国際ネットワーク** ・ユネスコ、国際連合大学等の国際機関や国際NGO、各国政府機関等
- 実績** 約20年にわたり国際機関および政府機関の教育交流事業を受託。2008年～2009年 ▶ ACCU・ユネスコ青年文化使節派遣事業 2002年～2011年 ▶ 国際連合大学会館 国際教育交流事業 2011年 ▶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国際交流事業

韓国 1,126名

中国 合計 5,099名

タイ 3,973名

インド

日本

※1971年～2019年

▲これまでのプログラム参加教職員数(2001年～2019年5月現在)

ACCU 활동 내용 소개(출처: ACCU 활동 소개 브로셔 www.accu.or.jp)

한일교사대화 역시 ACCU가 초창기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공동 주최한 대표적인 행사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은 공감과 파트너십으로 한일 간 교류와 우호의 폭을 넓혀왔다.



한일교사대화 참가자 인터뷰

만남과 대화, 소통과 공감의 추억 1

교류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책임감,
첫 물꼬라는 자부심

2001년 1회 방일 참가교사
양영자

Q.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한 계기는?

A. 2001년 당시 유네스코학교 담당 교사였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한일교사 대화 참가 의사를 저에게 물었고,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서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Q. 2001년 제1회 참가자로서 당시 소회가 궁금합니다.

A. 당시 연수단에 참가했던 모두가 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교류 행사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단순한 '문화 사절단', '교사 사절단'이 아니라, 다음 대화가 원만히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일교사대화 첫 참가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선생님들과 3주 동안 같은 일정에 참여하면서 꽤 많이 친해졌습니다. 가끔

씩 돌아보면 고단함도 있고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의견도 나누고 때로는 속내를 주고받던, 일본 방문 기간 동안의 저녁들이 그립습니다. 그때 만난 선생님들과는 비록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지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를 인솔했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현숙 선생님과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일교사대화는 제가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네스코의 이념과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대에 부응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의 정신과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한일교사대화는 저의 교단 생활의 큰 자산이자 보람입니다.

Q. 한일교사대화가 2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의 꼼꼼한 준비와 자상한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챙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또한 한국위원회는 첫 한일교사대화에 다녀온 후 다양한 유네스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한국위원회의 노력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충실한 촉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좀 더 많은 유네스코 활동 교사, 교육 활동가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한일교사대화 사업 참가 후, 일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게 있나요?

A.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일교사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 일본위원회와 주최측의 친절에도 한국 교사들은 마음이 다소 불편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복잡한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참으로 오묘하여 친선과 적의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일본 학교를 첫 방문하고 수업을 참관하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일본과 몹시 닮은 것을

알고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교실과 운동장,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심지어 담장 모습도 어쩌나 우리와 닮았는지, 발 디딘 곳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때, 민족과 국가를 가르는 것은 언어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일반 여행이나 답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였습니다.

Q.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일교사대화의 성과와 의의는?

A. 사업의 성과 유무를 논외로 치더라도 어떤 교류사업을 20년 동안 지속한다는 자체 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일 관계는 축구경기 한 번으로도 뜨거워지는 국민 정서가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도, 역사교과서, 위안부 문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는 한국위원회나 참가하는 교사들이나 모두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한일 교사대화의 의의는 역할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Q. 향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제언할 게 있다면?

A. 1회부터 20회까지 한일교사대화에 참가했던 교사들을 모아 소박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벌써 퇴임하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사들이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학교는 전 세대와는 가치관이 확연히 구별되는 '신인류'가 교단을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 능력도 많고 의욕도 있지만 활동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정신의 가치와 덕목을 학교 현장으로 가져오려면 학교 업무 분장의 형태가 아니라 관련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사가 유네스코 활동의 진정성을 깨닫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생님들이 젊은 교사의 활동에 재능기부 등의 형식을 통해 협력적 동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 해외방문 프로그램 참가를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한일교사대화 참가 교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행사 자체가 소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교사들이 한일교사대화 참가를 개인의 삶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교육학습자, 실험적이고 실천하는 활동가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일교사대화 참가자 인터뷰

만남과 대화, 소통과 공감의 추억 2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교류 프로그램

2001년 1회 방일 참가자

이용훈 교사

Q. 당시엔 전례가 없던 한일교사대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 당시 저는 경북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직하면서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참가했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운영하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CCA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몇 번 참가했습니다. CCAP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당시 호주 대사관에서 호주 문화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경북외국어고등학교가 가입을 했습니다. 유네스코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 학생들과 교류했죠. 당시에는 지금만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주로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학생 전부 1대1 매칭을 해 정기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본은 일어로, 미국은 영어로 학생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교도 유네스코학교에 등록되어 있기에, 교장선생님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죠.

Q. 현재 한일교사대화는 주로 포럼의 형태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회 때는 어땠는지?

A. 1회는 다소 '일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학교, 기관을 찾아갔죠. 3주간 이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도쿄에서 1주간,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이후 각 지역별로 3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각 히로시마, 가고시마, 사카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고시마 팀에 자원해서 해당 지역에서 1주, 그리고 오사카와 교토에서 다시 모여 마지막 1주 연수를 마무리했습니다.

Q.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그중 인상깊었던 기억은?

A. 도쿄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정은 문부성 각과 담당 과장의 문부성과 일본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싶었지만 일본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교육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컸죠. 그래서 보통 한 분이 설명을 하고 나면 질의응답이 끊이질 않아서 나중에는 질의응답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또 일본 측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바로잡기도 했기에 그 열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가고시마 지역 학교 방문 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한 학교에서 한국 교육에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토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사카와 교토에서는 유적지 방문 위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교토는 과거 일본의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신사 등을 찾아 한국과는 조금 다른 종교적인 배경과 문화를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나라 지역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나라는 과거 백제 유민들이 가서 세운 지역인데, '나라'라는 지역명이 순우리말인 '나라'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곳 유적들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성덕태자, 호류지 등 백제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았습니다. 설명해주시는 분들도 백제의 영향을 받았고, 백제의 문화와 연결된 문화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과거 백제와 일본의 문화 교류 흔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Q. 그때의 경험이 실제 수업 방식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나요?

A. 우리 세대는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한 역사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해 가르칠 때도 다소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주간 일본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도 체험이나 전통 목장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병행하면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문화가 있고, 우리와 종류가 다를 뿐, 일본 문화를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가르치는 것이 마냥 옳은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가 외국어학교다 보니 일본어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담당이었지만 일본어과도 담당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사실적이고 긍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1회 참여 후 일본과의 인연이 지속된 게 있나요?

A. 연수 직후에 일본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일주일간 머물 때 그곳에 ‘동경한국학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도전 정신을 갖고 학교를 발전시킬 사람이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국제 교류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어고등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활동을 이어왔음에도, 이렇게 해외에 ‘한국학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귀국하자마자 한 달 동안 짐 정리를 하고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2년을 근무하고 귀국했는데, 교육부에서 교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견을 간 것이 아니었지만, ‘동경한국학교’에 교사 자리가 하나 있어서, 다시 지원해 또 일본으로 돌아가 3년을 더 근무했습니다. 도합 5년간 근무했습니다.

Q. 그렇게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게 있나요?

A. 흔히 일본인들은 속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친절함을 가장한다고 들었는데 연수 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 분들이 과거 문화에 대해 “우리는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백제문화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결국 이런 문화는 한국 백제의 문화유산이다.”와 같은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들만큼은 정직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국제 교류라는 것은 정치외교적인 소통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는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만 국가 간 긴장 상황에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분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느끼고 상호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Q. 한일교사대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다면?

A. 기본적으로 이런 민간교류는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교사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결국 학생들의 교육은 선생님들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무한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사고와 관점을 형성하는 데 선생님들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일 양국은 제대로 된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를 위한 방법 중이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방문해서 그 방문한 현장에서 교육 관계자들과 대화를 했지만, 지금은 상호간의 교류를 하고 있으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토론의 시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궁금한 사안들이 많을 것인데 그 사안들에 대해 한일 선생님들이 같이 대화를 통해 토론을 하는 방법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하거나 진행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같은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방문했을 때 야스쿠니 신사는 앞에까지만 가 보고, 내부 방문이나 관계된 이야기는 되도록 피해가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일본인들이 숭배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전

범 외에도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같이 모여져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사적 인물을 정신적인 지주이자 후손들에게 하나의 귀감으로 교육하고 있듯이, 일본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지만 후손들을 위한, 국가를 지속하기 위한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구분하되 각 국가별 입장은 서로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도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본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각자의 입장과 시선에 기댄 말하기 불편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팩트(fact)로서 과거 역사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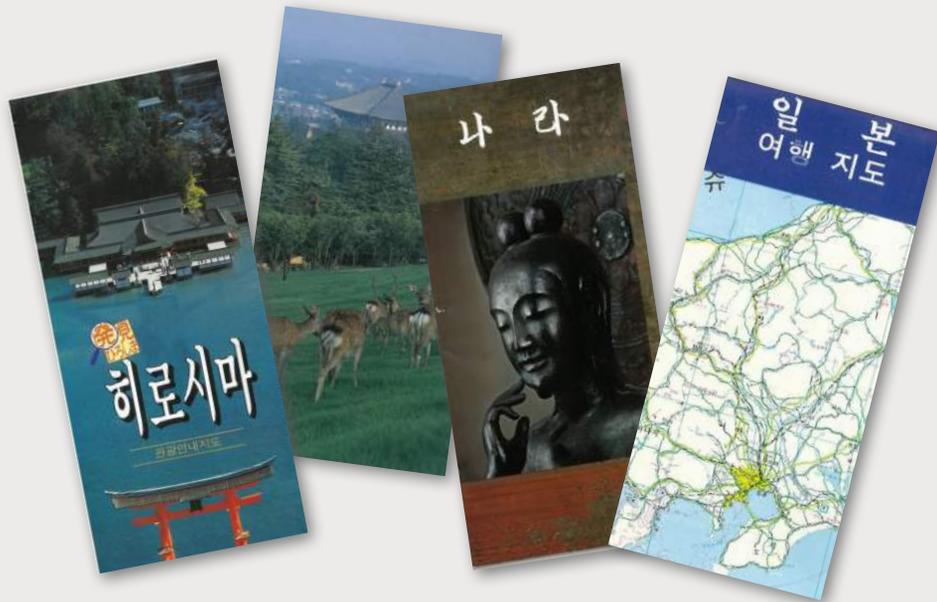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 특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교사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진솔하게, 양국의 가능한 많은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2001~2005년 한일교사대화 역사

2001년 도쿄를 방문한
우리나라 교사들
(제공: 양영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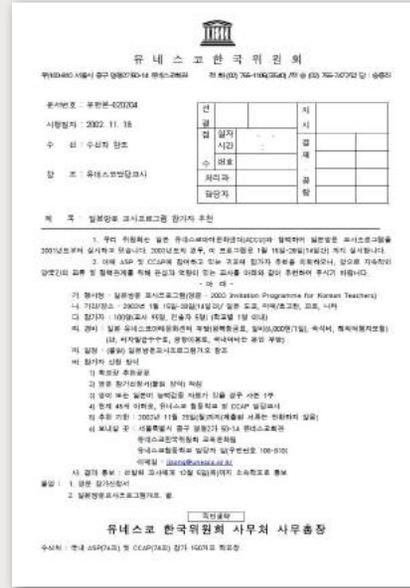


2001년 방일 당시
우리나라 교사가 수집한
팸플렛들
(제공: 양영자 선생님)





2001년 히로시마에 방문한 우리나라 교사들 (제공: 양영자 선생님)



2003년 일본 방문 교사 선발 학교 추천 시행 공문 (제공: 유철 선생님)

2001~2004년 한일교사대화 참가 현황

연도	구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
2001	방일	2.5-24 (20박 21일)	남상문 (교육부)	남상문	50명	히로시마, 사가, 가고시마, 오사카
2002	방일	1.24-2.5 (13박 14일)	강대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부장)	정봉근 김영재	50명	미에, 효고, 오사카
2003	방일	1.16-27 (13박 14일)	김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구관서 한경문	99명	야마구치, 돗토리, 가가와, 미야자키, 오사카
2004	방일	1.29-2.10 (13박 14일)	강대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부장)	임승빈 유지완	99명	홋카이도, 시즈오카, 오이타, 에히메, 오사카

2부. 씩을 티우다

한일교사대화

교류의
성장기(成長期).
우정을 쌓는
다채로운
만남과 소통

2005년

- 한일 우정의 해
- 한국 교육부 지원 시작,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시작

2007년

- 1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방일 단장
- 6월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문부대신
방한 단장

2009년

- 8월 제1회 한일교사포럼
- 신종인플루엔자 비상대책운영위원회
- 방일 후속 종합 보고회(~2010년)
- 한일교사대화 카페 운영 시작

2010년

- 'ESD 한일교사대화' 사업 명명
- 1월 한일교사대화 10주년 기념 행사
- 제2회 한일교사포럼 오사카 개최
- 8월 제3회 한일교사포럼 서울 개최

1. 한국 정부 지원의 일본교직원 방한 시작

2001년부터 시작한 한일교사대화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 교사만 일본에 방문하는 일방적인 형태였으나, 한일 우정의 해인 2005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교직원의 한국 초빙 프로그램이 성사되었다. 그 첫 해 20명이었던 한국 방문 일본교직원은 2008년부터 50명대로 방문인원이 확대되어 2019년까지 일본교직원 688명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교육 현실을 경험했다.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 6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 2005’로 지정했다.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캐치프레이즈는 ‘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일본어: 進もう未来へ、一緒に世界へ 영어: Toward the Future, Into the World)’이다.



한·일 우정의 해 2005
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



日韓友情年 2005
進もう未来へ、一緒に世界へ

01. 2005년 한일교사대화 | 궤도에 오른 교류와 소통

2005년부터 시작한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은 교사 20명 등 일본 방문단 24명이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때마침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이했기에 한일 교사 교류의 발전과 도약에도 큰 의미 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본은 오부치 기금으로 매년 한국 교사를 초청해, 2005년 기준 400여 명이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2005년 제5차 한국 교사 일본 방문 프로그램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도재원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99명이 일본을 방문해 초·중·고등학교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한국 교사들은 각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했고, 이는 한일 교사 교류를 통한 한일 간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2004년까지 일본 측 자체 예산으로 일본 교사의 방한 프로그램이 두 차례 진행된 바 있고, 2005년부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일본 교사들의 한국 초청이 가능하게 됐다.

2005년 일본 교사들의 첫 방한 일정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수원, 안동, 경주, 포항,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방한 단장은 미야기대학교 교수였던 미카미 가즈유키(見上一幸)이며, 일본 문부과학성 아사이 다카시(국제협력과 과장), ACCU 이이다 가즈로(사무국장) 등 19명(교육청 3명, 교감 2명, 교사 14명)이 방한했다.

일본 교사 방한단 답사 프로그램

학교 및 교육청 방문

서울: 서울사대부여중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광진학교

포항: 포항제철서초등학교, 포항제철동초등학교

부산: 부산국제고등학교, 부산광역시 교육청

세계유산 등 방문

창덕궁, 수원화성, 불국사, 석굴암, 경주국립박물관, 도산서원, 하회마을

전통 공연 관람

안동탈춤, 제례 체험, 호반정(공연), 난타, 안압지 문화공연

2005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5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5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5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02. 2006년 한일교사대화 | 문화 유산의 이해와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

“일본 학교는 우리나라 교육 시설과 비교해 부대 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식당, 동아리 활동 교실 등)이 상당히 우수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우리도 향후 부대 시설에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반면 교실 내 학습 여건은 우리나라가 앞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방문한 학교 모두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수업은 없었으며, 교수 장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중략)

문화 체험을 위해 찾은 아오야 가미지치 유적지와 무키반다 유적지에서는 일본 속에 스며 있는 한국의 고대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한반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고대 유물을 통해 일본에 미친 한국의 영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오야 화지 공방에서도 한국에도 있는 한지 공예 체험을 하면서 양국의 문화가 너무나도 닮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 2006년 방일 프로그램 참가자 이상진 교사 일본연수보고서 중

2006년 1월 11일에서 24일까지 이돈희 단장을 중심으로 한 99명의 한국 교사가 홋카이도, 구마모토, 시가, 돗토리, 오사카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일에서는 유네스코학교 외에 장애인학교를 방문해 일본의 장애인 교육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직업학교 등 특수학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고, 인성 교육이나 국제교류실 등 특수교육 형태의 저변이 넓었던 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6월 11일에서 18일까지는 구사하라 가즈히데 단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교사 25명이 방한해 전주, 부여, 광주 등의 지역을 둘러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백제 목화체험관과 무령왕릉을 방한단을 위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 선정해 한일 교류의 유구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한단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문 및 교류 학교 수업 참관, 가정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넓혔다.

2006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6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6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6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 교류의 본격화, 교사들의 신뢰감 축적

01. 2007년 한일교사대화 | 문용린, 나카소네 히로후미 단장 참여로 사업의 중요성 확대

2007년 제7차 한국 교사 일본 방문 프로그램은 2007년 1월 23일에서 2월 5일까지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총 159명이 5개 그룹으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다.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및 문화유적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문용린 단장은 2001년 당시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어낸 나카소네 히로후미 당시 문부대신에게 방한 단장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나카소네 의원은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이후 6월 나카소네 히로후미 단장과 일본 교사단이 방한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리하여 2007년 한일교사대화는 이 프로그램의 첫 단추를 끼운 주역들이 단장으로 참여한, 한일 교사 교류 20년사의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
(좌)과 문용린 교수(우)



2007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7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7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7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7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7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7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방일단은 홋카이도, 효고, 사이타마, 나라, 가고시마, 오사카 등을 방문했는데 현지 학교에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CCAP 수업을 진행했고, 프로그램에 가정 방문이 추가되었다. 한편 방한단은 6월 10일에서 17일까지 7박 8일간 한국에 머무는 동안 대전, 청주, 경주를 방문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한편, 서울, 대전, 청주의 유네스코학교를 방문해 한국의 공교육 및 사교육 시스템과 특수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일교사대화 방일 체험기

“교육을 통해 열어가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미래”

- 제7차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단장 문용린(전 교육부장관)

‘가깝고도 먼 나라’, 이것이 일본에 대한 대다수 한국인들의 뇌리에 박힌 인상이다. 이번 일본 방문은 이런 선입견을 ‘가깝기 때문에 친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직접 보고 듣고 말해보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직접 체험은 많은 것을 건너 뛰게 한다. 듣고 읽기만 해서는 쉽사리 다가오지 않는 이해와 감동이 단 한 번의 직접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 머리와 가슴에 가득 담겨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한국교직원 일본 초청 방문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로 낯 모르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자끼리지만, 오고 가고 서로 손을 마주잡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깊은 이해와 감동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7차 방문은 일본의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체험의 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효율적으로 조정된 여행이었다. 일본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체험이 기대 이상으로 성취된 유익한 여행이었다. 이러한 일본 체험은 160여 명의 한국 방문단의 머릿속에 한국과 일본이 상부상조하며 아름답게 공존하는 모습을 한층 진하게 스케치해 놓았을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총 160여명의 한국 교육자들이 2주간(2007.1.23 ~ 2.5)에 걸쳐 일본 전역을 훑어본 비교적 긴 여행이었다. 동경에서 5일, 이후 그룹(A, B, C, D, E)별로 나뉘어 지방 도시에서 5일씩, 그리고 오사카에 다시 모여 4일을 보냈다. 체류했던 각 도시의 초·중·고등학교를 1개교씩 방

문해서, 학생들과 급식도 함께 했고, 수업을 참관했고, 그곳의 교사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지방도시의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 또는 학부모의 초청을 받아 가정 방문(home visit)도 할 수 있었다.

우리 방문단이 도착하던 날 도쿄호텔에서의 환영식은 정중하고 따뜻했다. 일본 문부과학성과 유네스코 관계자 및 이 초청 방문의 주관 부서인 ACCU 관계자들의 예의를 다한 환영은 감격스러웠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나종일 대사와 교육담당관의 참석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다. 이날의 따뜻한 환대에 대한 우리 방문단의 응답 역시 훌륭했다.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 입은 남녀 선생님들과 교장들의 민요 가락은 환영식장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도쿄에서 5일을 보낸 뒤 방문단은 30여 명씩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방 도시로 내려갔다. 홋카이도 그룹, 타카라주가 그룹, 사이타마 그룹, 나라 그룹, 가고시마 그룹. 나는 홋카이도 그룹에 속했는데, 눈의 고장답게 그곳에 머무는 5일 내내 탐스런 눈이 소복소복 내렸다. 홋카이도 교육위원회를 방문해서 교육감의 교육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홋카이도 개척사를 담은 박물관을 방문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방문한 학교마다 전교생이 커다란 강당에 모여 성대하게 환영해 주었고, 전통차인 ‘오맛짜’를 학생들이 직접 대접해 주었다. 지체 장애아 중심의 특수학교도 방문해서 그들의 세심한 교육 모습에 감명도 받았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일본 교사들의 호기심도 대단했다. 특히 교사들의 복지와 수당, 교무실 환경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홋카이도 체류 5일 중 하루저녁은 현지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홋카이도의 전형적인 가정이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즐거웠다.

그룹별로 지역 방문을 끝낸 뒤 우리 방문단은 모두 오사카에 집결했다. 전체 여행의 마무리를 위해서였다. 그룹별 방문 보고회를 가졌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회식도 가졌다. 5개 그룹별 보고회는 방문 기간 중의 주옥같은 체험을 짧은 보고 시간(15분) 내에 담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교사들의 빼어난 ‘파워포인트’ 실력이 한층 돋보인 시간이었다.

드디어 폐회식이 열렸다. 일본 측 내빈으로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이 우정 참석해서 특히 고마웠다. 그는 7년 전 당시의 일본 문부대신으로서 나와 만나 이 한일 교육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함께 구상했는데, 당시 일본 측 당사자로서의 감회를 감동적으로 언급했다. 나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7년 전의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

2000년 당시 한국과 일본은 일본교과서 문제로 미묘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다. 역사 왜곡이 심한 교과서를 채택하는 일본의 학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일 간 교육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갖는 것이 과연 적절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는 우선 만나서 흥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몇 가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 교육자 교환 방문도 그 성과 중의 하나였다.

나는 답사를 통해서 초청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고마움을 표했고, 이번 여름에 나카소네 전 문부대신이 일본 교사 방문단을 이끌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흔쾌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이번 여름에 나는 다시 나카소네 씨를 한국의 서울에서 그 방문단의 일원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여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한일 간의 교육자 교환 초청 방문 프로그램의 취지는 한일 간의 이해 증진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 속에는 한일 간에 흐르는 묘한 경쟁과 적대심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아직도 1945년 이전의 일본제국주의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아픔을 극복하여 승화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그 당사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는 이런 아픈 기억만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없다. 이웃끼리 상생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리다. 한국과 일본의 공존공영을 위한 협동과 공조 그리고 연대는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을 위해서 우리는 한일 간에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가장 효과적이고도 중심적인 매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방문단에 참여한 160여 명의 교육자들이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은 이제 곧장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아름다운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정과 신뢰의 싹을 수많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틉을 것이다. 우리 교육자들이 펼칠 한일 간의 이해 증진 노력에 많은 격려를 보낸다. 2주를 함께한 선생님들이 불현듯 그리워진다.

2007년 일본 교사 한국 방문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표

- 일본 교사의 한국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교육시스템 이해
- 문화 탐방을 통한 한국사회 및 한국 문화 이해
- 한일교사간 문화 교류 및 상호네트워크 구축
- 한일 양국의 중장기적 우호 협력 관계 형성

2. 기간: 2007. 6. 10(일) ~ 17(일)(7박 8일)

3. 장소: 서울, 청주, 부산 3개 지역 학교, 기관 및 문화유적지

4. 참가자: 총 30명

- 교사(장), 교육청 직원: 23명
- 단장: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전 문부대신, 현 참의원 의원) (6월 10~11일)
- 부단장: Mr. Sagara Noriaki(사가라 노리아키)(교토 노틀담대 총장) *나카소네 단장 출국 후 단장 맡음.
- 일본문부과학성(MEXT): Ms. Tada Mayuko(다다 마유코) 외 1명
-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 Mr. Iida Kazuro(이다 카즈로), Mr. Fujita Yoshihiko(후지타 요시히코)

5. 프로그램 일정

- 서울 지역: 6월 10-13일(3박)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방문
 - 서울정문학교(특수학교) 방문
 - 일본 문화 소개 수업 실시 및 학생과의 대화
 - 창덕궁, 인사동, 청계천 방문
 - 한국문화 체험

- 청주 지역: 6월 13-15일(2박)
 - 대전 외삼중학교, 상당고등학교 방문
 - 일본어 수업 참관 및 학생과의 대화
 - 충북교육청 방문, 한국 교사와의 만남(가정방문)
 -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방문
 - 청주 고인쇄박물관 방문 (강의, 관람, 문화체험)
- 부산 지역: 6월 15-17일(2박)
 - 경주 불국사, 석굴암 방문
 - 부산에서 자체 평가회 실시(해운대 그랜드 호텔 회의장)

02. 2008년 한일교사대화 | 로컬 곳곳에 스며드는 교류와 이해의 정서

“우리가 살펴본 일본의 교육 현장에는 소위 ‘선진 교육 환경’이라 할 ICT는 물론 상하 조정이 가능하고 양 날개(측면)에 소칠판이 2개씩 들어 있는 곡면칠판(曲面漆板)조차도 없었다. 당연히 수업은 칠판에 분필로 판서하면서 교사가 목청을 돋우며 설명하는 전통적인 수업이었다. 이런 오래된 방식만 봐서는 선진국인 일본을 이끄는 게 오직 교육의 힘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여겨졌다. 그렇다면 일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2008년 한일교사대화 방일 이견영 교사(한일교사대화 20주년 사료 공모 기고문 중에서)

1월 22일에서 2월 4일까지 약 2주 동안 열린 2008년 한일교사대화 방일프로그램에는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국 교사 159명이 참가했다. 방문지는 군마현, 게센누마시, 다카라즈카시, 사이타마시, 아키타현, 오사카 등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탐색과 연수를 지역 방문 과정을 통한 사례 연구로 진행하여 교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수 방법의 공유를 강화했다. 한편 8월 19일에서 28일까지 9박 10일 동안 고자와 기미코 단장을 중심으로 52명의 일본 교사가 방한해 인천과 수원, 창녕, 경주 등을 방문했다. 방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룹별 지역 이동이 아닌, 매년 다른 도시를 선정해 해당 지역의 유네스코학교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 2008년은 경북 지역이 선정되어 부산에서 문화 체험 및 유네스코학교를 방문한 뒤 문화 탐방을 위해 경주로 이동했다.

2008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8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8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08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8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8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8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한일교사대화 방일 체험기

지역사회와 밀착해 변화를 모색하는 일본의 공교육

- 2008년 방일 교사 서혜숙(서울 공진중학교)

2001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과 한국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고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하여 한일 교원들에게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주제토론,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온 ‘한국 교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이 올해로 8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158명의 교사들이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도쿄 및 오사카를 포함해 그룹별로 군마, 게센누마, 타카라즈카, 사이타마, 아키타를 다녀왔다. 중학교 교사로 구성된 우리 C조는 도쿄와 타카라즈카시의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4곳, 양호학교 1곳 등의 교육시설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일본 교육현장 견학과 더불어 일본인과의 직접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최근 일본교육계 전반의 움직임은 2006년 국제 학습도달도조사(PISA)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교육 수준이 이전에 비해 하락했다는 성적표를 받은 일본은 학습량 강화, IT교육 집중 투자를 하는 한편, 이를 담보할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기회 강화, 교원 면허 유효기간제도 도입, 교원의 다면평가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문부성에서는 PISA라는 외적 지표로 경직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동안, 일선 학생들의 사립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공립학교들의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립학교 역시 지역사회와의 교류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사회의 인정과 후원을 상당히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트라이얼 위크(trial week)가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신의 미래 직업을 선택하여 실제로 1주일간 신입 직업인으로서 일을 배우고 익히는 일종의 가상 프로그램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구성원을 키워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참 부러웠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학부모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학교당 1명꼴로 교사가 휴직하고, 학생들 또한 학급당 2~3명꼴로 부적응현상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요즘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생각하면, 공감대 형성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조차도 마냥 낙관할 일 같지만은 않았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사립학교부터 평범한 공립학교까지 다양한 특성의 학교 방문을 통하여 느낀 점은 수많은 환경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모두가 단체생활에서 갖춰야 할 질서와 예의 등 기본 생활습관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5살 어린아이들조차도 모두가 조용히 앞에서 진행되는 말에 경청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지도가 가능한가? 연수 기간 내내 이 물음에 답하고자 노력했고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활동을 생각하고 실행하려 애쓰는 교사들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노력이다. 예를 들면 학생이 주관하는 학교행사에서, 실제 원서보다 더 복잡하고 꼼꼼하게 교사가 직접 쓴 고입원서작성 매뉴얼이나 학생들의 희망에 근거한 50여 개의 직업체험 장소를 물색하는 교사의 모습 등에서 그런 노력의 흔적들을 발견한다.

유치원 아이들 싸움 하나하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이라는 해결책은 단시간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행위의 부적절함을 전달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교사에게 가장 무성의하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말한 어느 일본 교사의 말에서 새삼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되새길 수 있었다. 그의 말이 나에게서는 체벌이 나쁘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교사 스스로 노력하였는가를 질책하는 소리로 들렸다.

또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 태도를 보고, 일반 가정에서의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공부 일색의 사교육 투자가 주류인 우리와는 달리, 아이들에게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른 우수한 교사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보다 큰 틀에서 교육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새 학년을 맞으며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는 교사가 될 것을 새로이 다짐해 본다.

한일교사대화 방한 체험기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를 위한 지성(知性)의 필요

- 2008년 한일교사대화 방한 단장 고자와 기미코 도쿄학예대학 명예교수

8월 18일, 일본 각지의 52명의 교원들은 다음날부터 시작될 한국 방문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도쿄 호텔에 모였습니다. 사전에 메일을 주고받으며 준비와 관련 학습을 했는데, 출발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메일의 내용들은 보다 더 구체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들어 배운 ‘고향의 봄’도 연습을 마치고 보니 참가하신 분들의 마음은 벌써 한국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8월 19일, 하네다를 출발해 일본 국내여행에 걸린 시간과 같은 정도의 시간 만에 김포에도 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과 통역, 가이드 분들께서는 따뜻하고도 세세하며 배려 넘치는 설명을 통해 저희 일행의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교류사업의 단장으로서 저는 귀국 후에 일본의 각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얼마나 활발하게 실천되고 확산될 것인지를 예감하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기에 크나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청명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일본어와 영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진지한 수강 태도와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압도되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교내 안내와 학교급식, 일본어에 대한 학생들의 엄청난 관심과 흥미를 보면서 시민,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원들이 한일 양국의 교육, 문화, 역사를 통해 서로 배워가는 관계성을 확실히 구축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성’을 갈고 닦는 것이 장차 한일 양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 준 기회였습니다. 이렇듯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03. 2009년 한일교사대화 | 다변화되는 교육 어젠다

2009년 2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경숙 단장 외 148명의 한국 교사 방일단은 후쿠시마현의 니시고촌, 사이타마시, 나라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오사카 등을 방문했다. 이번 교류는 교사 네트워크 구축의 확립을 위하여 한일 교사 간 교수 경험의 교류장을 만드는 데 힘썼다.

유엔대학(UNU) 건물을 방문해 ESD 교육을 위한 고등기관과의 협력을 참관하기도 했다.

또한 ‘21세기 리더십 특강, ESD 현황 소개’에 2009 독일 본(Bonn) ESD 세계회의 내용 공유 등 지속적 네트워크 참가 및 향후 운영 방안 협의를 위한 특별 강연들이 추가 편성되었다.

8월 26일에서 9월 4일까지는 기소 이사오, 도시오 테지마 단장이 이끄는 방한단 53명이 인천, 수원, 통영, 안동, 경주 등을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한일 양국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를 비교, 검토해 현장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한일교사포럼이 처음 열렸다. 이는 한일 교사들로 하여금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통해 교수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하게 해, 기존 연구자에서 벗어나 현장의 교사들이 연구와 교육 현장 경험을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9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09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을 마련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제적 성격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 부처가 없었고, 대중들 사이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폭넓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년 6월 18일 제58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기총회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ESD한국위원회)의 설립을 확정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내 이행에 뚜렷한 이정표가 되는 일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SD한국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15인을 위촉하게 됨에 따라 한국도 간접적이거나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담당 기구를 갖추게 됐다. 이로써 정부의 관련 부처, 교육 연구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은 정책적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촉진자로서 국내외 지식 자원과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일종의 기관 간 협업 체제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ESD한국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 △정부 부처, 기관 및 학자 간 협력 제고, △연구·교육 훈련 및 인식 향상 사업 촉진, △민간 참여 및 국제교류 사업 증진,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for 2030) 프로그램의 국내 이행 촉진 등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아태교육원)

아태교육원은 1974년 열린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와 제44차 국제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Education, 1994)가 권고하고 제28차 유네스코총회(1995)가 채택한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선언 및 통합실천체제’에 따라 국제이해교육을 촉진하려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협력기구(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이다.

한국과 유네스코가 공동 설립하는 형식을 취한 아태교육원 한국지역센터의 개원식은 2000년 9월 20일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청년원에서 열렸으며, 이어 창립총회가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개원 기념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열렸다.

아태교육원의 실질적인 활동은 2000년 12월 6일 초대 원장으로 이삼열 숭실대 교수가 부임한 후 시작됐다. 2001년 5월 열린 제1차 자문위원회는 교육원의 과제를 7개 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24개의 사업 항목과 10년에 걸친 장기 발전 계획과 전망 등을 담아 교육원 과제와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아태교육원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면서 유네스코회관 내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과 활동이 확대·발전되는 가운데 201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를 통해 독자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앞서 아태교육원은 2010년 7월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서울 구로구의 독립청사로 이전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학습 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개인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뜻한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실천 전략의 하나로 꼽힌다.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관과 역량, 비전을 갖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2002년 유엔 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을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으로 지정했고, 유네스코를 그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DESD가 종료되는 2014년, 유네스코는 보다 실천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ESD를 위한 국제실천프로그램(GAP: Global Action Programme)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

스코학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 ESD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4. 제1회 한일교사포럼 개최 |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이해 증진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양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2001년 시작된 한일교사교류는 양국의 교육 현안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ESD 한일교사포럼은 한일 양국의 ESD의 현황을 이해하고 사례를 검토하면서, 양국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자 2009년에 열렸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뜻을 강조해 'ESD 한일교사포럼'으로 다시 명명되었다.

ESD 한일교사포럼은 한일교직원들이 함께 ESD 교수 경험과 활동 사례, 관련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 활용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정보 공유와 토론을 통해 양국 교직원들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ESD를 통한 교류를 증진하는 데에도 큰 몫을 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한일교사포럼

- 2009년 8월 제1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일교사포럼(서울)
- 2010년 1월 제2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일교사포럼(오사카)
- 2010년 8월 제3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일교사포럼(서울)
- 2011년 8월 제4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일교사포럼(서울)
- 2012년 8월 제5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일교사포럼(서울)

포럼 목적

- 한일 양국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해 및 주요 이슈 검토
- 한일 교사 간 교수 경험 공유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 현장 교사들의 ESD 이해를 통한 역량강화

한일교사포럼의 연혁과 성과

제1회 한일교사포럼

일시 및 장소: 2009년 8월 서울 로얄호텔

주제: 리더십, ESD 및 주요 교육 이슈

발표

- 한국교육의 두 가지 경로: 경쟁과 화합의 문제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 한국교육에서의 리더십: Leadership in Korean Education(대성고등학교 유지후)
-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이해와 대책: 학교 상담의 필요성(숙명여자고등학교 문현정)
- 왕따와 등교 거부의 미연 방지와 등교 거부자 지원(오사카부 마쓰바라시립 마쓰바라다이 나나중학교 히라이 요시히로)
- 유네스코학교에 있어서의 ESD 커리큘럼 검토 교재개발, 실천사례, 성과 및 과제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립 우쓰미소학교 마쓰오카 도시아키)
- 한국의 ASPnet 안에서의 ESD 실천사례 및 연구: 학교 현장에서의 ESD 실시를 위한 실천적 검토(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지영)



제2회 한일교사포럼

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오사카 국제 회의장

주제: 한일 교직원 교류 10년 평가 및 교직원 교류와 EIU & ESD

발표

- 일본에서의 ESD 추진 현황과 ASPnet (문부과학성 국제총괄관/일본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기소 이사오)



- 계센누마시의 환경교육을 기축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계센누마시립 나카이스 학교 교감 오이카와 유키히코)
- ESD로서의 EIU: EIU 에서 시작해서 ESD로 다가가는 나(우리모두)(숙명여자고등학교 문현정)
- ASPnet High School: ESD의 관점과 ICT를 활용한 국제이해교육과 미디어 창조력 육성 (사립 하교로모가쿠엔고등학교 오네다 겐조)
-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 10주년을 기념하여: 더 나은 10년을 향하여(숙명여자고등학교 문현정)

제3회 한일교사포럼

일시 및 장소: 2010 년 8 월, 서울로얄호텔

주제: ESD 학교 현장사례 - 학생 주도 ESD
실천사례, 식문화와 ESD

발표

- 최근 한국교육의 개혁 동향: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 학습자 주도적 ESD 실천 교육 방안 연구: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대성 고등학교 유지후)
- 지역 연계 ESD 프로그램: 오사카부립 나가노고등학교의 실천보고(오사카부립 나가노고등학교 오쿠다 아키라)
- 오가사와라 자연과의 공생: 푸른바다거북의 보호 활동과 식문화를 통하여(하하지 마소중학교 모리 타다로)
- 로컬푸드와 ESD(청솔초등학교 장소영)



제4회 한일교사포럼

일시 및 장소: 2011년 8월,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주제: 위험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발표

- 위험사회와 위험교육에 대한 한일교사 인식비교 (공주대학교 이재영)
- 위험교육과 ESD '위험을 넘어 희망으로' (양산초등학교 곽병남)
- 지진 전의 오야해안(제센누마시립 오야중학교 이토 고지)



제5회 한일교사포럼

일시 및 장소: 2012년 8월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주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발표

-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사례(문산여자고등학교 최경윤)
- 지역학습: 어제 그리고 오늘 프로젝트(하시모토시립고야구치소학교 쓰치다 요시히사)

제1회 한일교사포럼 보고서

세계화, 네트워킹, 그리고 ESD의 연계와 확립

포럼 발표자

리더십: 대성고등학교 유지후 교사

교육: 숙명여자고등학교 문현정 교사

오사카부 마쓰바라시립 마쓰바라다이나나중학교 히라이 요시히로 교사

ESD: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립우쓰미초등학교 마쓰오카 도시아키 교감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지영 교사

제1회 유네스코 한일교사포럼은 지난 10여 년간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양국 교류에 대해 상호 경험을 지속 공유하자는 의견을 수용해, 한일교사교류 카페를 만들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준비되었다. 학술적이거나 원론적인 접근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 현장의 목소리, ESD의 현장실천에서 어려운 점, 기대효과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편하게 나누는 자리를 나누고자 했다.

포럼의 1부에서는 리더십과 교육 이슈에 대한 발표 순서가 진행되고 리더십분과에서는 대성고등학교 유지후 교사가 ‘한국 교육에서의 리더십: Leadership in Korean Education’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유네스코를 통한 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번 주제인 리더십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한국 교육에서의 리더십에 대해 설명했다.

나아가 교육청, 국가 단위에서의 리더십 목표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교사로서 어디까지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다음 연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적 노력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교육분과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한국의 숙명여자고등학교 문현정 교사가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이해와 대책: 학교 상담의 필요성’을 주제로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서론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의 행동 양상과 학교부적응의 배경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단위 학교 프로그램의 실천 사례를 들면서 교사 입장에서의 학교부적응 학생 지도에 있어서 상담의 필요성과 교사의 상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언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일본의 교육분과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오사카부 마쓰바라시립 마쓰바라다이어나중학교의 히라이 요시히로 교사가 ‘왕따와 등교거부의 미연방지와 등교 거부자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2003년부터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학교’ 지정을 받으면

서 새로운 교과인 '인간관계학과(HRS)'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따·등교거부의 미연방지에는 인간관계를 조정해갈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성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관계학교 수업의 계획, 실시 과정을 소개, 교내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과를 밝히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1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2부 ESD분과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일본의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립 우쓰미초등학교의 마쓰오카 도시아키 교감이 '유네스코학교에 있어서의 ESD 커리큘럼 검토:교재개발, 실천사례,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우쓰미 초등학교의 에너지 환경교육의 실천에 대해 학년별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실천하는 사례와 학교가 정·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연계 방법과 그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밝히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이지영 교사가 '한국의 ASPnet 안에서의 ESD 실천사례 및 연구: 학교 현장에서의 ESD 실시를 위한 실천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서론에서는 한국의 학교교육 안에서의 ESD 현황과 ASPnet 안에서의 ESD 실천사례 및 방향에 대해 현장연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어서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ESD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단계별로 방법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2부 질의응답이 끝난 후 20분간 진행된 그룹별 토론 시간에는 한국 교사들도 함께하여 상호 양국의 교육 현황 및 동 포럼 발표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기소 이사오 단장과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박사, 청주교육대학교 이선경 교수, 발표자들이 함께 종합정리 시간을 갖고 발표자의 소감을 들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지후 교사: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 자체가 좋은 연수이며 관심과 열의를 가진 분들이 모인 것 이상의 더 좋은 공간과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열의가 일본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히라이 요시히로 교사: 왕따와 등교거부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현정 교사: 오늘 부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감정에 대한 학습이 안 된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사라고 생각한다.

마쓰오카 도시아키 교사: ESD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ESD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항상 우리 교사들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선경 교사: ESD를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 학생과 학교를 한 번 돌아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떤 것인가가 발견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ESD에 접근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또 선생님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한다. 좋은 강의나 사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간에 고민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소 이사오 단장은 포럼 발표가 훌륭해서 배울 점이 많았고 선생님들도 활발한 질문을 해주시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기소 아사오 단장은 1회 포럼의 키워드를 대략 3가지로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첫째, '세계화'이다. 이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되겠지만 학교도 세계화의 물결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킹'이다. 이 또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앞으로의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셋째, 'ESD'에 대한 관심이다. ESD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건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3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일본의 초, 중, 고교를 보면 환경교육, 국제이해교육, 문화재 보호 관련 교육, 식(食)교육 등 ESD가 이미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

제는 이러한 활동이 각각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각각의 활동을 큰 ESD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포럼에 참가한 교사들은 여러 의미에서의 ESD로의 큰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한국도 일본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지금 출발점에 서있다.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 관계자들의 의식이 변해갈 것이다.

기소 이사오 단장은 한일 양국 교사를 통해 ESD를 추진해가고 싶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너무나도 유익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1회 포럼은 리더십에 관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05. 2010년 한일교사대화 | 한일 교사 교류 10주년

“10년 동안 유네스코를 매개로 유네스코학교(ASPnet) 교사를 포함한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탄탄한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참가 교사 및 기관들로부터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사업 1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함께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양국 교사 간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ESD 한일교사대화(Korea-Japan Teachers’ Dialogue on ESD)’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명맥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한일교사 교류 10주년에 부쳐. 서현숙(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동학교팀)

2010년 한일교사대화는 10주년으로(방일 한정) 더욱 의미 깊은 해였다. 1월 12일에서 25일까지 전택수 단장이 이끄는 방일단 149명이 미야기현 계센누마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 와카야마현, 오사카 등지를 돌며 일본의 교육 현장을 체험했다. 또한 2001년 시작해 10년 동안 활발하게 한일 사이의 교류를 주도한 한일교사대화를 평가하고 그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해 2009년 시작된 한일교사포럼에 이어 제2회 한일교사포럼이 오사카

에서 열렸다. 8월 25일에서 9월 3일까지는 사카구치 히토미 단장과 함께 53명의 일본 교사 방한단이 안산, 시흥, 원주, 청주, 경주 등을 찾았다. 2010년 방한 프로그램은 2010 한국 지속가능발전교육 현장 탐구, 오사카에서 열린 제3회 ESD 한일교사포럼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초중등 교사(장) 및 장학사를 포함한 한국교직원 149명(총단장: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2010년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기소 이사오 문부과학성 국제통괄관(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사무총장)은 개회식에서 “지난해 방한단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양국의 우의를 위해서 교사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1월 13일 도쿄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만찬에 나가와가 마사하루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참석해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의 전택수 총단장은 “열린 마음과 관용의 자세로 일본의 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 많은 것을 배우고, 한일 양국의 굳건한 협력 관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전파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일교사대화 10주년
기념 한일교사포럼



한국 대표단은 일본 초중등 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강의 참가를 시작으로 일반 학교와 더불어 대안학교, 국제학교, 공예학교, 야간학교, 동경한국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방문했다. 도쿄 일정을 마친 대표단은 1월 17일부터 계센누마시, 도요나카시, 가나자와시, 와카야마



한일교사대화 10주년
기념 한일교사포럼

현, 오사카부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일본 가정 방문 등 지역별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학교와 교육위원회 방문을 통해 지역별 ESD 및 교육 현황의 특징을 탐구했다. 유네스코학교(ASPnet)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 방문에서 수업 참관, 일본 학생과의 문화 교류 및 양국 교직원이 상호 교육 현안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일교사대화 10주년 기념 한일교사포럼

한일교사교류 10년을 기념해 1월 23일 오사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한일 교사 교류 10년 평가를 위한 ‘한일교사포럼’이 개최되어 한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 프로그램에 참가 경험이 있는 양국 교사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발표 후 일본 주최기관 ACCU의 사토 구니오 전 이사장은 “ESD란 한 사람의 교사가 변함으로써 학생과 주변이 변할 수 있다”는 선생님들의 결론에 공감하고 같은 맥락에서 ESD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한일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양국 교직원 교류를 통한 ESD 확산에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희망했다.

한일교사포럼 및 프로그램 평가 설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 교사 교류 프로그램과 내용과 방법론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유네스코 교육 이념을 주제로 양국 교직원이 후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개인적인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양국 모두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2010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0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0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0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한일교사대화 10주년에 부쳐 1

불신의 벽을 허문 지난 10년, 평화와 공생을 위한 앞으로의 10년**- 2007년, 2010년도 방일 프로그램 참가자 김용무 교장(남성여자고등학교)**

한일교사교류 사업은 상대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탐방해 양국 교육제도와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상호 교육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다양하고 생생한 체험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귀중한 학습 자료로 전수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10년 동안 구축된 교사 네트워크로 양국 유네스코학교 간 교류가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네스코학교 간 연계도 강화되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2주 동안 대도시의 첨단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부터 벽지의 열악한 시골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처해있는 학교를 방문한다. 짧은 기간 동안 일본 교육과 문화 전반을 모두 이해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사들과 상호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은 매우 높이 평가된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한국과 인접해 있지만, 때때로 정서적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리면 상호 국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양국의 정치인과 언론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한일 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적·물적 교류와 상대국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절실함을 실감했다.

교사의 질적 성장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학생들을 세계시민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화다양성 존중은 국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이러한 요소들을 학교 안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이 프로그램에서 모색할 수 있었다.

교사 교류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학교 간 교류, 지역사회와 국가공동체가 함께하는 교류로 한층 확대됨으로써, 학생-학부모-학교-지역공동체가 연계해 연대

의식과 공동 가치관을 창출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에 요구되는 가치관, 행동, 라이프스타일을 배울 수 있는 글로벌 학습장을 구축하는 데 한일교사교류 사업이 일조해야 할 것이다.

사업이 10년째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미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과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교육의 발전 없이는 지속적인 국가 발전도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 양국 교육 공동체 모두가 교육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과거 10년의 교사 교류가 상대국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다면, 향후 10년은 한일 양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네스코 이념과 철학이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꽃을 피우게 되길 바란다.

한일교사대화 10주년에 부쳐 2

10주년 설문조사 결과로 본 ‘우리’의 변화

- 2007년, 2010년도 방일 프로그램 참가자 문현정 교사(숙명여자고등학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기분이다,’ ‘인생의 등불을 본 듯하다.’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 참가 교사들이 온라인 카페에 남긴 소감문 중 일부분이다. 개인적으로도 현재의 ‘나’라는 모습이 있기까지 2007년 방일 프로그램 참가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며,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큰 만족을 느낀다. 한일교사교류 사업 1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부터 방일 프로그램 10년 평가 설문조사 제안을 받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참가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해당 항목별 최고-최저까지 다섯 단계)했으며, 이들 가운데 15%의 참가자들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상위(최고, 고)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해본 결과, 프로그램 참가 후 61.1%가 유네스코 이념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81.5%는 일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높아졌으며, 87%(최고)의 응답자가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희망했다. 또한 61.1%가 이 프로그램이 다른 교사 교류 프로그램과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① 학교 방문을 비롯해

학생들과 만남을 가질 기회가 많고, ② 프로그램 구성과 형식이 다양하며, ③ 교급과 과목을 넘어 다양한 교사와 만날 수 있고, ④ 심도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 때문에, 또한 ⑤ 양 주최기관이 이 사업이 10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2%가 참가 후 유네스코학교(ASPnet), 국제이해교육(EIU),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에 높은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5.2%가 학교 간 교류, 교사와 학생의 상호방문, 수학여행, 민간 교류 등의 후속 활동을 낳는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만큼, 한일교사교류 사업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교사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정보 교류를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ESD, 교육, 문화, 리더십 등 4개 분과를 만들어 상호 소통의 장도 마련해 주었다. 필자도 분과 활동으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일교사포럼'에 참가하고, 교류사업 10주년 기념 '제2차 한일교사포럼(2010년 1월, 오사카)'에서 '나' 자신의 변화와 1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네트워킹으로 축적된 정보와 교사의 역량 강화는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 네트워크의 지속은 무엇보다 교사 개개인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고, '나' 한 사람의 변화로 학생과 학교,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교사로서의 나아갈 길을 찾았다. 한일 우호관계 증진이라는 큰 대의가 아니더라도, 양국 교사가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한다면 그것이 바로 ESD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짧지 않은 10년 동안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양국 주최 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나은 10년을 위해 교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한일교사교류 10주년 기념 평가/설문지

평가 설문 결과

- 프로그램의 지속성 희망
- 유사(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인정
- 1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 교류 및 활동 유지 필요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 10년 평가/설문지

• 201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일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GCI)와 협력하여 개최하고 있는 "한일 교사 교류 사업" (교류과목기초부, 일본 문화과목기초부) 10주년을 맞아, 10차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2010. 1. 12-25, 일본/해서 이 사원의 참가와 더불어 10주년 기념식을 거행 예정입니다.)

• 이에, 이 부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인 여타 생활실용의 의견과 평가를 참가보고서의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항 설문지 작성에 최선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종료의 소감 및 향후를 필요로 하실점 것들을 일본 내로써 입력해 주실되는 관에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명	성.명			
국.대.번호	소.속	교.과.시		
E-mail		연.락		
방.문.연.도	연.락.처	교.과.시		
방.문.일.목	직.위	연.락		

I. **참여를 통한 전반적 이해 및 만족도**

문.항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Q1. 유네스코의 이념과 활동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참가 전					
	참가 후					
Q2. 이 프로그램 참가를 위하여 일본 및 일본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관심도	참가 전					
	참가 후					

• ASNet :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유네스코평화학교네트워크
 • EIU :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국제이해교육
 • ESD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교육

II.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문.항		인식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Q1. 이 프로그램의 운영적 효과 (효율성)						
Q2. 이 프로그램의 '다른' 교사교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Q3. 이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						

Q4. 이 프로그램과 다른 교사교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1~2가지 적어 주십시오. (예: 학교방문이 없다, 학생과의 교류가 많다, 선생님, 학부모 프로그램 내용 등 다양한 해서)

III.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 참가 후 기대효과 및 사무활동

문.항	사무.번호	비율				
		1	2	3	4	5
Q1. 학교(기관)업무 중단/일일업무 감소에 따른						
Q2. 일본교육에서 학습용 단말과 수업(한문) 활용 및 자료준비 활용가능						
Q3. 물리적 활동 및 수업용 활동 자료(동영상) 제작가능성 인식						
Q4. 일본과의 교류(사적/공적) 활동						
Q5. 유네스코 관련 활동(연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Q6. 향후에 대한 기대 효과						
Q7. 일본교육 및 문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탐구 증가						
Q8. 위의 질문 Q4, Q5 의 경우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적어 주십시오.						

IV. 이 프로그램 참가로 인한 기대효과 중 높은 우선순위로 필요로 적어 주십시오.

1. 유네스코 이념/활동에 대한 이해도 향상 2. 일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심도 증가
 3. 교실안 내로써의 정보 및 활용가능가 4. 개인 역량 향상
 5. 기타 ()

() - () - () - () - ()

한일교사대화 참가자 인터뷰

만남과 대화, 소통과 공감의 추억 3

우리는 교육 외교를 하는
민관 외교관2007년 방일 한국 교사
조은경

Q.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A. 어려서부터 국제 교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생 때부터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이었고, 당시 일본어도 전혀 몰랐었는데, 당시에 친한 친구가 와세다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교사로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만 1990년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후에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교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른 역사교사들은 애국적인 마음이 상당히 강한데, 저한테 “너는 지일파니, 친일파니?”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부터 일본과 개인적인 인연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을 만나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다시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본인과 좋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990년부터 이어온 인연이었는데 만 16년 만에 유네스코에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전에도 문부성, 외무성, 재단 같은 곳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운이 좋게 선발돼 일본 문화를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역사교사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가 같이 손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외무성, 문부성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 달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해 ‘반일’보다는 ‘극일’, ‘친구’, ‘상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갔고, 그러는 동안 언어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지금은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것이 저의 강점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는 일본 선생님들과 공동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문용린 장관님이 직접 단장으로 가시면서 제일 큰 규모로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가고시마 1주일, 도쿄 1주일 있었습니다. 저는 가고시마 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고시마가 최남단이고 시골이라 싫어했는데, 저는 가고시마가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애향심도 기르고 우리 도를 위해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거국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동안 현지 기관에 자필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에 참가하게 된 평범한 교사다. 당신들의 도와 우리 도가 결연을 맺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게 됐다. 너무 기쁘다. 우리를 초청해줘서 고맙다.”고 썼습니다. 답장은 “환영한다. 만나자.”고 왔습니다. 2005년 아사히신문에 저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일 교류는 필요하다.’는 그 기사를 스크랩하고 전라북도에 대한 소개, 자필 편지를 같이 넣어서 몇 군데 보냈습니다. 그 후에 가고시마에 방문하니, 저를 많이 찾더군요. 가고시마 현청에 갔었는데 “조은경 사마가 누구냐”며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교육 외교를 하는 민간 외교관이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류의 친밀도를 쌓다보면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메노 마사노부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당시 가고시마 어느 대학의 사회교육과 교수였습니다. ‘사회과협의회’ 때문에 만났는데, 가고시마에서 환영회를 할 때 와서 “조 상, 또 만난다”고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는 계속 만난다고, ‘사회과협의회’에서 만났던 사람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일본의 시골이든, 한국이든 사람이 뜻이 있으면 다시 만나는 인연의 끈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Q.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이 선생님께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저의 꿈이 교사나 외교관이었는데,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현실이 힘들긴 하지만 교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부모님이나 친구보다 큼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 교사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지죠. 아이들이 다 저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 이야기, 지진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기도 하고, 위안부 이야기에 분노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사람은 다 똑같다.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고, 저녁 8시 되면 다 문 닫는다. 한국이 밤 문화도 더 발달했고 한국이 더 편하다. 일본도 똑같다. 오해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배우고 느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간의 존엄,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유네스코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다 나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직접 너희들 포대를 만나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선생님이 해보겠다. 그것이 세계시민교육이고 한일공동수업이다. 너희들은 SNS 등 기회가 많으니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어떻게 A, B 혹은 빨간색, 파란색을 말할 수 있겠니.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온 지구가 하나이고 영어 공부만 글로벌 공부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좋으니 선입견을 갖지 말고 얼굴 보고 마주하며 대화할 때 오해도 풀고 깊이도 깊어진다. 선생님은 어쩌다가 일본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난 지금도 답은 없고 다만 너무 가까워서, 역사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연대하고 공존하려면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그냥 느끼는 대로 전달합니다.

Q. 한일교사대화 일본 방문 시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가고시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예공 심수관 옹은 남원에서 끌려간 우리 도예공의 14대손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예술가인데 당시 가고시마에 계셨습니다. 제가 가고시마에 가서 좋았던 것은 그 심수관 옹과 직접 만남을 가진 것이죠. 그때 NHK가 취재 왔었는데, 취재진이 저한테 “여기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봐서 “여기 예술촌에 와서 너무 기쁘고 특히 심수관 옹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 나는 심수관 옹의 본거지인 전라도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 와서 너무 좋다.”라고 인터뷰한 것이 방송

에 나왔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Q. 오부치 유코 중의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오부치 유코 씨는 마지막 리셉션 디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도 젊었지만 그분도 젊었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너무 젊어서 교육청 과장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의원이더군요. 당시 일본 유네스코와 많은 연관이 있는 의원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디너파티에서 오부치 유코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가 리셉션 인사말로 한복 예쁘다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서, “한복 마음에 들면 한국에 돌아가 보내드리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귀국 후 남대문에서 한복을 사서 당시에 받았던 오부치 유코 씨의 명함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 후 오부치 씨가 답장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조은경 상 고마워요.” 그때부터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종이로 만든 인형이나 이것저것 많이 보내줬습니다.

당시에는 ‘LINE’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이메일 교환도 잘 안돼서 주로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서신 교환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아기 낳았다고 아기 사진도 보내주고 했었습니다.

2008년에 제가 교토에 있는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발표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부치 씨에게 “유코 상 나 일본 간다. 만날 수 있겠나.”고 물어보니 “만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 겨울에 가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참사관이던 선배님이 계셔서 오부치 유코에게 선배님과 같이 가도 되는지 허락 받고 선배님과 함께 30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선생님과 같이 일본에 대해 선입견이 없이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선생님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느끼신 것 중 이 부분은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 혹은 우리가 더 낫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A. 일본인은 굉장히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야박할 정도로 도리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인주의,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약속 잘 지키고, 시간관념 철저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깔끔한 부분에서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속을 안 드러내고, 너무 야박하리만큼 냉정할 때도 있고, 지금도 국민의 60%가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리버럴하고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나의 행복이 우선이고 사회의 움직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Q. 2020 방일 20주년 포럼 전문가 그룹에 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올해 1월 20주년을 맞이해,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해볼 수 있는 자리를 갖고 많은 나라들의 합지점을 찾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바야시’라는 교수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전문가 그룹의 좌장으로 방문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됐습니다. 동아시아가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20년 동안 교류하면서 나온 장단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질문지를 받아서 준비하려 했죠.

사실 이것이 요식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뽑아서 준비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여러 곳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3일 전에 무산됐습니다.

Q. 한일교사대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개선해야 할 점은?

A. 교사가 할 일은 학생 교육입니다. 교사가 한번 다녀와서 관광하고 그냥 다녀와서 본인만 좋았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자의 도리와 책임은 학교 교육에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녀왔으면 내가 느낀 것, 생각하는 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피드백을 하려면 일본 선생님들과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번 만나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개발, 혹은 리모델링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 중 하나는 주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학교 대 학교의 교류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나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서나, 어떤 ‘꼭지’를 갖고 서로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연속해서 대화해 나갈 때 조금이나마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Q.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책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축 국가인데, 서로 싸우는 데 가까운 시간을 쏟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를 통한 이 교사들의 교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일본이 미우면 타개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치료해줄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누가 얼마나 많이 읽을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 잘해보자’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념과는 다르죠. 이런 의미 깊은 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만난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해서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교사대화 참가자 인터뷰

만남과 대화, 소통과 공감의 추억 4

언어와 역사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연대로 이어지기를

2006, 2009년 방한 일본 교사
도시오 데지마

Q. 본 사업에 참여했던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A. 2006년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교육시스템 시찰과 우호, 친선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사업에서는 한일 교육 교류를 통한 우호와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ESD의 추진'이라는 대주제를 한일 양국에 연계로 실현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Q. 2019년 참가 후부터 한국의 수원외국어고등학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한일 양국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ESD 교육 실현에 강한 추진력이 생겼습니다. 방한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일본 교원 간의 신뢰를 도모하고, 연구 및 협력 체제가 충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일본 내에서 ESD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Q. 본 사업이 20년 간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지요?

A. 거의 모든 해의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에서 ESD 교육에 관한 상호 연구나 실천 교류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최종보고회에서 저는 일본 측 단장으로서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는데, 세계 각국의 목전에 다가온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 상황과 ESD 교육 추진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께서 자신이 본래 준비해온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ESD 교육의 추진에 있어 한국도 거국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며,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분 말처럼 한국이 그동안 유네스코 ESD 교육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 또한 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 수가 1,000개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ESD 교육의 실천 성과를 꾸준히 낸 결과, 2017년에 공시된 일본 학습지도 요령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창조자 육성’이라는 기본 이념이 도입되었으며, 전국 학교 교육에서 ESD 기반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2006년과 2009년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참가는 저에게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된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Q. 한일교사대화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A. 한일교사대화 사업을 통하여 서로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점들을 공유하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어나 역사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중요한 연대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 참여 중에 겪었던 어려움(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분들이 극진하게 환영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육 이외에도 한국의 역사나 문화, 사람들의 삶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Q. 20년 동안 지속된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가장 큰 성과와 의의는 무엇일까요?

A. 한일 양국의 선생님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서로의 국가에 관해 신뢰와 존경을 기반으로 한 지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안의 한 국가로서 무척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본 사업의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에 꼭 담겼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A. 한일 양국의 미래는 아이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ESD를 교육 과제로 하여 서로 배우고, 신뢰와 존경을 가지도록 노력한 양국의 교원에게 달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한일 교원들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05~2010년 한일교사대화 참가 현황

연도	구분	기간	단장	인원	방문지
2005	방일	1.19~2.1	도재원	99명	홋카이도, 후쿠시마, 효고, 돗토리, 오사카
	방한	9.5~13	미카미 가즈요키 다나카 가즈야키	24명	수원, 안동, 경주
2006	방일	1.11~24	이돈희	99명	홋카이도, 구마모토, 시가, 돗토리, 오사카
	방한	6.11~18	구사하라 가츠히데	25명	전주, 부여, 광주
2007	방일	1.24~2.5	문용린	159명	홋카이도, 효고, 사이타마, 나라, 가고시마, 오사카
	방한	6.10~17	나카소네 히로후미 사가라 노리아키	29명	대전, 청주, 경주
2008	방일	1.22~2.4	이삼열	158명	군마, 게센누마, 다카라즈카, 사이타마, 아키타, 오사카
	방한	8.19~28	고자와 기미코	52명	인천, 수원, 창녕, 경주
2009	방일	2.3~16	이경숙	148명	니시고촌(후쿠시마현), 사이타마, 나라, 고치, 구마모토, 오사카
	방한	8.26~9.4	기소 이사오	53명	인천, 수원, 통영, 안동, 경주
2010	방일	1.12~25	전택수	149명	게센누마, 도요나카, 가나자와, 와카야마, 오사카
	방한	8.25~9.3	사카구치 히토미	53명	안산, 시흥, 원주, 청주, 경주

3부.

꽃을 피우다

교류의
개화기(開花期).
미래의
열매를 함께
모색하다

한일교사대화

2011년

- 유엔대학(UNU) 신탁기금
- UNU 국제교육교류사업
-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 3~5월 동일본 대지진 교육 재건 협력(ASPnet)
- 8월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제4회 ESD 한일교사포럼 개최(유네스코 홀)

2012년

- 1월 한국 교사단 방일 - 미야기현 게센 누마 지역 방문

2015년

- 8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교육 교류대회 및 한일 교육장관회의(부산)

2016년

- 1월 제1회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서울)

2018년

- 3월 제2회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동경)

2019년

- 2월 ACCU 초청 제1차 국제교류 전문가 회의(동경)

2020년

- 1월 제3회 한중일 교육장관 회의(베이징)
- 한일교사교류 20주년
- 2020 유네스코 한일 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1.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말하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1995년 6,000여 명이 희생된 한신대지진의 180배에 이르는 위력을 가진,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며, 일본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강진 이후 높이 40m에 육박하는 초대형 쓰나미가 센다이시 등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가 잇따랐다. 게다가 지상으로 밀려든 쓰나미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의 원전 가동이 중지되어 방사능 누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2011년 12월 기준 실종자가 2만여 명, 피난 주민이 33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겪은 최악의 국가 위기였다.

일본을 돕기 위해 각국의 구호 손길이 이어졌다. 130여 개 국가 및 지역, 40개 가까운 국제기구와 수많은 비정부단체가 구호 성금과 실물 지원을 통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끈끈한 연대 의식을 보여주었다. 한국 역시 가장 먼저 긴급구조대를 파견하고 구호물자와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 등 주요 도시 각처에는 ‘일본 힘 내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수많은 유치원 및 초중고생들이 진심 어린 위문편지를 보내는 등 가족, 혹은 친구처럼 큰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10년간 교류를 이어온 한일교사대화 역시 일본 재난 피해 지역의 교육 재건을 위한 ‘희망사업’을 전개했다. 이 희망사업은 단순히 교육 재건을 위한 모금뿐 아니라 일본의 교육 재건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영상, 그림 등도 함께 접수하여, ‘일본 동부지방 대지진 유네스코학교 교육 재건 성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측에 전달했다.

01. 2011년 한일교사대화 | 유엔대학의 참여로 다채로워진 프로그램

2011년부터 한일교사대화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은 ACCU와 더불어 UNU(유엔대학)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2018년까지 이어졌다. 1월 11일에서 24일까지 권대봉 단장이 이끄는 149명의 한국 교사 방일단은 야치요, 요사노, 사이타마, 지바, 나라, 오사카 등에서 교육 현장을 체험했다.

2011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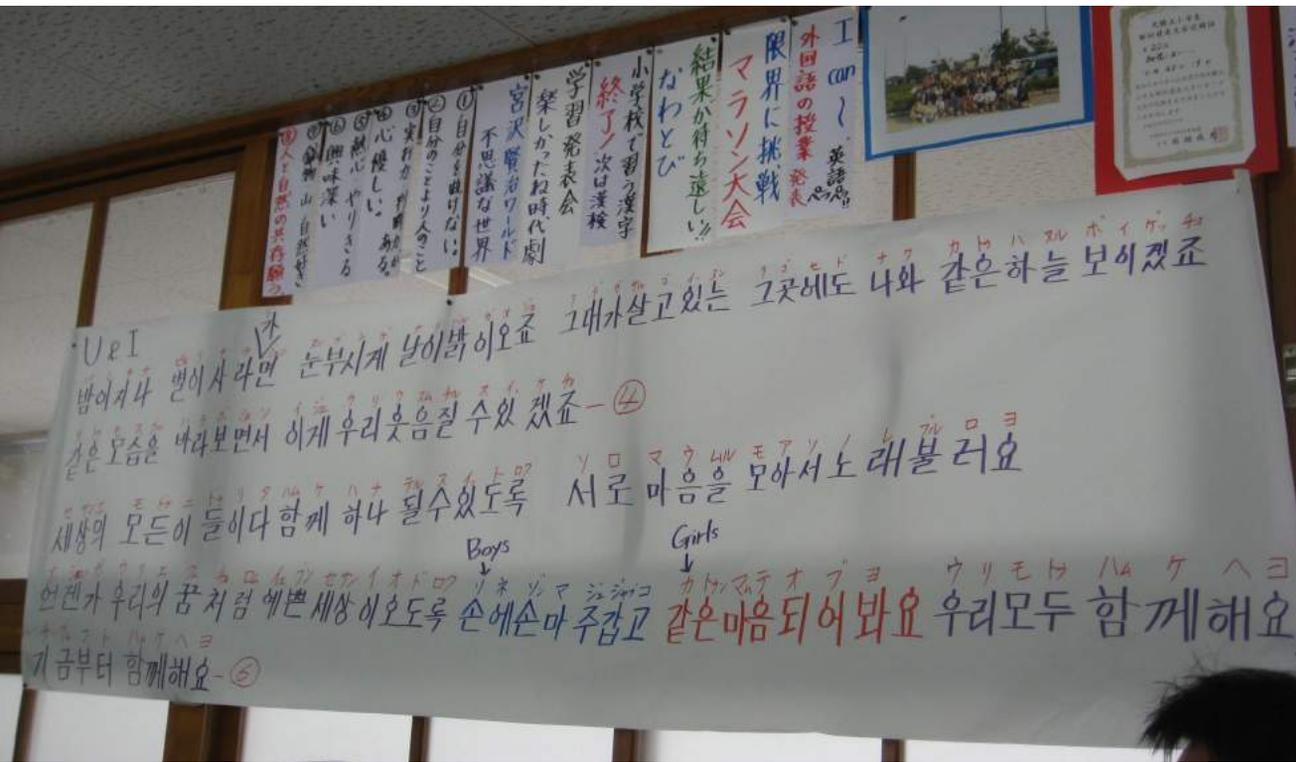
2011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1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1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1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1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1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1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방문 학교는 공립·사립, 우수·보통학교 등의 분류가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게 선정했고,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골고루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은 8월 26일에서 9월 4일까지 열렸다. 가토 히사오 단장이 이끄는 53명의 방한단은 경남의 창원과 김해, 전남 순천의 교육 현장과 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8월 26일에는 제4회 ESD 한일교사포럼이 개최되어 ‘위험 교육과 ESD’라는 주제로 한일 교사들이 모여, 자연 재해나 사회적 테러 등 늘어나고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응할 교육 방안을 토론했다.

한일교사포럼 보고서

‘위험 교육과 ESD’ - 위험의 시대, 교육을 말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원으로 유네스코아시아 문화센터(ACCU), 유엔대학(UNU)과 협력하여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2011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일본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및 교육 관계자 53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서울, 경남과 전남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가토 히사오 방문 단장의 소감과, 8월 26일 ‘위험 교육과 ESD’를 주제로 열린 한일교사포럼에서 발표한 교사들의 글을 소개한다.

발표 01

대지진 후 일본 교육 재건을 위한 한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

- 2011년 일본 교사 방한 프로그램 단장 가토 히사오(加藤久雄, 나라교육대학 부학장)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학생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의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비일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현장과 유네스코 활동을 접하고 교류를 심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교육 실천에 커다란 시사점을 얻었다.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중학생부터, 입시와 그에 따른 사교육, 영어교육, 유네스코학교 활동, 최첨단 이러

닝(e-learning) 시스템, 영재교육, 교육예산, 학교운영, 학교 시설,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교육 문제를 접하며 고민했던 것들은 교육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귀국 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교육을 지탱해 가는 힘으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방문한 학교와 기관·단체에서 단장으로서 인사말을 하는 기회가 많았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유네스코 등을 통해 한국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지원을 받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다. 감사의 표현과 함께 일본의 교육 재건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곳에서나 이 대목에서, 어김없이 크고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됐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박수를 쳐 준 적이 있었고 환영 오찬 장소에서도 같은 일이 있기도 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박수였다. 한국을 방문한 53명의 참가자 중에는 지진으로 가족이나 집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었다.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연수 참가를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주저하고 있던 자신에게 아이들은 “선생님, 한국에 다녀오세요”라고 힘을 북돋아주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 평화, 향토애, 세계유산, 인권, 국제 이해와 ESD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A국 사람이 A국민으로서 배우고, B국 사람이 B국민으로서 배우며, 나아가서는 A국민과 B국민도 ‘사람으로서 배운다’는 것이야말로 ESD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게 된 9박 10일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문 학교, 기관·단체 관계자, 방문단을 가정으로 기꺼이 초대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미소로 환영해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발표 02**위험과 위기를 넘어 협력과 희망으로****- 광병남 양산초등학교 교사**

연일 보도되는 외신들과 국내 뉴스에는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거대한 자연재해와 재난들로 가득 차 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더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욕망에 숙연해질 뿐이다. 그렇다 해서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 사고, 테러 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매일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과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래와 인간 상호 간 신뢰 구축은 위험 사회를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 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아무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사는 곳이나 사회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이 상호 간에 도덕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구성원 각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해야 사회의 지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 교육은 지식과 행동 수칙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모든 행동과 사고에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지향적인 철학 및 도덕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언론단체, 이익단체들은 왜곡되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각종 위험에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 위험이 과소평가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최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실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자들의 왜곡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역사 교육은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바탕이 된다. 위험 교육은 위험 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할 행복하고 성숙한 시민이 되는 데 목적을 뒤야 하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의식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빈곤, 기아, 기후 변화, 정치적 종교적 분쟁 등 수많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과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이 시대에 가장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를 향해 신뢰와 희망을 이야기할 때이다.

발표 03

위험과 안전은 하나다

- 이토 고지 미야기현 게센누마시립 오야중학교 교사

나는 일본의 동북지방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의 리아스식 산리쿠해안(미야기현, 이와테현, 오모테현의 해안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쓰나미의 무서움은 어릴 때부터 줄곧 들어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규모로 찾아온 이번 지진의 피해는 실로 막대했다.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경계 의식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힘 앞에서 손 쓸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나와 가족은 무사했고, 떠 내려간 집 잔해 속에서 조부모의 위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슬픔과 기적이 혼재했다.

지진 발생 이후, 나는 교사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왔는지, 내가 취한 행동에 잘못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자문자답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이 보여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했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교사로 남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ESD 한일교사포럼 참가를 통해 '위험'(개인의 생명이나 집단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커다란 수확이었다. 학교 현장은 사건, 사고 등 예상 외의 위험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교사는 위험(교육)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한다. 위험과 안전의 안팎이 하나다. 무기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무기 자체는 위험한 것이다.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을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을 동반한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리, 감시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자칫 위험을 재촉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저 안이하게 상황을 낙관하는 것도 위험을 재촉할 수 있다. 자연 재해 방지를 위해 자연 환경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딜레마도 있을 것이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은 어떠한 체험도 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 아는 힘과 대처하는 힘 등 위험을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과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는 힘과 대응하는 힘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관계없는 고립된 사람들이 집단화되는 것'이다. '이어질

수 있게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 집단'을 만드는 데 ESD는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게센누마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역에 뿌리내린 게센누마의 ESD를 앞으로의 재건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세를 견지하고 싶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난 것에도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포럼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만남과 이어짐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02. 2012년 한일교사대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협력 방안 탐색

2012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은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사이타마, 게센누마 등의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박은경 단장을 비롯한 한국교직원 148명은 먼저 도쿄를 방문해 일본의 초·중등 교육 현황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다섯 개 그룹으로 나뉘어 사이타마, 요사노, 게센누마, 오카야마, 후쿠오카로 향했다.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현지 교사와 학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8월 29일에서 9월 7일까지 이와모토 와타루 단장을 중심으로 한 53명의 일본교직원이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방한해 서울과 경기, 충남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8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ESD 한일교사포럼에서, ‘학교-지역 사회 협력을 통한 ESD’를 주제로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 사례, 한일 간 ESD 이해 활동 등을 공유했다.

2011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1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1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2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2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2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2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03. 2013년 한일교사대화 | 일상에서의 ESD 교육에 대한 고찰

2013년 한일교사대화는 우선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김태완 단장 외 144명의 교사들이 야치요, 하시모토, 고마쓰, 지바, 후쿠오카, 오사카 등을 방문해 일본 각지의 생생한 교육 현장을 체험했다. 이 방일 프로그램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더욱 늘리고 가정 방문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ESD 교육을 강조했으며, 방문 지역 및 학교에 따른 특색이 도드라졌다.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은 8월 22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아베 히로부미 단장이 이끄는 50명의 방한단은 충북과 강원 등지에서 ICT 활용, 선진 영어 교육, 자주성 존중 교육과 같은 한국 교육의 특징을 체험하고 DMZ 견학을 통해 평화 교육을 경험했다.

2013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3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3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3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3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3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3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3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04. 2014년 한일교사대화 |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 문제 논의

2014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은 1월 19일에서 27일까지 나라, 이나기시, 하시모토, 고마쓰, 오사카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안양옥 단장 외 118명의 방일단은 일본 각지의 교육 현장을 찾아가 ESD 교육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방재 교육, 식육(食育) 운동, 지역 사회와 연계한 농촌 체험, 유네스코 이념 교육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가득 찬 일정을 보냈다.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는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2014년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J)'이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해 프로그램은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와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한일 양국의 교사들이 교육 현안을 주제로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교직원들은 DMZ 등의 방문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 교육 현황을 체험했으며 한일 간 역사 문제의 시각 차이도 양국 교육의 틀에서 자연스럽게 토의할 수 있었다.

2014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4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4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4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4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4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4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4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 함께한 20년, 함께할 100년

새로운 세기와 함께 시작된 한일교사대화가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의 관계는 숭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2001년 첫 한일교사대화로 관계를 맺은 한국과 일본의 교육 교류는 흔들림 없이 인연을 이어왔다.

미래를 주도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교사들의 경험과 태도는 곧 공동체가 꿈꾸는 건 강한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과 직결된다. 앞으로의 교육의 역할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학생들의 사고방식은 물론 교육과 관련된 환경과 기술은 그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하여 그 결과를 교육 과정에 능동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특히 직업에 대한 전망과 종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바야흐로 아이들의 꿈은 ‘과학자’ 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BJ’나 ‘유튜버’로 확장되는 시대다.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를 맞아, 학습 능력과 흥미, 문화자본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학생 간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함께 고민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한일 양국의 교사들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 교사들 사이에 끈끈하게 형성된 연대의식과 소통의 경험은 미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중한 토양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100년을 더욱 밝게 할 것이다.

01. 2015년 한일교사대화 | 한국의 ICT수업, 일본의 방재교육 상호 체감

2015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은 1월 18일에서 26일 사이 민동석 단장이 이끄는 98명의 교사단이 야치요, 지바, 와카야마, 오사카 등을 방문하면서 진행됐다. 특히 일본의 ESD 교육을 이해하는 데 핵심을 두었는데, 열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는 일본의 ‘방재 교육’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2015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5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5년 한국교직원
일본 초빙 프로그램



2015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5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5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2015년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



일본교직원 한국 초빙 프로그램은 8월 25일에서 31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본 교사단은 한국의 자유학기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동아리 활동, 맞춤형 수업 등 유네스코학교 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기와 전남 지역에서 현지 교사와 학생들을 만나 교감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 정보연구원 방문을 통해 한국의 ICT 수업 현황과 중요성을 체감했다.

02.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교육교류대회 | 교사와 학생의 교류 확대 선언

2015년 8월 30일, 교육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일본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교육교류대회를 개최했다. 한일 교육교류대회는 양국의 학생 및 교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그동안 다양하게 추진되어온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미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양국의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본 유엔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부산 그랜드호텔 스카이홀에서 열린 한일 교육교류대회에서 당시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김상준 대외협력처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청소년 교류는 상대방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생각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역량을 길러 퇴행하지 않는 한일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는 교류의 성과를 소개했고, 동서대학교 정다연 학생, 관동국제고등학교 타가시라 교사 등 양국 학생과 교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한일 교육장관회의

한일 교육교류대회와 함께 한일 교육장관회의도 개최되었다.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15년 만에 개최되는 본 회의에서는 ‘한일 교육 교류 협력 강화’,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먼저 양국 교육장관은 한일 교육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교류 공동 표창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표창 제도는 그동안 교육교류에 기여한 양국 유공자를

2015년 한일
교육장관회의



2015년 한일
교육장관회의

발굴하여 한일 교육장관 공동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다.

양국 교육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일 교육장관 교육교류 공동 표창 제도 신설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과 같은 대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대학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동아시아 대학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03. 2016년 한일교사대화 | 지역 간, 국가 간 교육 교류의 확대

2016년 한일교사대화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은 2월 16일에서 22일까지 고마에, 사이타마, 나가노, 나리타 등지에서 진행됐다. 박홍순 단장 외 111명의 한국 교사단은 일본 각 지역을 방문해 현지 교사는 물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소통했다. 특히 사이타마시에서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현장에 있는 교사가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강좌, 지역 주민에게 과학·영어 등의 수업을 개최하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둔 특색 있는 연수 제도를 제공했다.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경북 및 인천 등에서 이어졌다. 가나자와 유지 단장 외 48명의 일본 교사단은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과 다채

롭게 교감하고 지역 문화재와 유적지 방문으로 한국 역사 및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2016년 한일교사 교육교류회가 개최되어 '왕따, 등교 거부 문제', '영어, 외국어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진로 교육'이라는 총 5가지의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처음 열린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2016년 1월 30일, 대한민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중국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3국 대표로는 한국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일본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대신, 중국 위안 구이런 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사상 최초로 개최된 3국 교육장관 회의로서, 한국은 회의 개최 제안에서부터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3국 간 협의를 주도했다. 지난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도 교육 분야 장관급 회의 신설을 합의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3국의 교육장관이 함께 교육 교류를 통한 3국 이해 증진과 3국 교육장관 회의의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 개최 이후 일본, 중국 순으로 개최지를 매년 변경하며, 3국 교육장관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요 의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교류 강화,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3국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어린 학생들에게 교류를 통해 각국 이해 증진을 돕는 3국 초·중등학교의 자매결연 사업 활성화를 의논했다. 또한 3국 대학생들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국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그 일환으로 2016년 7월 한국 측은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주제로 대학생 워크숍을 개최, 일본과 중국 대학생 20명씩을 초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자 2011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¹⁾의 사업단 수를 확대하고 3국 대학총장 포럼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장관은 합의결과를 담은 '3국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1)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3국 학생들이 3국 대학의 캠퍼스를 오가며 공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 및 공동·복수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4년간 1,9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한중일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상대국의 대학에서 학점 또는 복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 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 간 우정을 쌓아가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6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6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6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6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6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6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04. 2017년 한일교사대화 | 더 넓고 깊어지는 현지 교육문화의 체험

2017년 한일교사대화의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은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김재춘 단장과 118명의 교사단이 고마에, 야치요 지바, 나리타 등을 방문하며 현지의 교육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일 교류 활성화 및 관련 사례들이 소개됐는데, 일본의 고마에시립 고마에제6초등학교와 한국의 어방초등학교 학생들 간 이메일 교환 및 온라인 정보 교류, 사쿠지특수학교와 안현초등학교의 신문 제작을 통한 신문 및 편지 교환 등이 좋은 사례로 꼽혔다.

한편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은 7월 11일에서 17일까지 충북과 대구 등지에서 이어졌다. 오타 가오리 단장을 중심으로 한 49명의 방문단은 한국의 전 교실로 보급된 ICT 기술 및 선진화된 학교 운영 체제를 경험했고 금속활자전수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을 방문해 지역의 특색과 어우러진 세계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7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7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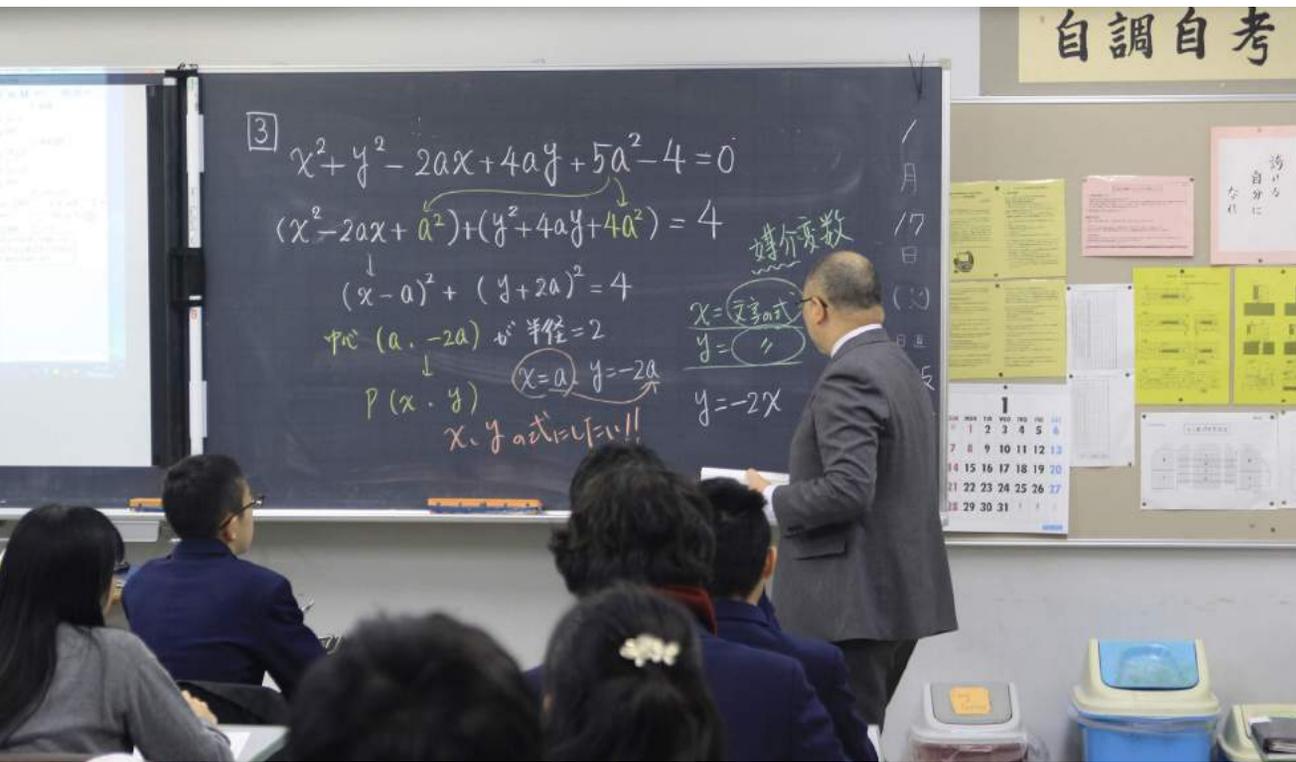


05. 2018년 한일교사대화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심화 학습

2018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은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김광호 단장 외 97명의 한국 교사단이 오사카, 기후, 아이치 등의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중 개최된 ESD 워크숍에서는 오사카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소속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주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편 7월 10일에서 16일에 걸쳐 진행된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는 이이 나오히로 단장 외 50명의 일본 교사단이 경기, 강원, 인천 등의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특수학교인 행복학교를 방문하여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2018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8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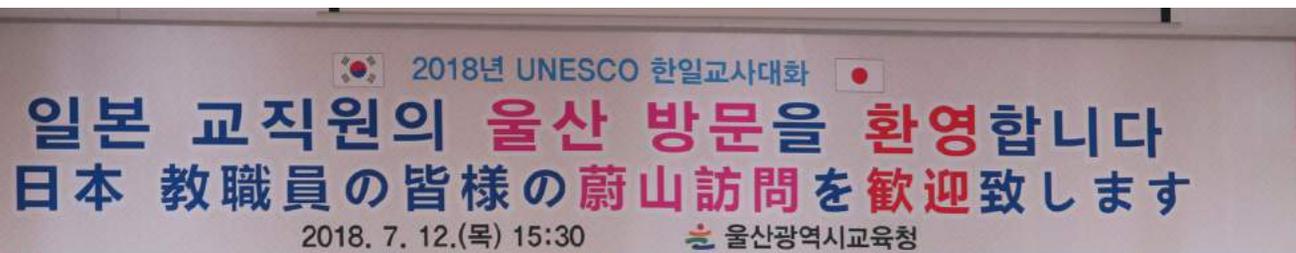
2018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8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8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8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8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06. 2019년 한일교사대화 | 보다 밀착되는 한일교사들의 만남과 소통

2019년 한일교사대화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은 1월 22일에서 28일까지 반상진 단장이 이끄는 97명의 교사단이 나라, 오사카, 효고 등의 지역을 방문해 문화와 교육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채워졌다. 나라시 교육위원회 오리엔테이션에서 지역 사회에 특화된 교육 정책과 교육 운영 방법에 대해 학습했고, 일본교직원 1명당 1~3명의 한국교직원이 배정된 가정 방문으로 더욱 긴밀한 문화 교류가 진행됐다. 또 교사 교육교류회를 열어 일본과 한국의 교육 현황을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는 아츠코 기타오카 단장의 50명의 일본 교사단이 서울, 인천, 강원, 수원 등을 방문했다. 단순한 교육 기관 및 학교 방문 형식에서 탈피해, 일정 중 한일 교사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시도에 일본 교사들이 만족을 표했다. 또한 한일교사교육포럼을 개최해 한일 양국의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한 교육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9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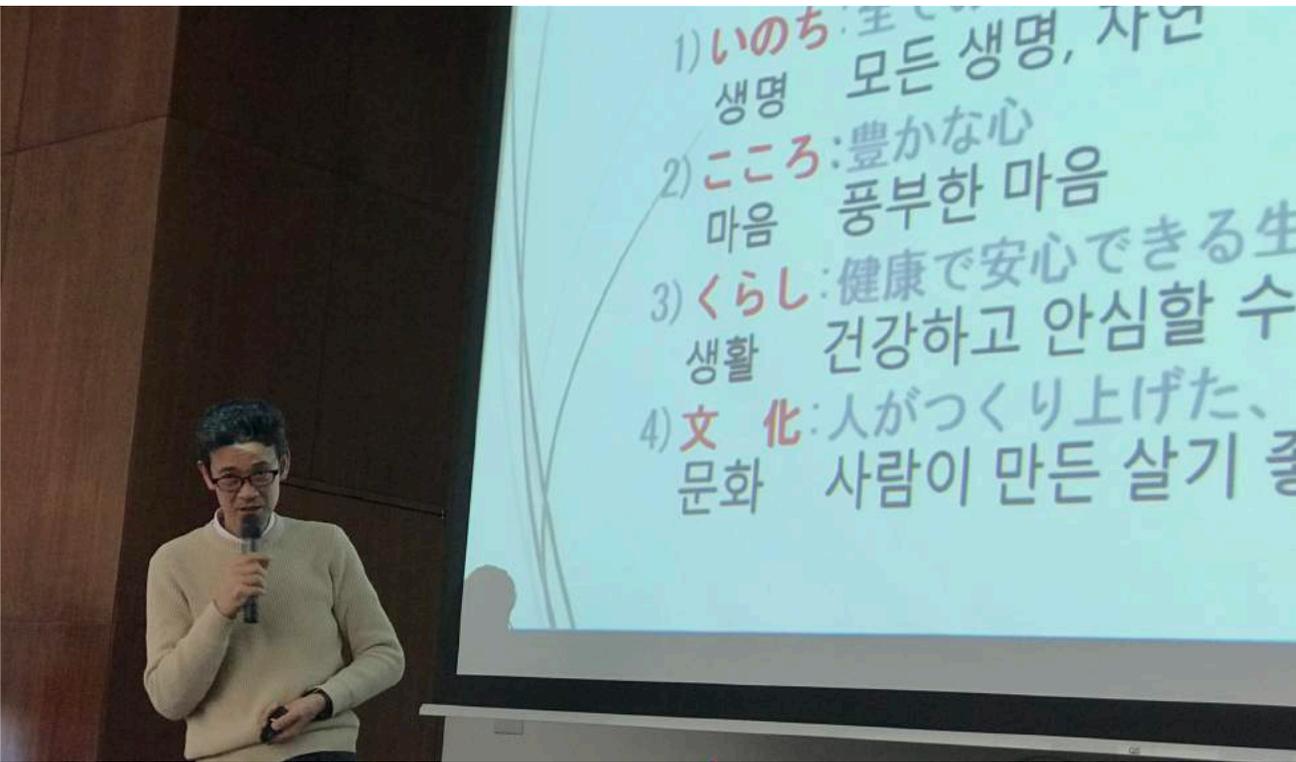
2019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9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9년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2019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9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9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 B그룹
2019 日本教職員韓国訪問プログラム Bグループ
2019. 7. 9(火). - 15(月).

2019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2019년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07. 2020년 한일교사대화 |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Untact) 교류

“서른 여섯 분의 한일 선생님 여러분, 신도 유미 부장을 비롯한 ACCU 관계자 여러분, 화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일본교직원분들을 만나 뵈는 적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화상으로 일본 선생님들을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1년 시작한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한차례도 빼놓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양국 교원들의 상호방문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2020년 올해도 이번 온라인 교류를 통해서 양국 교원 간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프로그램 김광호 사무총장 개회사 중

한일교사대화 20주년이기도 한 2020년의 한일교사대화 관련 여러 사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 수정되거나 취소되었다.

우선 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0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이 오리엔테이션까지 마친 후 전격 취소되었고, 그 대체 사업으로 2020 한일교사대화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이 비대면 형식으로 치러졌다.

10월 11일에서 17일까지, 6박 7일 동안 이어진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한국 교육 현안 및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이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교육자의 역할을 숙고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기존 한일교사대화에서 이어온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 토의와 포럼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개회식과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강원대학교 신철균 교수의 ‘한국 교육의 변화와 주요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한국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교육이 한국 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 교육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했기에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어 ‘한국 교육현안 및 유네스코학교 이해’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교육자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기에 강연은 참여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강연이 끝난 후,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시민교육(GCED) 관련 주제로 한일 교직원 간 활발한 조별 토의 및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20주년을 맞이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 김이경 교수)과 함께 진행했다. 이 연구는 20년 동안 지속된 한일교사대화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 교사와 학교가 얻은 효과성 및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전환

2020년은 한일교사교류 2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에 양국의 관계자와 행사에 각별한 인연과 추억을 지닌 이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20년간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지만 한일교사교류의 역사를 결산하고 이어질 미래를 함께 전망하고 맞이하려는 양국 관계자의 올해 포부와 계획은 남달랐다. 지난 20년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보다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양국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2020년 교류 행사에 세심한 준비를 기울였던 터였기 때문이다.

매년 양국의 행사 관계자와 교사들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했고, 각지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다.

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계획식 모습
(출처: 유튜브)

각 강연 후, 화상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의 활발한 질의가 이어졌다. (출처: 유튜브)



이에 온라인으로나마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고,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이번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의 후원 하에 일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20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유튜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회식과 포럼, 강연과 참여자 토론 등이 실시간 송출되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19로 인해 한일교사대화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면면한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여러 재해와 정치적 곡절에도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한일 교사 교류였다. 국가 간의 긴장과 대립, 갈등 속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오가는 교류는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었다. 그 덕에 인류는 늘 견고한 정치적 장벽을 부수고 평화와 공존을 모색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참가한 한일 교사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들 (출처: 유튜브)





강원대학교 신철균 교수,
'한국 교육의 변화와
주요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출처: 유튜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인류에게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격리와 단절이 일상화된 답답한 시국은 또 다른 긴장과 불안을 낳는다.

하지만 한일교사대화는 20년의 시간을 머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여러 난관과 우려를 딛고 공생과 공존을 위한 교류를 강하게 추진해 성과를 이끈 바 있다. 스무 살이 된 한일교사대화는 이제 더 성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맑은 바 소임인, 한일 양국의 차세대들에게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공존공영의 가능성을 확실히 열어 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한일교사대화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일교사대화 참가자 인터뷰

만남과 대화, 소통과 공감의 추억 5

게센누마 방문이 일깨워준
교사의 사명2010, 2012년 방일 한국 교사
김다영

Q.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2008년 유네스코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 유네스코 관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입구에 ‘유네스코학교’라 쓰여 있어, 교장선생님께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한일교사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원래는 한 번만 갈 수 있는데, 2012년에 게센누마를 다녀오게 되어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Q.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 지역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A. 사실 집에서는 안 좋아하셨습니다. 당시 싱글이었고, “굳이 왜 지진 난 곳을 가냐”고 하셨어요. 2010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일본 학교의 문화나 특징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 관심이 많았고, TV에서 쓰나미가 밀어닥친 영상을 본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재해 이후 일본 학교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겼죠.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고, 직접 가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사실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2010년에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더군요. 2012년 계센누마에 갔을 때는 재해 이후 지역이 처한 환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가신 대부분의 선생님이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계센누마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갔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군요.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상황만 보고 왔습니다.

Q. 2010년과 2012년의 방문은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A. 2010년에는 우선 외국의 학교 풍경, 교사가 해외를 간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 일본 학교 방문, 일본 학생들의 모습, 일본 교사들의 모습과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신선했고, 거기에 자유 시간도 있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계센누마에 갔을 때 저는 전쟁을 겪은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전쟁터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대로 된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건물이 그냥 무너져 있어요. 양조장이었던 3층 건물은 2층으로 변해 있었고, 어떤 지역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 돌들만 있었습니다. ‘아, 이곳이 마을이었구나.’ 그때부터 ‘멘붕’이 와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곳은 무너진 상가 같은 곳이었는데 안쪽 벽에 ‘SAVE ME’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적었던 것인지, 다 지난 후에 아이들이 스프레이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것이, 과거 영주가 살던 ‘연운관’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곳은 지대가 높아 쓰나미가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운관 아래, 풍경이 좋은 곳에 지은 집들은 재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주가 살았던 집 바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끼리 “왜 옛날 사람들이 그곳에 집을 지었을까?”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조들의 고문헌에는 연운관 아래에는 원래 “집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나와 있고, 그 지역을 “쓰나미가 100년에 한 번은 심각하게 오는 지역”이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록이 있고 언젠가 지진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잇고 살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경이 좋아서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 집터를 짓고 산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요. '옛날 사람들의 문헌이나 기록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 이것이 자연재해일까, 인재일까? 인간의 이기심이 바탕에 깔린 것이 아닐까?'하는 식의 수많은 의문이 들었고 이후 관련 주제에 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은 의문을 품고, 비슷한 지역이 있을까 공부하다 보니, 부산의 해운대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오면 해운대가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해 바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고 난 직후에 영화 <해운대>가 나오면서 계센누마가 더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Q. 계센누마 방문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A. 우선 지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방문한 학교에서 합창으로 환영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때 불러줬던 노래가 '유즈'가 부른 '영광의 가교'였습니다. 저희는 다 울었습니다. 계센누마에 다녀온 상황이기도 했고, '한일교사교류'라는 의미에서 '영광의 가교'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줬던 것 같은데, 그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다고 준비해서 노래를 불러줬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뭉클했습니다. '영광의 가교'가 무슨 노래인지 찾아보고 나서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Q. 재해 지역을 방문하신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텐데요.

A. 저희가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재해가 났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쓰나미가 온다고 했을 때 안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러 온다고 하고, 또 데리고 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보호하겠다는 말을 믿고 직접 학교로 오지 않았던 가정의 학생들은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열흘간 고립되면서 안에 있던 급식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든 식량을 공수해야 했을 때, 선생님 한 분이 학교 운동장에 'H'자를 써서 헬리콥터 내릴 수 있다는 표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교사로서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안

전하게 잘 보호하며 아이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에 대해서요.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Q. 실제 계센누마에서 있었던 사례인지요?

A. 네. 실제로 계센누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들을 듣고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이들 불안을 잠재우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잘 있다. 부모님은 우선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센누마에서의 일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식량과 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존 환경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를 잘 나눠서 실행해야 하고, 만약 외부와 단절될 경우를 대비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갖추어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화선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나눴던 것이 기억 납니다.

Q. 2010년과 2012년은 프로그램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A. 네. 왜냐하면 2012년은 원전 사고가 난 곳을 거쳐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달랐습니다. 계센누마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소화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직접 가서 본 자체로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재해 발생 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Q. 2010년은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의 한가운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대개 대화로 이어지는데, 2010년은 상대적으로 2012년보다 선생님들끼리 대화를 더 많이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A. 2010년은 학교 방문하고, 그 학교의 수업도 들어보고, 저희가 수업도 해보고, 그곳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시간도 있었고, 도쿄의 좋은 사립학교와 일반 학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사 교류’였고, 특별한 것은 직접 학교를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육 환경이 물리적으로는 좋다는 부분에 있어 다른 선생님들도 동의하셨습니다.

Q. 지난 20년 동안의 크고 작은 양국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일교사대화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이 행사만의 장점,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A. 정치적인 문제는 많지만 교육에 대한 교류가 이어지다 보니, 일본에 대한 판단이 정치와 분리됐습니다.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교사대화가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일본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교사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열화된 교육과정, 학교 내 갈등 등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정치적인 문제나 역사문제에 대해 서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어떤 프로그램이 이래서 좋았다’와 ‘이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일본의 학교가 학교를 개방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다들 학교 방문 기회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현지 학교 방문으로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실제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네스코학교 선생님들은 다들 적극적인 편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나 한국사 같은 교육문제에서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조율을 한 것,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분위기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불편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우리도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라는 동질감을 가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도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교류하는 ‘한일학생교류’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갈등을 겪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서로 불편해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앞으로 배워야 하는지,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한일 교육 교류가 100년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A. 학생 교류 같은 경우도 많은 유네스코학교에서 일본과 MOU를 맺기도 합니다. ‘계센 누마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한국 학생들이 편지를 쓰고 모금을 해서 보내자’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갈등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손편지에 대단히 감동하고 좋아했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에 꼭 담겼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A. 일본과의 교류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를 잘 알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눈으로 양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배우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교육의 시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한일교사대화 참가자 인터뷰

만남과 대화, 소통과 공감의 추억 6

서로를 ‘가까운 나라’라 인식하는
변화의 순간

2019년 방한 일본 교사
미츠아키 사카시타

Q. 본 사업에 참여했던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A. 한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한국이라는 국가와 시민, 그리고 이들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의 학교 교육에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한국이 이뤄낸 경이로운 발전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놀라운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학교 교육이 어떠한 모습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관광객으로서 학교 내부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가 주신 좋은 기회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싶었습니다.

Q. 2019년 참가 후부터 수원의 명진초등학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이어왔는지요?

A. 주로 수원 명진초등학교는 ‘창조적 체험학습 시간’, 샛포로 기타노히라초등학교는 ‘종합적 학습의 시간’에 교류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한일교사대화 사업으로 수원 송림초등학교를 방문한 당시, 인근에 위치한 수원 명진초등학교 송철훈 교장선생님이 송림초등학교에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교 교류를 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10월에는 명진초등학교 5학년, 기타노히라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이 상대 국가의 문화나 인사말, 노래 등에 대해서 배웠고 이러한 상황을 양쪽 학교에서 수시로 확인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제가 명진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명진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일본이나 삿포로 기타노히라초등학교에 대해 수업했습니다. 명진초등학교 학생들은 환영연주로 일본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히트곡을 일본어로 합창했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 사이에 양쪽 학교에서 교류의 깃발을 제작했습니다. 약 2미터의 정사각형 형태의 흰 천을 두 장 준비하여, 명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두 장의 깃발 중 한 장을 작성하고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한 장을 삿포로 기타노히라 초등학교 4학년들이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장 중 한 장을 다시 명진초등학교로 보내 우호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깃발에는 일러스트,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명진초등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월에는 명진초등학교의 송철훈 교장, 교무부장, 김화영 국제교류 담당교사 등 3명이 삿포로 기타노히라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명진초등학교 교사가 기타노히라의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국과 명진초등학교의 모습에 관해 수업을 하고 기타노히라초등학교 아이들은 일본에서 대히트였던 〈파프리카〉라는 노래에 맞춰 댄스 공연을 하고 일본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히트송을 한국어로 합창하였습니다. 이 날을 위해 학생들은 음악 수업에서 약 한 달 가량 연습했죠.

Q. 짧은 기간 동안 긴밀한 교류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 의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나라로 불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에서는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음식 문화나 K-POP으로 한국을 접해보기도 하고 일부는 TV나 신문 등의 보도에 따라 양국 간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남은 상대국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접했는지에 상관없이 한국을 방문해본 초등학교생의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삿포로 기타노히라초등학교는 주택지 안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상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고, 수업에서 외국인

을 접촉하는 것은 ALT(외국어 지도교)에 의한 영어 수업 장면뿐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두 나라가 교류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언어나 문화 등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리 풍습이나 식생활 등 비슷한 점에 대해서도 체감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가까운 나라'로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해외(한국)의 같은 초등학생들의 반응이나 교직원들의 방문은 '실제로 반응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체험 학습이며, 성취감이 크게 느껴지는 학습법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부차적인 효과로서 일본의 교직원들에게도 한국이 '가까운 나라'임을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교직원으로서 ICT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 활용 능력이나 미디어 독해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교사의 역량 형성 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다양한 타인과의 협동'이라는 주제로 지도제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면에서 학생들 및 교직원에게 명진초등학교와의 교류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계획하고 있는 향후 교류의 모습은?

A. 2020년 양 학교의 교류는 코로나19에 의해 그 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류를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교류 형태를 실현하는 것은 비단 이 시기를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교류를 지속하는 데 있어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 및 영어 교과 시간에도 교류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한일교사대화가 20년간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근면하고 열성적인 양국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한 교직원들의 마음,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주최자의 열의가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Q. 20년 동안 지속된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가장 큰 성과와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이 사업이 지난 20년간 지속된 그 자체가 가장 큰 성과이자 양국 학교 교육 관계자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과 ‘SOCIETY 5.0’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양국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때, 이 한일교사대화의 성과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한일교사대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프로그램에서 느낀 아쉬움은 거의 없습니다만 굳이 꼽자면, 당초 계획되어 있던 ‘한국 가정 방문’ 행사가 짧은 일정 등을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관광지는 훗날 개인 여행으로라도 들를 수 있지만 한국의 가정 방문 기회는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 한국인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본교에서 진행 중인 것과 같은 교류를 양국에서 실시할 때 실천 데이터를 축적하고 노하우를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ACCU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2019년은 한일 관계가 비교적 악화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오랜 역사 동안 바다 하나를 두고 이웃으로 지내온 한국과 일본은 순풍의 시기도 역풍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 년 단위로 생각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각자의 사회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국의 관계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이라도 시민 차원에서 양국의 국민들이 교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나 대화’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정의 깊이를 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양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관광지 순회, 쇼핑 혹은 식사하는 것에 그치기 마련이고 언어의 벽도 있다 보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교류나 대화)의 기회를 갖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CT 기술의 발달로 번역 기능이 진화된 미래에는 양국 시민이 교류 및 대화의 기회를 갖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 관계자들이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의 교육 환경과 교육 정책의 좋은 점을 배워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학교 교육 속에서 가지는 것은 서로에 대해 가진 의식 속 장벽을 크게 허무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 이해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 양국이 협조하면서 미래에 완수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역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일교사대화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본 사업의 지속과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2019년 한일교사대화 참가 현황

연도	구분	기간	단장	인원	방문지
2011	방일	1.11~24	권대봉	149명	야치요, 요사노, 사이타마, 지바, 나라, 오사카
	방한	8.26~9.4	가토 히사오	53명	경남(창원, 김해), 전남(순천)
2012	방일	1.11~22	박은경	148명	사이타마, 요사노초, 게센누마, 오카야마, 후쿠오카, 오사카
	방한	8.29~9.7	이와모토 와타루	53명	경기, 충남
2013	방일	1.16~27	김태완	144명	야치요, 하시모토, 고마쓰, 지바, 후쿠오카, 오사카
	방한	8.22~29	아베 히로후미	50명	충북, 강원
2014	방일	1.19~27	안양옥	118명	나라, 이나기, 하시모토, 와카야마, 고마쓰, 오사카
	방한	8.26~9.1	오츠 가즈코	50명	강원, 충북
2015	방일	1.18~26	민동석	98명	야치요, 지바현, 와카야마, 오사카
	방한	8.25~31	히구치 도요타카	50명	경기, 전남
2016	방일	2.16~22	박흥순	111명	고마에, 사이타마, 나가노, 나리타
	방한	7.12~18	가나자와 유지	48명	경북, 인천
2017	방일	1.17~23	김재춘	118명	고마에, 야치요, 지바, 나리타
	방한	7.11~17	오타 가오리	49명	충북, 대구
2018	방일	1.16~22	김광호	97명	오사카, 기후, 아이치
	방한	7.10~16	이이 나오히로	50명	경기, 강원, 인천
2019	방일	1.22~28	반상진	97명	나라, 오사카, 효고
	방한	8.9~15	아츠코 기타오카	50명	서울, 인천, 강원, 수원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기획

20-year History of
Korea-Japan Teachers'
Dialogue Programme

사료
공모전

에피소드

20주년
축하 메시지

한일교사대화 20주년 기념 사료 공모전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의 20년을 함께 만든
수많은 참여자들께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의 사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난 20년간 한일교사대화가 걸어온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는 데 이바지할
소중한 자료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 역사의
주인공들을 찾습니다!**
6.16 (화) — 7.14 (화)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주년을 기념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기록을 혹은 참가 후기는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발전과 성장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집 내용

- 각종 문서(일기, 사진 등), 소지품(이전, 수첩, 메모, 보고서, 활동명 등)
- 각종 사진(행사, 기념사진, 교류 및 인문 수록 사진 등)
- 각종 기록물(이력서, 포스터, 기념품, 배지, 명함 등)
- 각종 에세이(체험기, 회고록, 일기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
- 기타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에 담기될 데하는 다양한 자료

* 6.16(화) 09:00 ~ 7.14(화) 18:00 까지 접수
* 6.16(화) 09:00 ~ 7.14(화) 18:00 까지 접수

자료 제출방법 / 제출할 곳

- 자료는 원본이 아니더라도 유언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제출 시 당사 모두 참조 요청)
- 제출 시 성함과 연락처를 밝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센터 | **사관기초**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길 20 (남산1동) 13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길 20 (남산1동) 13층
이력서 : unesco@unesco.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길 20 (남산1동) 13층
이력서 : unesco@unesco.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길 20 (남산1동) 13층
이력서 : unesco@unesco.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길 20 (남산1동) 13층
이력서 : unesco@unesco.or.kr



김정민
2018년 참가자
—
2018년 방일 영상

김원호

2010년 참가자

- 1. 2010년 방일 사진
- 3. 2010년 방일보고서



1. Programme Schedule / 프로그램 스케줄
Primary Programmes (Tokyo) / 全日プログラム(東京)

Day / 日	12 January (Wednesday) / 12월 12일 (수)
08:30	Departure from Seoul-Gyeong Airport (02:02시) / 2010년 12월 12일(수) 인천국제공항(02시)
09:25	Arrive at Tokyo International Airport (lands Anzen) / 東京国際空港(羽田) 着
	Lunch / 昼食
13:30	Arrive at Hoki Metropolitan Education Center / 北多摩市立高等学校(北多摩市)
15:00-16:30	Programme Orientation ("Tokyo" 2nd Floor, Hoki Metropolitan Education Center) / 北多摩市立高等学校(北多摩市) 2층 2010년 12월 12일(수) 오리엔테이션
18:00-20:00	Dinner at the Hotel ("Tokyo" and "Korea" 2nd Floor, Hotel Metropolitan Edmont) / 호텔메트로폴리탄에드먼트호텔(2층) (東京)
Day / 日	13 January (Wednesday) / 13월 13일 (수)
08:30-10:25	Opening Session ("Tokyo" 2nd Floor, Hotel Metropolitan Edmont) / 東京메트로폴리탄에드먼트호텔(2층) 開會式
10:30-12:00	Lecture 1: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Japan by MEXT ("Tokyo" 2nd Floor) / 文部科学省(文部科学省) 日本の初等中等教育について(1) (東京)
12:00-13:00	Lunch at the Hotel ("Tokyo" and "Korea" 2nd Floor, Hotel Metropolitan Edmont) / 東京메트로폴리탄에드먼트호텔(2층) 昼食(東京)
13:00-15:30	Lecture 2: Student Exchange in Japan by MEXT ("Tokyo" 2nd Floor) / 文部科学省(文部科学省) 日本の学生交換について(1) (東京)
15:30-16:30	ACCU Programme Introduction: ESS Learning Materials by ACCU ("Tokyo") / ACCU事務局(ACCU事務局) 紹介(東京)
18:00-20:00	Welcome Dinner ("Tokyo") / 歓迎夕食会(東京)
Day / 日	14 January (Thursday) / 14월 14일 (목)
	<Group A>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8:00-10:30	Visit to Shingaya Chū Gakko (Elementary Through Junior High School Inspection (School Level)) / 品川区立品川第一 小学校(品川区) 小学校(品川区)
	Lunch / 昼食
11:0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B>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30-1:00	Visit to Mikabe Elementary School (School Level) / 三ヶ貝小学校(三ヶ貝町) 小学校(鎌倉市)
1:00-1:30	Visit to Mikabe Elementary School (School Level) / 三ヶ貝小学校(三ヶ貝町) 小学校(鎌倉市)
1:3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C>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30-1:00	Visit to Shiba Kyōka Gakko (Shiba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志賀小中学校(志賀町) 小中学校(鎌倉市)
1:00-1:30	Lunch / 昼食
1:30-2:00	Visit to Inokashira Gakko (Inokashira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国分寺市立国分寺小学校(国分寺市) 小中学校(国分寺市)
2:00-2:30	Visit to Inokashira Gakko (Inokashira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国分寺市立国分寺小学校(国分寺市) 小中学校(国分寺市)
2:3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D>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00-1:30	Visit to Keio International Senior High School / 慶応義塾高等学校(横浜) 高等学校(横浜市)
1:30-2:00	Lunch / 昼食
2:00-2:30	Visit to Keio International Senior High School / 慶応義塾高等学校(横浜) 高等学校(横浜市)
2:3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E>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00-1:00	Visit to Sagami Gakko (Sagami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相模原市立相模原高等学校(相模原市) 高等学校(相模原市)
1:00-1:30	Lunch / 昼食
1:3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1. Programme Schedule / 프로그램 스케줄
Primary Programmes (Tokyo) / 全日プログラム(東京)

Day / 日	15 January (Friday) / 15월 15일 (금)
	<Group A>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00-1:00	Visit to Tokyo Kenkyū School (School Level) / 東京研習学校(品川区) 小学校(品川区)
1:00-1:30	Watch "Sano" Grand Tournament (Okyaku Kotenkan Area) / 大相撲博覧會(明国競技場)
1:3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B>
7:3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8:00-10:30	Visit to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Faculty of Education and Front Science Kanadara Elementary School (School Level) / 横浜国立大学教育学部附属金沢小学校(横浜) 小学校(横浜市)
10:30-11:00	Watch "Sano" Grand Tournament (Okyaku Kotenkan Area) / 大相撲博覧會(明国競技場)
11:0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C>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00-1:00	Visit to the Shiba Kyōka Gakko (Shiba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志賀小中学校(志賀町) 小中学校(鎌倉市)
1:00-1:30	Lunch / 昼食
1:30-2:00	Visit to Inokashira Gakko (Inokashira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国分寺市立国分寺小学校(国分寺市) 小中学校(国分寺市)
2:00-2:30	Visit to Inokashira Gakko (Inokashira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国分寺市立国分寺小学校(国分寺市) 小中学校(国分寺市)
2:30-3:00	Watch "Sano" Grand Tournament (Okyaku Kotenkan Area) / 大相撲博覧會(明国競技場)
3:0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D>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00-1:00	Visit to Tokyo Metropolitan Kōsei High School / 東京都立高松高等学校(高松) 高等学校(高松市)
1:00-1:30	Lunch / 昼食
1:30-2:00	Watch "Sano" Grand Tournament (Okyaku Kotenkan Area) / 大相撲博覧會(明国競技場)
2:0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E>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00-1:00	Visit to Chiba Professional Gakko (Chiba High School (for 15 teachers)) / 千葉専門学院(千葉市) 高等学校(千葉市)
1:00-1:30	Lunch at school / 昼食(学校)
1:30-2:00	Visit to Chiba Professional Gakko (Chiba High School (for 15 teachers)) / 千葉専門学院(千葉市) 高等学校(千葉市)
2:00-2:30	Watch "Sano" Grand Tournament (Okyaku Kotenkan Area) / 大相撲博覧會(明国競技場)
2:3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Group F>
0:00	Leave the Hotel / ホテル 出発
0:00-1:00	Visit to Sagami Gakko (Sagami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 相模原市立相模原高等学校(相模原市) 高等学校(相模原市)
1:00-1:30	Lunch / 昼食
1:30	Arrive at the Hotel / ホテル 到着

오영규
2010년 참가자
2010년 방일 보고서

이용환 2010년 참가자

2010년 방일 참가 회고록



신종국 2007년 참가자

2007년 방일 사진



최수경
2012년 참가자

—
2012년 방일 사진



이희동
2012년 참가자

—
2012년 방일 사진

서현숙

2001년부터 참가

- 1. 프로그램 관련 물품 사진
- 2. 2001 방일 관련 서한, 신문기사, 바우처 및 관련 문서
- 3. ACCU 20년사 발간물: 한일교사대화 관련 내용



정성진

2007년 참가자

- 1. 2007년 방일 자료
- 2. 2007년 방일 신문기사



한정수
2010년 참가자

—
2010년 방일 사진



朝の読書



図書館から始まる一日



フロアボール



運動から始まる一日



授業時間



グループ別発表



グループゲーム



ローラーコースター作り

나현선
2014년 참가자

—
2014년 방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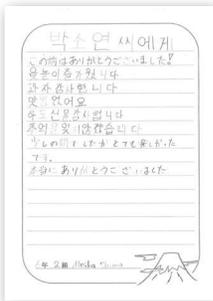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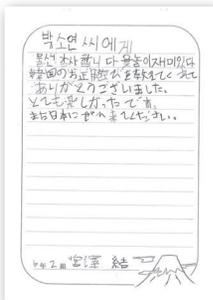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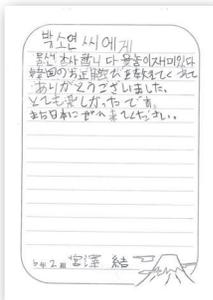
박소연

2016년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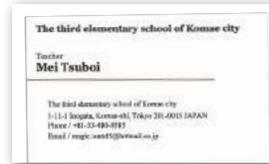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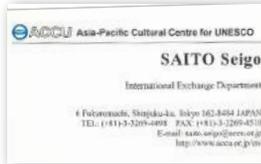
- 1. 2016년 방일 학생들 사진
- 2. 2016년 방일 당시 학생들 편지
- 3. 2016년 방일 명함 및 문화체험 부적



2



3



유철

2006년 참가자

- 1. 2006년 방일 사진
- 2. 2013년 방일 사진
- 3. 2017년 방한 사진



최일호

2012년 참가자

- 1. 2012년 방일 사진
- 2. 2013년 방한 사진
- 3. 2014년 방한 사진



전성은
2013년 참가자

2013년 명찰 및 부채 기념품 사진



이건영
2008년 참가자

2008년 방일 사진



이준호

2012년 참가자

2012년 방일 사진



이정규

2018년 참가자

2018년 방일 사진

이미징
2009년 참가자

2009년 방일 엽서 자료



지명자
2010년 참가자

2010년 방일 사진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로 맺은 우리 두 사람, 한국과 일본을 잇다

서현숙, 후지타 요시히코



국제협력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가치는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 누군가는 거창하고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목표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가 시작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께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의 20년지기 유네스코와의 동반에 있어 무엇보다 소중하고 보람된 기억은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대화였다. 이러한 인연은 우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일교사대화(한일교직원 교류사업)를 통해서 그 빛을 발했다.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교직원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흐른 지금 나는 그동안 만났던 양국의 수많은 교사와 학생을 떠올리게 된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대화를 이끌어 온 한일교사대화 20년은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다.

유네스코와 한일교사대화의 20년이라는 시간은 누구보다 나에게 특별하고 개인적으로 더 감사한 시간이다. 내 인생에 있어 소중한 인연이 함께했고 그것은 유네스코와의 만남과 가치 실현 덕분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좋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일 교직원 교류

가 시작된 2001년 첫해에 나는 운이 좋게도 인솔자 자격으로 방일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고, 2007년 방일 프로그램부터 오랜 시간 동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7년 방일 프로그램은 우리 위원회와 일본 파트너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와 함께 기획하게 되었고 160명의 한국 교직원 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일교사대화의 정점을 찍었다. 일본 방문 시 나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도 그룹별 방문지인 가고시마팀을 맡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 위원회와 ACCU 그룹별 담당자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고시마팀 나의 파트너인 후지타 요시히코씨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나의 남편이다. 나의 인연이 이곳에서 시작될 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는가? 후지타씨는 ACCU에 입사한지 반년 정도 지난 신입이었지만 일본 국회에서 6년 정도 일을 하고 이후 호주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ACCU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말수는 적었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 주어 개인적으로는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수월하게 그룹을 이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업무 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후지타씨는 의외로 한국 선생님들과 잘 어울리고 대화도 잘했다. 주변 사람을 편하게 챙겨주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편견 없이 들어준다고 선생님들이 후지타씨

를 특히 많이 챙겨 주셨다. 우리 그룹의 선생님들, 통역자 그리고 후지타씨와 나는 2주간의 일정동안 프로그램 참가도 알았지만 비공식적인 어울림을 통해서 많은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소중한 즐겁고 감사한 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로 서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보고 듣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름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만남은 귀국 후에도 가고시마팀 선생님들과 한국에서 모임을 만들고 지금도 그 인연을 이어오면서 후지타씨를 기억하고 다시 만나고 있다.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 한 나는 후지타씨가 2007년 방한 프로그램의 주무를 맡게 되었다고 했을 때 기뻐고 일을 하는 방식도 잘 맞아 한결 편안하게 소통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두 사람에게는 작은 인연이 이어지고 운이 보태져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2007년 방한 시 같은 그룹을 맡고 차년도 방일 군마팀 및 방한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같은 그룹의 파트너가 된 것은 인연이고 행운이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대화 기회가 더 많아졌고 한결 편안하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지타씨는 2008년 방한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ACCU를 퇴사하고 지바에 있는 경제연구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좋은 동료로 친구

로 남아 이메일을 자주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편안한 사이로 변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동료들과 편히 지내는 성격이라 후지타씨도 그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누구보다 많은 얘기를 하고 잘 통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나는 결혼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후지타씨와 친구로서 편히 지내는 감정으로 시작해 삶의 동반자로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하지만 후지타씨와의 대화는 다른 누군가와도 다르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삶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비슷하고 나와 같은 방향에서 공감하고 바라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글로서 참 많은 대화를 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 통해 직접 만났을 때 대화가 더 어색해지기도 했다.

2009년은 내 삶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 딸이 하는 일을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물론 내 주변의 동료와 친구의 위로가 있었지만 멀리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준 사람이 있었다. 지금의 남편이었다. 그는 그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계속 다지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성을 쌓아가는 중이었고 삶의 전환기에 나에게 조언을 구하던 시기였다. 많은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위안과 큰 힘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서로를 삶의 동

나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를 통해서
그리고 한일 교직원 교류를 통해서
만난 모든 사람의 축복을
우리 두 사람이 오롯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반자로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서로 특별한 프로포즈를 한 것이 아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했다고 한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랬을지도 모른다. 결혼해서 지금도 우리 둘 다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캘린더에 생일이나 기념일 등은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가능한 한 기념일을 많이 만든다. 이런 날을 기념해 우리는 서로 특별히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 전하고 대화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벤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다.

2010년 초여름 후지타씨는 도쿄에 계신 지금의 부모님 집으로 나를 초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떨림보다 좋은 긴장이 있었다.

이런 일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한국에 대해 오랜 옛 모습을 기억하시는 부모님들께 아들의 한국 여성과의 만남은 반신반의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능숙하지 않은 일본어로 서투르지만 밝게 얘기하는 나를 친근하게 맞이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처음 어른과의 만남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한 잔의 차가 식사로 이어지면서 후지타씨도 안심하는 듯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가을에 두 분의 한국 방문을 제안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뒤늦게 소식을 전했지만 늦은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자체에 모두 기뻐하고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가족들이라 외국인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양가 가족들의 열린 마음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다.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신 두 분은 내가 미리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 모두를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떠들썩한 우리 가족 모습을 좋아해 주셨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후지타 씨는 두 분께 나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고 부모님들은 얼떨결에 허락을 하시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시아버님께서 결혼식 때 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혼도 통보받았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셔서 많은 하객들이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다.

이후 일상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우리

는 그해 201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에서 결혼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연말에 결혼 신고를 하게 되었다. 우리위원회 동료들에게는 연말 송년 모임에서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전하게 되었는데 모두들 너무 놀란 나머지 따지지도 않고 축하해 주었다. 이미 방일 참가로 인해 많은 동료 직원들이 신랑을 알고 있었고 가까운 동료들은 뒤늦었지만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많은 선생님들이 축하와 응원을 해주셨다. 나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를 통해서 그리고 한일 교직원 교류를 통해서 만난 모든 사람의 축복을 우리 두 사람이 오롯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일본 문화에 따라 결혼 신고는 했지만 우리는 2011년 9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 한일교사대화 사업을 함께 담당했던 동료와 인턴들이 서현숙-후지타 요시히코 결혼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방한 프로그램 준비로 바쁜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애를 써 주었다.

우리 두 사람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화의 시간을 담고 싶어 준비한 1시간 30분의 결혼식은 마치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의 특별판이었다. 한일교사대화를 창시한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께서 주례를 맡아 주셨고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문부대신(교육과학장관)이 꿈을 꿀 수 있는 사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문부대신의 선물



람들이 될 수 있도록 ‘夢(몽)’을 글귀로 담아 직접 선물해 주셨다. 방한 일본 교사들이 머물렀던 명동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우리 결혼식에는 일본에서 축하하러 온 신랑의 친구와 함께 유네스코와 한일교사대화를 통해 함께했던 많은 지인과 선생님들이 참석하셨고 축하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가끔 그때의 영상과 수많은 메시지를 보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겁다.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은 유네스코와 한일교사대화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고 우리는 그 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문부대신은 그 이후 방일 참가자 환영 리셉션에서 우리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이 한일교사대화의 최고의 성과라고 자주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한일 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결혼 후 2년 정도 신랑은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에티오피아에서의 개발협력사업을 위해 거의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 우리는 휴가 중에만 가끔 왕래했다. 나의 일상은 큰 변화가 없어 문득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나의 마음은 더욱더 세심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나에게서 더욱 소중한 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랑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더 학습하고 이해하고 양국의 연결 고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결혼신고 기준으로 1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는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뉴스에서는 거의 매일 한국과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에는 좋은 일보다 힘든 뉴스가 많고

이럴 때면 서로 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리고 모든 현상에 대해서 더 살피게 되고 여러 입장에서 한참 동안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한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서 대화하는 법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더욱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얘기하지만 싸우지는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이 없으면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된다. 우리가 대화를 자주 하는 것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무언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네스코와 한일교사대화라는 매개체가 늘 우리 부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과 이어짐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지속된다고 믿고 있다. 갈등이 있어도 만남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도 만남과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부부처럼 말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파트너에서 평생을 함께 하는 부부로의 인연이 된 것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선생님과 방일과 방한을 통해 만났던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네스코와 한일교사대화가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낸 우리

는 한일교사대화의 최고의 수혜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잇는 평화의 메신저로서 역할과 책임감이 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를 통해 맺은 우리 두 사람, 한국과 일본을 잇는 부부로서 잘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겠다.

매일 매일 우리 부부는 대화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얘기한다. “고맙소”.

20주년 축하 메시지

두 개의 나라,
하나의 목소리

김 다 영 선생님

“일본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일본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교사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정치적인 문제나 역사문제에 대해 서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방문했을 때 우리에게 환영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때 불러줬던 노래가 ‘영광의 가교’라는 노래였는데요, 그때 저희 모두가 같이 울었습니다.

계센누마를 다녀온 상황이기도 했고, ‘한일교사교류’라는 의미에서 ‘영광의 가교’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줬던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간다고 준비해서 노래를 불러줬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광의 가교’가 무슨 노래인지 찾아보고 나서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 상 문 교수님

“제가 생각했을 때 한일교사대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유네스코와 한국유네스코가 어떤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진행한 사업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일궈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이어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양국 교사들의 대화의 장이 되어 나갈 본 행사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야기현 게센누마 지역을 2012년에 한국 교직원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안전을 걱정하며 방문 지역 선정에도 당혹해 했지만 방문의 취지를 듣고 한국 선생님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일본 선생님들과 만나 아픔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잃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년간 지속된 한일교사대화는 자연재해, 질병, 한일간 역사문제 등 해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년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상호 만남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 온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남을 통해 조금씩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이해합니다.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다름과 차이를 알게 됩니다. 이해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화와 이해의 길을 만든 중심에는 한일교사대화에 참가한 양국 ‘교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교사대화를 통해 양국을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20주년 동안 만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불편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떤 측면에서 일종의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과 교류를 하며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공존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 정치로 보는 역사와 사람 간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불우했던 역사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일부 학생들은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부분은 일본 학교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교의 모습, 담장, 심지어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공 차는 모습까지 내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들이 방문한다고 하니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복도 입구에 ‘안녕하세요’처럼 인사를 한글로 써서 붙이고 환영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방인을 대하는 친절에 대해 아주 고맙습니다.”

서현숙 팀장님

신혜정 선생님

양영자 선생님

이 용 훈 선생님

“우리 세대는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일본 문화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괴롭힌 부정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부정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주간 일본의 많은 기관도 방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도체험이나 전통목장 등 많은 문화체험을 하면서 일본은 일본 나름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문화가 있고, 우리와 종류가 다를 뿐, 일본문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가 외국어학교다 보니 일본어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담당이었지만 일본어과도 담당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사실적이고 긍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 은 경 선생님

“교사가 할 일은 학생 교육입니다. 교사가 일본을 다녀와서 본인만 좋았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육자의 도리와 책임은 학교 교육에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녀왔으면, 꼭 이 책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느낀 것, 생각하는 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피드백을 하려면 일본 선생님들과도 계속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한번 만나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개발, 혹은 리모델링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 철 선생님

“저는 양국 간 갈등 구조 속에서 교사로서 느끼는 상호 이해에 대한 갈증과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는 참가자들이 가졌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때로 어려운 상황일 때조차도 본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온 양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노력이, 20년간 한일교사대화가 유지되어 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차츰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일 프로그램 참가 후 일본 교육(특수교육)의 현 주소와 우리나라 교육의 현 시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방향성 모색 및 일본 특수교육에서의 벤치마킹할 여러 부분에 관하여 일본 교사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의 공간과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행 본부의 철저한 준비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본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어떤 표현을 써야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손짓 발짓, 온갖 보디랭귀지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설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제 모든 행동과 하려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 노력해주셔서 이런 어려움이 극복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더 잘하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해도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 중 잊지 못할 경험을 하나 한 것 같고,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가깝고도 먼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교사가 아닌 제가 보기에 한일 불문하고 학생의 일이 되면 왜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것인지, 수업 참관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지 알게 되어 중국에는 감동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 방문단 내의 선생님들의 학교 교급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다른 교급 간의 의견 교환의 기회가 되어 국내 교사끼리의 교류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배영철 선생님

윤현희 학생

Iwamoto
WATARU

전 문부과학성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국제교섭분석관

Matsuno
ITARU
선생님

“유네스코가 목표로 하는 이념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KNCU와 ACCU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20년간 한일교사대화가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양국 간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 한일 간 협동사업은 때에 따라 추진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어째서 그동안 중단되지 않고 20년 동안 계속하여 운영되어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KNCU와 ACCU의 관계자분들이 양국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래라는 공통된 이상을 가지고 유네스코 이념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KNCU와 ACCU 여러분의 신뢰 관계가 지속적인 운영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현재도 한일교사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담당자 육성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 및 아동을 잘 교육하고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들이 올바른 교육을 위해 계속 교류를 하고 배워나가는 교류 토대의 마련이야말로 최대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나라 사람 간의 신뢰 관계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글로벌 문제에 있어 국가를 초월한 연대 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곧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 부처나 행정부에 남의 일로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우리 ‘현장의 교원’이 유네스코의 이념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실행해가지 않으면 작금의 여러 세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미래에 남겨주시기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란 정치나 조약 서명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각 층이 상대국가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의식개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 담당자인 교직원의 교류는 반드시 지속해야 하며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ESD는 편견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비판적 정신으로 지구적 과제에 국경을 초월하여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세계시민교육의 추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교류는 ‘한국에 친구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로써 의식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대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하고, 자국에 대해 더 알리고 싶어하여 한국을 친구로서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일본의 전통문화를 탐구하는 기회가 되어 한국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전통문화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류 소감 중에는 ‘어른이 되면 한국에 가 보고 싶다’, ‘친구가 되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등 앞으로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감상이 많았으며 이 또한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관련된 수많은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회가 한일 양국 많은 분들의 이해와 협력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교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나라의 정치나 문화를 초월한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마음의 연결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Naohiro LI

오사카 부립대학
교수님

Nozomi
LIHOSH

선생님

Mitsuaki
SAKASHITA

선생님

“이 사업이 지난 20년간 지속한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이자 양국 학교 교육 관계자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4차 산업혁명과 SOCIETY 5.0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때 양국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때, 이 성과가 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바다를 두고 이웃으로 지내온 한국과 일본은 순풍의 시기도 역풍의 시기도 있었지만, 천년 단위로 생각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각자의 사회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국 관계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시민 차원에서 양국의 국민이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나 대화’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정의 깊이를 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양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관광지 순회에 쇼핑 혹은 식사하는 것에 그치지 마련이고 언어의 벽도 있다 보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교류나 대화)의 기회를 갖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CT 기술의 발달로 번역기능이 진화된 미래에는 양국 시민이 교류 및 대화의 기회를 갖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 관계자들이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의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좋은 점을 배워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학교 교육 속에서 가지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식의 허들을 크게 내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 이해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 양국이 협조하면서 미래에 완수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역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지속과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최종보고회에서 저는 일본 측 단장으로서 한국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는데, 세계의 목전에 다가온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상황과 ESD 교육 추진의 중요성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은 자신이 본래 준비해온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ESD 교육의 추진에 있어 한국도 거국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며,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한국이 그동안 유네스코 ESD 교육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 또한 유네스코학교 수가 1,000개 교를 넘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ESD 교육의 실천 성과를 꾸준히 낸 결과, 2017년에 공시된 일본 학습지도요령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창조자 육성’이라는 기본이념이 도입되었으며 전국 학교교육에서 ESD 기반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2006년과 2009년 한일교사대화 사업의 참가는 저에게 중요한 출발점이 된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Toshio
TEJIMA
선생님

한일교사대화 참가 실적

연도	구분	참가자 수
2001-2019(ACCU 주최)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2,191명 방일
2005-2019(한위 주최)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678명 방한

연도	구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
2001	방일	2.5-24 (20박 21일)	남상문 (교육부)	남상문	50명	히로시마, 사가, 가고시마, 오사카
2002	방일	1.24-2.5 (13박 14일)	강대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부장)	정봉근 김영재	50명	미에, 효고, 오사카
2003	방일	1.16-27 (13박 14일)	김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구관서 한경문	99명 (1명 취소)	야마구치, 돗토리, 가가와, 미야자키, 오사카
2004	방일	1.29-2.10 (13박 14일)	강대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부장)	임승빈 유지완	99명 (1명 취소)	홋카이도, 시즈오카, 오이타, 에히메, 오사카
2005	방일	1.19-2.1 (13박 14일)	도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	강학래	99명 (1명 취소)	홋카이도, 후쿠시마, 효고, 돗토리, 오사카
	방한	9.5-13 (13박 14일)	미카미 가즈요키 (미야기 교대 교수) 다나카 가즈야키 (동경다케하야초 교감)	아시아 다카시 (문부성 과장) 외 1명	24명	수원, 안동, 경주
2006	방일	1.11-24 (2주)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여종구 이병석	99명 (1명 취소)	홋카이도, 구마모토, 사가, 돗토리, 오사카
	방한	6.11-18 (7박 8일)	구사하라 가츠히데 (다쿠쇼쿠대 부총장)	니시야마 가즈노리 (문부성 국제협 력정책실 인물 교류전문관) 외 2명	25명	전주, 부여, 광주

연도	구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
2007	방일	1.24-2.5 (13박 14일)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태훈 김동환	159명 (1명 취소)	홋카이도, 효고, 사이타마, 나 라, 가고시마, 오사카
	방한	6.10-17 (7박 8일)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대신, 전문부대신) 사가라 노리아키 (교토노틀담대 총장)	다다 마유코 (전문원) 외 1명	29명	대전, 청주, 경주
2008	방일	1.22-2.4 (13박 14일)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강정길	158명 (2명 취소)	군마현, 게센누마시, 다카라즈카시, 사이타마시, 아키타현, 오사카
	방한	8.19-28 (9박 10일)	고자와 기미코 (동경학예대학 명예교수)	가와쿠보 유리코 외 1명	52명 (2명 취소)	인천, 수원, 창녕, 경주
2009	방일	2.3-16 (13박 14일)	이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김규태 심민철	148명 (2명 취소)	후쿠시마현 니시고촌, 사이타마시, 나라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오사카
	방한	8.26-9.4 (9박 10일)	기소 이사오 (문부과학성 국제통관관, 일본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 데지마 도시오 (고토구립시노노메 초등학교장)	시미즈 노리히코 (문부성 국제통 관보좌) 외 1명	53명 (1명 취소)	인천, 수원, 통영, 안동, 경주
2010	방일	1.12-25 (13박 14일)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강구도 정민웅	149명 (1명 취소)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 와카야마현, 오사카부, 오사카
	방한	8.25-9.3 (9박 10일)	사카구치 히토미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 회원, 미노시교육위원 회 교육위원)	우에무라 마사키 (문부성 계장) 외 1명	53명 (1명 취소)	안산, 시흥, 원주, 청주, 경주

연도	구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
2011	방일	1.11~24 (13박 14일)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홍성창 박혜원	149명 (1명 취소)	지바현 야치요시, 교토부 요사노초,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지바현, 나라현 나라시, 오사카
	방한	8.26~9.4 (9박 10일)	가토 히사오 (나라교육대 부학장)	히가시 히데아키 (문부성 계장) 외 1명	53명 (1명 취소)	경남 창원, 김해, 전남 순천
2012	방일	1.11~22 (11박 12일)	박은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권희정 최유순	148명 (2명 취소)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교토부 요사노초,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후쿠오카현, 오사카
	방한	8.29~9.7 (9박 10일)	이와모토 와타루 (문부과학성 일본유네스코 국내위원회 국제교섭분석관)	사토 게이치 (문부성 전문직) 외 1명	53명 (1명 취소)	경기, 충남
2013	방일	1.16~27 (11박 12일)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은희 김윤정	144명 (6명 취소)	지바현 야치요시,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이시카와현 고마쓰시, 지바현, 후쿠오카현, 오사카
	방한	8.22~29 (7박 8일)	아베 히로후미 (오카야마대학 부학장)	가모시다 유코 (문부성 계장) 외 1명	50명	충북, 강원
2014	방일	1.19~27 (8박 9일)	안양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동명 이진구	118명 (2명 취소)	나라현 나라시, 도쿄도 이나기시,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이시카와현 고마쓰시, 오사카
	방한	8.26~9.1 (6박 7일)	오츠 가즈코 (홋카이도교육대학 부학장)	모리 유스케 (문부성 계장) 외 1명	50명	강원, 충북

연도	구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
2015	방일	1.18-26 (8박 9일)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혜선	98명(2명 취소)	지바현 야치요시, 지바현, 와카야마현, 오사카
	방한	8.25-31 (6박 7일)	히구치 도요타카 (고마에 제1중학교 교장)	야마모토 츠요시 (문부성 계장) 외 1명	50명	경기, 전남
2016	방일	2.16-22 (6박 7일)	박흥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과학분과위 부위원장)	박은숙 배선연	111명 (4명 취소)	도쿄도 고마에시,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나가노현, 나리타
	방한	7.12-18 (6박 7일)	가나자와 유지 (홋카이도 라우스초교육위원회 장학관)	오카모토 아야 (문부성 계장)	48명 (2명 취소)	경북, 인천
2017	방일	1.17-23 (6박 7일)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장)	박기연 이하나	118명 (2명 취소)	도쿄도 고마에시, 지바현 야치요시, 지바현, 나리타
	방한	7.11-17 (6박 7일)	오타 가오리 (큐슈국제대학 국제사회학과 교수)	구바 마사하루 (문부성 전문관) 외 1명	49명 (1명 취소)	충북, 대구
2018	방일	1.16-22 (6박 7일)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천홍 강성화	97명 (3명 취소)	오사카부, 기후현, 아이치현
	방한	7.10-16 (6박 7일)	이이 나오히로 (오사카 부립대학 교수)	니시 아키오 (문부성 전문관) 외 1명	50명	경기, 강원, 인천
2019	방일	1.22-28 (6박 7일)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임동수 이선영	97명 (3명 취소)	나라시, 오사카부, 효고현
	방한	7.9-15 (6박 7일)	아츠코 기타오카 (교토 교육대학 부속특별지원학교 교감)	사이토 사라사 (문부성 사무관) 외 1명	50명	서울, 인천, 강원, 수원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부록

20-year History of
Korea-Japan Teachers'
Dialogue Programme

한일교사대화 역대 참가자 명단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2001			
방일(47)	1	Chi Jeong-ran (지정란)	Seoul Kwangjin School
	2	Chun Bongshik	Bugpo Elementary School
	3	Han Insung (한인성)	Nonsan Daegeon High School
	4	Hong Chongui (홍정의)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5	Hong Sokyon (홍석연)	Kwaja Middle School
	6	Hwang Sungsam (황성삼)	Mapo High School
	7	Jeon Hong-soo (전홍수)	Puchon High School
	8	Jeon Ilkwon (전일권)	Samrye Technical High School
	9	Jeong Kiok (정기옥)	Demonstration High School,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0	Jo Jonggi (조종기)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경북사대부고
	11	Jung Boomae (정부매)	Hangaram High School 한가람고
	12	Kang Young-soo (강영수)	Susung High School 수성고
	13	Kang Hyeon-ko (강현구)	Kumho High School 금호고
	14	Kang Hyung-kyun (강현경)	Ulsan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울산여상
	15	Kim Ayoung (김아영)	Sookmyang Girls' High School 숙명여고
	16	Kim Woo-kyung (김우경)	Kwanju Speer Girls' High School 광주수피아여고
	17	Kim Sunok ()	Noil Middle School
	18	Kim Myong-sun (김명순)	Taejon Taewha Middle School 대전대화중
	19	Kim Sungsu (김성수)	Mokpo Hongil High School 목포홍일중
	20	Kim Kilsoon (김길순)	Kwangju Elementary School Attached to Kwangju 광주교대부초
	21	Kim Jungshim (김정심)	Sukpo Girls' Middle School 석포여중
	22	Kim Soonbok (김순복)	Pohang Jaecheol Dong Elementary School 포항제철동초
	23	Kwon Ohseon (권오선)	Tapdong Elementary School 탐동초
	24	Lee Minchurl	Yeongseungpo Girls' High School
	25	Lee Jongok (이종옥)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대원외고
	26	Lee Myuangja (이명자)	Jayang Middle School 자양중
	27	Lee Kyung-hee (이경희)	Hanam Chenhyun Elementary School 하남천현초
	28	Lee Yong-hoon (이용훈)	Kyongbo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경북외고
	29	Lee Boksu (이복수)	Kimcheon Joongang High School 김천중앙고
	30	Lim Ho (임호)	Yangchung High School 양정고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47)	31	Moon Juyoung (문주영)	Kuui Middle School (구의중)
	32	Moon Sungsoo (문성수)	Sungsan Middle School (제주성산중)
	33	Noh Okie	Jinju High School
	34	Oh Enyoung	Bongseo Middle School
	35	Oh Cheol-han (오철한)	Jeju Jeil High School (제주제일고)
	36	Paek Yongbum (백용범)	Seoul Yuhyun Elementary School (서울유현초)
	37	Park Jiseon (박지선)	Sungsu Secondary School (성수중)
	38	Sang Huigu (상희구)	The Attached Primary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공주교대부초)
	39	Seo Young-soon (서영순)	Jungsan High School (중산고)
	40	Seo Kyung-seon (서경선)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서울사대부여중)
	41	Shin Dongmi (신동미)	Seoul Tapshimni Elementary School (서울답십리초)
	42	Won Soonja (원순자)	Songjeon Middle School (용인송전중)
	43	Won Insik (원인식)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Cunch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춘천교대부초)
	44	Woo Jae-Whoan (우제환)	Taedok High School (대덕고)
	45	Yang Youngja (양영자)	Jeju Jeil Middle School (제주제일중)
	46	Yon Myong-suk (연명숙)	Chongj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청주외고)
	47	Yu Seung-min (유승민)	Seoul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서울사대부중)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2)	1	Park Hyunsoo (박현수)	Education Unit
	2	Seo Hyun-sook (서현숙)	-
Ministry of Education, ROK	1	Nam Sang-moon (남상문)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Division
ACCU (4)	1	Muneharu Kusaba	
	2	Mitsuyoshi Miyauchi	General Affairs Department
	3	Masatsugu Kimura	Youth Exchange Office, General Affairs Division
	4	Takamichi Ikezoe	Youth Exchange Office, General Affairs Division
2002			
방일(46)	1	Kim Soo-il	Singa Elementary School
	2	Kim Myoung-wook	Seoul Gochuk Elementary School
	3	Song Shin-ae	Seoul Hanseo Elementary School
	4	Sung Kyung-wha	Myeonbuk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46)	5	Kang In-hee	Jeonil Middle School
	6	Im Ok-kyu	Bugak Middle School
	7	Choi Song-kon	Changduk Girls' High School
	8	Lee Sung-hyun	Jeongeui Girls' High School
	9	Park Kyoung-jin	Incheon Bugaseo Elementary School
	10	Lim Seung-ho	Incheon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11	Choi Mi-rang	Jido Elementary School
	12	Choi Kwang-won	Juksan Elementary School
	13	Ko Ae-ja	KArim High School
	14	Yoo Mi-suk	Miwon High School
	15	Jeong Han-yong	Kiheung High School
	16	Park Choon-hee	Anil Girls' High School
	17	Kim Shin-ja	Munsan Girls' Comprehensive High School
	18	An Hyo-pal	Taejeon Boksu Elementary School
	19	Lim Hun-kyu	Daedok High School
	20	Lee Nak-jong	Namsan Elementary School
	21	Jang Young-suk	Chuncheon High School
	22	Baik Kung-mi	Chungju Girls' Middle School
	23	Woo Snag-hee	Keumcheon High School
	24	Jin Ho-yong	Kongju Girls' High School
	25	Jo Ji-yong	Chonan Bongmyung Elementary School
	26	Jeong Suk-ju	Gyeongb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27	Kim Sun-hui	Uiseong Girls' Middle School
	28	Park Sun-duk	Daehung Elementary School
	29	Kim Mi-ran	Kooksan Elementary School
	30	Kim Dong-chool	Gaya Elementary School
	31	Hong Youl-pio	Tongyeong Middle School
	32	Kim Min-ja	Dongbu Girls' Middle School
	33	Cho Sang-kil	Daegun High School
	34	Kim In-hwan	Namwon Yongseong Middle School
	35	Han Hwa-chong	Jeongeup Girls' Middle School
	36	Chang Chung-kun	Yeocheon Middle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46)	37	Park Ae-ran	Jangheing Yuchi Middle School
	38	Lim Jae-young	Sangmu High School
	39	KIm Hyo-joong	Chonnam Univ Middle School
	40	Hur Woo-suk	Nongso High School
	41	Park young-taek	Bumsur Elementary School
	42	Kim Dae-hong	Kumyang Elementary School
	43	Pak Chong-hui	Singok Middle School
	44	Jang Kue-suk	Kumjung Girls' High School
	45	Kim Mi-hyan	Jeju jeil High School
	46	Lee Min-jae	Jeju Jungang Girls' High Schoo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2)	1	Kang Dai-geun	-
	2	Kim kwi-bae	Education and Culture Team
Ministry of Education, ROK (2)	1	Chung Bong-gun	Educational Studie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	KIm Yong-jae	Teacher's Welfare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CCU(7)	1	Kusaba Muneharu	
	2	Miyauchi Mitsuyoshi	General Affairs Department
	3	Iida Megumi	Youth exchange office, General Affairs Department
	4	Kimura Masatsugu	Youth exchange office, General Affairs Division
	5	Uchimura Shunsuke	Accounting Section, General Affairs Division
	6	Ikezoe Takamichi	Youth exchange office, General Affairs Division
	7	Kato Kumiko	Youth exchange office, General Affairs Division
2003			
방일(94)	1	An Mae	Munsan Girls' Comprehensive High School
	2	An Seung-yeol	Ou Seng Elementary School
	3	Chang In-kee	Gyeongb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4	Chang Myung-sun	Chojeon Middle School
	5	Chang Nam-hi	Busan International High School
	6	Chang Hee-sook	Onjung Elementary School
	7	Cho-Hyo-sug	Chopyong Elementary School
	8	Cho Jin-hee	Gu-young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4)	9	Cho Mi-sook	Sangincheon Middle School
	10	Cho Seung-ho	Mo A Elementary School
	11	Choi Eun-kyung	Youngshin Girls' High School
	12	Choi Hee-cheol	Dong-gang Elementary School
	13	Choi Jong-ae	Hapsung Elementary School
	14	Choi Mee-hew	Yeongdeungpo Girls' High School
	15	Chong Chong-ryol	Kajwa Girls' High School
	16	Choo Jin-suk	Samsan High School
	17	Chung Chan-kyung	Incheon High School
	18	Go Jong-hwan	Kwagyang Jechol Nam Elementary School
	19	Go Ju-bun	Shin-ha Elementary School
	20	Han Chang-suk	Daejeon-Shinbong Elementary School
	21	Han Hong-suk	Payang Elementary School
	22	Hong Hyun-ok	Yangpyung Middle School
	23	Hong Sung-min	Incheon Hambak Elementary School
	24	Hong young-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25	Hwang Eun-young	Seoul Kongduck Elementary School
	26	Hwang Tae-ha	Sangseo Girls' Management Information High School
	27	JIn Sun-ho	Daejeon Daehwa Middle School
	28	Jo Me-ok	Yeon-Hyeon Middle School
	29	Jung Jae-u	Changwon Sapa High School
	30	Kang Shin-suk	Seogwi Jungang Girls' Middle School
	31	Kang Yi-don	Daejeon-Songchon Middle School
	32	Kim Byung-yong	Hak-Sung Middle School
	33	Kim Da-won	Jung-Heung Middle School
	34	Kim Eun-kyu	Yong-in Agricultural Life Industrial High School
	35	Kim Gum-hee	Jeju Dong Elementary School
	36	Kim Hae-Jin	Choongmu Elementary School
	37	Kim Hue-suk	Seoul Dae-Myoung Elementary School
	38	Kim Jong-tae	Jisan Middle School
	39	Kim Jong-seok	Mupung High School
	40	Kim Jung-sam	Seoul Dapsimni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4)	41	Kim Ker-hyun	Goheung High School
	42	Kim King-kyung	Ajwa High School
	43	Kim Kyung-ah	Shinsa Elementary School
	44	Kim Mee-jeong	Jeju Jeil Middle School
	45	Kim Mi-whoa	Gwangnam Elementary School
	46	Kim Nam-song	Sanggye Middle School
	47	Kim Sam-su	Yongam Middle School
	48	Kim Seung-min	Myung-jang Elementary School
	49	Kim Tae-hun	Pohng Jecheol Dong Elementary School
	50	Kim Yun-sook	Hwacheon Technical High School
	51	Koh Eun-joo	Muhak Girls' High School
	52	Kwang Eun-kyu	Chungju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53	Kwak Eun-sook	Munduk Elementary School
	54	Kwon Oh-jang	Cheong-ju High School
	55	Kwon Poo-kyoung	Affiliated High School to ASpnet
	56	Kwon Won-Il	Kungil High School
	57	Lee Byung-seung	Seoul Namsan Elementary School
	58	Lee Choon-ok	Yong-tong Middle School
	59	Lee Han-ho	Hwangji High School
	60	Lee Hwan-chul	Changwon Jungang Girls' High School
	61	Lee Hyang-mi	Sin-Gok Middle School
	62	Lee Jong-suk	Sin-Gok Middle School
	63	Lee Joon-kyung	Sookmyung Girls' High School
	64	Lee Kang-sun	Sanbuk Elementary School
	65	Lee Keun-su	Kyung Hee Elementary School
	66	Lee Kyung-hee	Dongil Girls' High School
	67	Lee Sang-Keun	Ulsan Living Science High School
	68	Lee Tai-heui	Cheong Myeong High School
	69	Lim San	Jeonju High School
	70	Lim Yong	Gwangju Elementary School Attached to GNUE School
	71	Moon Chang-yong	Muju Elementary School
	72	Na Hyun-sook	Daejeon-Dunsan Girls' High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4)	73	No Young -jun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74	Oh Myo-soon	Chunwoon Middle School
	75	Park Hae-ran	Attached Elementary School to KNu School
	76	Park Hyo-jung	Seoul Jamshin Elementary School
	77	Park Hyung-soo	Hwajungnam Elementary School
	78	Park Kyung-min	Jeju Jeil High School
	79	Ryu Jei-sun	Young Won Middle School
	80	Seo Hae-young	Seogang High School
	81	Shin In-seon	Poun Girls' Middle School
	82	Shin Moon-sung	Buhung High School
	83	Sohn So-yeon	Sang-rok Elementary School
	84	Son Byeon-ju	Andong Middle School
	85	Song Eun-joo	Maeho Elementary School
	86	Song Ji-hyun	Jang-su High School
	87	Won Sook-min	Junggok Elementary School
	88	Won Eun-sook	Sok-po Girls' Middle School
	89	Yang Ji-seung	Gurim technical High School
	90	Yang JIn-suk	Giheung High School
	91	Yi Chung-hun	Jeju Tourism Industrial High School
	92	Yoo Sun-deok	Kwangju Speer Girls' Middle School
93	Yoon Tae-young	Gunsan Middle School	
94	Youn Yeon-ha	Guui Middle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HR development(2)	1	Koo Kwan-se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2	Han Koung-mun	Education and Development Division MEHR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2)	1	Kim Shin-il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	Song Jong-jin	Education and Culture Team KNCU
	3	Kang Sang-kyoo	Korea Unesco Cultural exchange Services, KNCU
2004			
방일(94)	1	Ahn Whoan-in	Jochiwon Girls' High School
	2	Bark Baek Un	Andong Buseol Elementary School of DNUE
	3	Chang Yoonhee	Jeonju Seoil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4)	4	Ahn Youngjoo	Namchang Middle School
	5	Chae Myunghwa	Muhag Elementary School
	6	Cheon Young-shik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7	Cho Young-hwan	Ochun Elementary School
	8	ChoiHye-sig	Seohyun High School
	9	Choi Jong-weon	Dngnae High School
	10	ChoiSung-ran	Yangpyeong Middle School
	11	Chong yon-su	Jinju High School
	12	Dong Hyun-ju	Demosstration Ewha-Keumran High School,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3	Han Manki	Siilim High School
	14	Hwan Kyong-suk	Yognam Middle School
	15	Hwang Mihye	Heemangdae Elementary School
	16	Jang Ji-hyun	Salesian High School
	17	Je Yeon-kang	Bangbae Middle School
	18	Joen Nam-ik	Seongsan Middle School
	19	Jeon Seon-ae	Pudang High School
	20	Jeong Hye-sun	Busan International High School
	21	Jeong Min-sun	Kyeongsung Grils Vocational High School
	22	Jeong Mee Wha	Heungduk High School
	23	Joo Hyung-sook	Myeongseong Girls' High School
	24	Juji-tak	Kumho High School
	25	Jung Chan-ae	Gwangyang Jecheol Nam Elementary School
	26	Jung Jung-chaе	Daejeon Science High School
	27	Kim Boon Ok	Hanggong High School
	28	Kim Chunsoo	Seoul NA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29	Kim Dae-il	Gyeongbuk Foreign Language Highs School
	30	Kim Eun-yong	Busan Joongang Grils' High School
	31	Kim Hyeun-ju	Dongshin Middle School
	32	Kim Hyeok-hyun	Hongjae Middle School
	33	Kim In-Gon	Gwangju Jeil High School
	34	Kim In-ja	Honseung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4)	35	Kim ja-hyoung	Jemulpo High School
	36	Kim Joo-hak	Imae High School
	37	Kim Jung-suk	Incheon Cheohhak Elementary School
	38	AhnHyung Gyu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39	Kim Kweon hwan	Shinmok Middle School
	40	Kum Kyung-hwan	Sookmyung Girls' High School
	41	Kim Mi-ra	Chungnam High School
	42	Kim Mi-ran	Jeju Jungang Girls' High School
	43	Kim Mi-ryeong	Deokseung Elementary School
	44	Kim Mun-suk	Chung-ju Middle School
	45	Kim Ok-hwa	Bulgok Elementary School
	46	Kim Sang-byum	Wolbong Elementary School
	47	Kim Soon-ae	Kangsuh Middle School
	48	Kim Soon-gyo	Dongbuh Technical High School
	49	Kim Yong-on	Doksan High School
	50	Kim Youn Sik	Daljuen Elementary School
	51	Ko Kyoung-soon	Jeju Dong Elementary School
	52	Kong Soon-taek	Seosan Girls' High School
	53	Kwon Yil Seon	Pohang Jaecheol seo Elementary School
	54	Lee Bum-in	Juyeop High School
	55	Lee Jeun-shil	Seoul Gaju Elementary School
	56	Lee Ki-chool	Gyeongil High School
	57	Lee Kyeong-ae	Geumho Girls' Middle School
	58	Lee Mee-hye	Daedong Elementary School
	59	Lee Mi-sun	Guii Middle School
	60	Lee Moon-soo	Kyungbok National University Attached High School
	61	Lee Myeong-heui	Seoul Buk Technical High School
	62	Lee Yong-s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63	Lim Hyeon-suk	Kungeup Seo Elementary School
	64	Lim Jinmi	Bugwang High School
	65	Lim Sung-Deuk	Daegu Padong Elementary School
	66	Lim Yong-il	Gwangyang Jecheol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4)	67	MaJong-pil	Suncheon Masean Grirls' High School	
	68	Mun Jung-sang	Gilwon Jecheol Elementary School	
	69	NaKwang-il	Incheon Science High School	
	70	Nam Hengwoo	Jughwa High School	
	71	Nam Jeong-hee	Yuyung Elementary School	
	72	Nam Hu-yup	Yankhak Middle School	
	73	Oh Hui-gyeong	Neungook Elementary School	
	74	Oh Sang-jin	Hamyoang Elementary School	
	75	Park Byung-seon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76	Park Chang-ho	Cheonj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77	Park Dong-sik	SeoShim Middle School	
	78	Park Eun-Jeong	Jeongwang Middle School	
	79	Park Jeong-hye	Hakjang Girls' Middle School	
	80	Park Wi-moon	Juwon Elementary School	
	81	Park Ok-sun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82	Park Ran-joo	Daejeon Daeryong Elementary School	
	83	Park Seong-ho	Jeonju High School	
	84	Seol-yeon	Sungnam Girls' Middle School	
	85	Shim Woan-gyu	Majeon Elementary School	
	86	Shin Jing-suk	Sangdnag Middle School	
	87	Shin Kyeong-hee	Seogwipo Boys' Middle School	
	88	Sin young-gil	Dongma Middle school	
	89	Sonsun-mi	Seoul Onsu Elementary School	
	90	Yi Chong-nim	Seoil Middle School	
	91	Yoo Jae-ho	Affiliated High School t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92	Yoon Hwa-shin	Singok Middle School	
	93	Youn Hi-gyeong	Seogok Elementary School	
	94	Youn hyang-ok	Seoul Samjung Elementary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HR development(2)	1	Lim Sungbin	Ministry of Education, HR developmentt, Hongik University
		2	Yoo Ji-wan	Ministry of Education, HR development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2)	1	Kang Dai-geu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	Cho Woo-ji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3	Song Jong-ji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CCU(6)	1	Sato Kunio	-
	2	Miyauchi Mitsuyoshi	General Affairs Department
	3	Kimura Masatsugu	Planning Division
	4	Ikezoe Takamichi	Planning Division
	5	Suzuki Kaoru	Planning Division
	6	Kato Kumiko	Planning Division
2005			
방일(95)	1	Ahn Soonju	Dongbaek Elementary School
	2	Bae Euisuk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3	Byun Sooran	Modeok Elementary School
	4	Choeng Eunye	Banmpo High School
	5	Cho Yeonju	Incheon Buheung Elementary School
	6	Cho Nami	Kyunghee Elementary School
	7	Cho Donggwan	Ilgok Elementary School
	8	Cho Youngchul	Munsan Girls' High School
	9	Chooi Seonhee	Gyeongnam Girls' Middle School
	10	Choi Sujeung	Obang Elementary School
	11	Choi Heejeong	Demonstration High School, College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2	Choi Sujung	Juangwang Middle School
	13	Choi Yeongseok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14	Kang Ilsoon	Jeonju Junuil Elementary School
	15	Han Lana	Gyeongii Doksung Elementary School
	16	Heo Youngcheol	Dongseong Elementary School
	17	Hong youngjoo	Gongsan High School
	18	Hong Seongheui	Seondong Mechanical High school
	19	Hwang Daesoo	Sabuk Elementary School
	20	Jung Jinbaik	Dongdaejeon High School
	21	JIn Joowon	Korea Culinary Arts and Sciences High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5)	22	Jo Youngmin	Jeonnam High School
	23	Jung Mijin	Jungsan High School
	24	Kang Eunhee	Chanwon Yongho High School
	25	Kang Eunkyong	Jeju Jeil Middle School
	26	Kang Nammi	Seoul Myongwon Elementary School
	27	KIm Doyoung	Namseung Girls' High School
	28	Kim Aeree	Inji Middle School
	29	Kim Inyoung	Chungju Yesung Girls' High School
	30	Kim Duckyeo	Bongheong Elementary School
	31	Kim Myogene	Kangnam Public Elementary School
	32	Kim Sungnam	Deungwon Middle School
	33	Kim Sanghee	Doonchon Middle School
	34	Kim Hyeja	Hampyeong Wolya Middle School
	35	Kim youngsook	Changpyeong Middle School
	36	Kim Hyunjung	Cheonju High School
	37	Kim Byungju	Dongshim Middle School
	38	KIm Miyong	Muallae Middle School
	39	Kim Younghwa	Seoul Youngjoong Elementary School
	40	Kim Hakchoo	Woosong High School
	41	KIm Sangho	GImpo Daemyeong Elementary School
	42	Kim Yousu	Yeonse Elementary School
	43	Kim Gilwon	Gyeongii High School
	44	Kim Dong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45	Kim Ikhwan	Cheongj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46	Kim Ho	Dongil High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47	Koh Hyunwall	Ojeon Elementary School
	48	Kwon Hyokschin	Incheon Daegeon High School
	49	Kwon Sonnae	Gaepo Middle School
	50	Kwon Kaewan	Kumgo High School
	51	Lee Junghee	Gwangyang jecheol Nam Elementary School
	52	Lee Hyunchu	Seoul Nam Elementary School
	53	Lee Jlyeon	Buan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5)	54	Lee Yeonhee	Gwacheon High School
	55	Lee Gahi	Changpo Middle School
	56	Lee Chinho	Jeonju Nam Middle School
	57	Lee Miseon	Imae High School
	58	Lee Changsook	Jochiwon Girls' High School
	59	Lee Jeonghwa	Daedok High School
	60	Lee Aeja	Jeonju High School
	61	Lee Aeran	Seou; Gwangjin Special School
	62	Lee Yujin	Seoul Shimyung Elementary School
	63	Lee Youngah	Seollin Middle School
	64	Lee Sunyoung	Seoul Junggok Elementary School
	65	Lee Sangbock	Kyeongbuk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66	Lee Jaeyoung	Seogwipo Middle School
	67	Lee Jeonwoo	Yeongdo Middle School
	68	Lee Gyuman	Suji Elementary School
	69	Lee Eunchang	Gwangju Elementary School
	70	Lee Yonglae	Youngwon Middle School
	71	Lim Tae heui	Daedong High School
	72	Moon Inman	Gyeongb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73	Na misuk	Ilsan Middle School
	74	Oh Hyanghwan	Yongnam Middle School
	75	Park Munsook	Jeju Dong Elementary School
	76	Park Heeyeol	Munjang Elementary School
	77	Park Jlnok	Seoul Wlrye Elementary School
	78	Park Jeongwoon	KImhwa Girls' Middle School
	79	Park Byounggho	Bokdae Middle School
	80	Ryou Jaejeong	Sillim High School
	81	Seo Jungae	Jangryang Elementary School
	82	Seo Hyelim	Busan Gukjae High School
	83	Seol Jeongyoon	Kaggol Elementary School
	84	Shim Eunsook	Paju Girls' Middle School
	85	Shin Jaeyoung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95)	86	Sim Hyejeong	Cheongun Middle School
	87	Son Hyeonjeong	Busan Yongin Middle School
	88	Song Changyong	Eonyang Elementary School
	89	Son Kwonmok	Daegu Technical High School
	90	Seok EUunjoo	Pohang Jecheol Seo Elementary School
	91	Yi Sokheui	Jinju-Hyekwang Special School
	92	Yoo Konshik	Sungkwang Girls' High School
	93	Youn Hackjoong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94	Park Jongdae	Affiliated High School with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95	Do Jaewon	Geochang High School/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inistry of Education, HR development	1	Kang Hakrae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3)	1	Kim Jeonghyeon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	Chung Utak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3	Song Jonjin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방일 (100)	1	강사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	강상무	제주시교육청
	3	강신철	전남공고
	4	강정애	한국교원대부설고등학교
	5	강종술	서귀포초등학교
	6	강치영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7	강희창	경희초등학교
	8	곽연상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9	권도연(여)	광주시교육청
	10	권혁규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11	김경대	제주제일고등학교
	12	김경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3	김기태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4	김길회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5	김상호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16	김석윤	경상북도교육청
	17	김선봉	거창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00)	18	김성문	제주제일고등학교
	19	김숙환	영도중학교
	20	김승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1	김아란	청명고등학교
	22	김영미	문산여자고등학교
	23	김영종	포항제철서초등학교
	24	김영훈	포항제철동초등학교
	25	김영희	서울정곡초등학교
	26	김웅래	대전전민고등학교
	27	김정기	남성여자고등학교
	28	김정미	석포여자중학교
	29	김주영	안산초지초등학교
	30	김청극	청명고등학교
	31	김태진	부산국제고등학교
	32	김태형	서귀중앙여자중학교
	33	김향숙	반포고등학교
	34	나지균	이대부속고등학교
	35	노선애	경북고등학교
	36	박만규	광양제철초등학교
	37	박병상	진상중고등학교
	38	박보영	흥덕고등학교
	39	박수진	포항제철서초등학교
	40	박숙희(여)	부산시교육청
	41	박종관	한국교원대부설고등학교
	42	박진석	서울정곡초등학교
	43	박행자	매항정보고등학교
	44	배은선	숙명여자고등학교
	45	서상범	간동고등학교
	46	선광자	화순도곡중학교
	47	성윤미	안남고등학교
48	송지혜	청주외국어고등학교	
49	신동근	과천중앙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00)	50	신명수	등촌고등학교
	51	심기정	경북고등학교
	52	양정희	중산고등학교
	53	양창호	개성고등학교
	54	양홍식	거창고등학교
	55	엄경수	대성고등학교
	56	여난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57	여종구	인솔자
	58	염영희	대전전민고등학교
	59	오근량	전주고등학교
	60	우경란	영도중학교
	61	원영철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62	위경아	과천중앙고등학교
	63	유철	충청북도교육청
	64	윤형배	대구시교육청
	65	이강화	포항제철동초등학교
	66	이근평	안도금일고등학교
	67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
	68	이병석	인솔자
	69	이상진	경북외국어고등학교
	70	이석호	진주고등학교
	71	이수경	전주고등학교
	72	이승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3	이연옥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74	이영범	남성고
	75	이유경	광양제철남초등학교
	76	이재형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77	이지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8	이진송	조치원여자고등학교
	79	이춘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80	이혜경	서귀중앙여자중학교
81	임성옥	범서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00)	82	장춘자	충남고등학교
	83	장화경	수성중학교
	84	전영주	대덕고등학교
	85	전홍식	경일고등학교
	86	정선교	논산대건고등학교
	87	정순권	경기도교육청
	88	정예숙	칠성중학교
	89	정우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0	정현정	광남초등학교
	91	조남호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92	조옥경	봉명초등학교
	93	조월숙	대구고등학교
	94	진영부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95	차세일	숙명여자고등학교
	96	천오종	길원여자고등학교
	97	최선도	수성고등학교
	98	최순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9	최종갑	경기여자고등학교
	100	한정희	금호고등학교
방한(25)	1	구사하라 가츠히게	Vice President: Takusyoku University, President: Takusyoku University Hokkaido College
	2	이케다 고이치	Sapporo Shinryo Higashi Elementary School
	3	구니타다 히사코	Atago Junior High School
	4	다키쿠 히토시	Hokkaido Sapposo Okadama Senior High School
	5	니노미야 노리코	Tomigaya Elementary School
	6	소바지마 이쿠오	Takatsuki Municipal Tomigaya Elementary School
	7	노무라 마사히코	Takatsuki Municipal Takatsuki Junior High School
	8	시와 토시아	Tottori Prefectural Karo Elementary School
	9	하마나카 타미코	Yurihamacho Tomari Elementary School
	10	도키 에리미	Yonago School for Handicapped Children
	11	오쿠보 사토루	Kumamoto Prefectural Kumamoto Senior High School
	12	미스미 요지	Uto Municipal Oda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25)	13	나가카와 요시로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14	소노야마 나오키	Chofu Municipal Ishiwara Elementary School
	15	야마다 가츠유키	Adachi Ward Dai-Yon Junior High School
	16	시무라 슈지	Tokyo Metropolitan Kodaira Senior High School
	17	이이지마 마코토	Koshigaya Municipal Huji Junior Elementary School
	18	가토 케이	Shinjyuku Municipal Nishitoyama Elementary School
	19	테지마 도시오	Koto Municipal Shinonome Elementary School
	20	사메지마 교이치	Nara Women's University Secondary School
	21	니시아마 가즈노리	Senior Specialist for Exchange of Personnel,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MEXT
	22	히마타 에리코	Official, Office of Director-General for International Affairs, MEXT(Programme officer, Japa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3	도쿠나라 아키히코	Unit Chief, Planning Coordination Section, Personnel Division, Minister's Secretariat, MEXT
	24	오하시 치호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ACCU)
25	나카지마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ACCU)	

2006 - 2007

방일(160)	1	전성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김태훈	교육인적자원부
	3	문용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4	강상무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5	고향숙	광주광역시교육청
	6	김용무	남성여자고등학교
	7	김종열	초지초등학교
	8	김학렬	논산고등학교
	9	김화석	충청북도교육청
	10	류상렬	경상북도교육청
	11	박보영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2	박태동	개성고등학교
	13	백은희	금정고등학교
	14	서종일	서울특별시교육청
	15	소상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60)	16	송한규	조치원여자고등학교
	17	신종국	부산광역시교육청
	18	안기근	전라북도교육청
	19	안상홍	경일고등학교
	20	오말례	울산광역시교육청
	21	유기동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22	이옥주	충청남도교육청
	23	이철영	백신고등학교
	24	이해용	대전광역시 중부교육청
	25	이협주	대전노은고등학교
	26	임홍빈	상당고등학교
	27	장민훈	경기도 부천교육청
	28	장승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9	정의정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30	정재열	경상남도 마산교육청
	31	진난미	대전어은중학교
	32	탁창식	강원도교육청
	33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4	김성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5	강경필	금정고등학교
	36	강미혜	진주고등학교
	37	강상식	과천중앙고등학교
	38	김미숙	관악고등학교
	39	김성희	덕신고등학교
	40	김애라	장영실과학고등학교
	41	김인수	부흥고등학교
	42	김진숙	전주고등학교
	43	문재성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44	박성기	하남고등학교
	45	박지성	현경고등학교
	46	신기석	백신고등학교
	47	안성명	흥덕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60)	48	오경보	서귀포고등학교
	49	왕현아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50	우강희	청주외국어고등학교
	51	윤광호	경북고등학교
	52	윤종웅	중산외국어고등학교
	53	윤종준	충남고등학교
	54	이수철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55	이숙	성남여자고등학교
	56	임동순	대덕고등학교
	57	임연숙	화순실업고등학교
	58	정성진	동아여자고등학교
	59	조공주	등촌고등학교
	60	조병제	개성고등학교
	61	조양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62	차준식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63	최인규	남성여자고등학교
	64	홍경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65	송종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6	김동환	교육인적자원부
	67	강완규	천안봉서중학교
	68	권민정	신반포중학교
	69	김석주	신일중학교
	70	김선희	서귀포중학교
	71	김종열	군산중학교
	72	김종철	물금동아중학교
	73	김화순	한림여자중학교
	74	박은주	지산중학교
	75	박정은	경남중학교
	76	박종선	동작중학교
77	박철옥	시흥은행중학교	
78	사미경	수성중학교	
79	서현수	신선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60)	80	신계현	의왕중학교
	81	신미경	선인중학교
	82	신인숙	전남중학교
	83	신정아	창평중학교
	84	안희성	대전외삼중학교
	85	엄영남	학장중학교
	86	오희숙	부산국제중학교
	87	유윤식	송학중학교
	88	윤미애	문화중학교
	89	윤종영	구산중학교
	90	이경화	심원중학교
	91	이지숙	해미중학교
	92	이현호	한송초중학교
	93	조병지	강릉동명중학교
	94	한선혜	영도중학교
	95	황의승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96	황혜린	울산이화중학교
	97	신종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8	김은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9	강동수	강신초등학교
	100	고광병	대전둔원초등학교
101	김명련	신방초등학교	
102	김명숙	거제애광학교	
103	김성일	갑룡초등학교	
104	김윤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105	남궁호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06	박상석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107	박인형	금양초등학교	
108	서민지	서울수송초등학교	
109	신은순	대흥초등학교	
110	안동순	서천초등학교	
111	안은주	서해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60)	112	양형욱	목포이로초등학교
	113	여미경	일산초등학교
	114	이경수	인천마장초등학교
	115	이미정	대구인지초등학교
	116	이영민	서울북가좌초등학교
	117	이유진	산성초등학교
	118	이자연	서울정곡초등학교
	119	이창희	서울길음초등학교
	120	임문영	송내초등학교
	121	임은경	광양제철남초등학교
	122	장소영	동백초등학교
	123	정현진	송우초등학교
	124	정호승	초지초등학교
	125	지선아	복창초등학교
	126	진병순	금호초등학교
	127	허혜숙	삼어초등학교
	128	홍은미	인천부개초등학교
	129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30	한영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31	강미영	전라북도외국어고등학교
	132	강상무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33	강석주	제주제일고등학교
	134	김경탁	대전어은중학교
	135	김민경	서울원목초등학교
	136	김시구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
	137	김재식	당진초등학교
	138	김정원	경일고등학교
	139	김지선	금호고등학교
	140	문현정	숙명여자고등학교
	141	박상순	상당고등학교
	142	박상용	대원고등학교
	143	박수진	춘천오동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60)	144	박재영	김해동광초등학교
	145	박혜선	민족사관고등학교
	146	사명기	흥덕고등학교
	147	서경숙	운남고등학교
	148	설태수	고성대진고등학교
	149	손석현	군위중학교
	150	안금자	포항제철서초등학교
	151	양승관	청명고등학교
	152	유지후	대성고등학교
	153	이명은	서울정문학교
	154	이선미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55	이선희	천안월봉고등학교
	156	이수맹	부산국제중학교
	157	이종화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
	158	임형중	대전노은고등학교
	159	조은경	전주근영중학교
160	한중락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방한(28)	1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2	사가라 노리아키	교토 노틀담 대학
	3	다라하시 야스코	동경 시노부가오카 고등학교
	4	기시카와 다카시	동경 미디어이 중학교
	5	가사이 겐조	동경 신주쿠 중학교
	6	오자키 마나부	홋카이도 시베쯔시 교육위원회
	7	도야마 신이치	홋카이도 시베쯔 미나미 초등학교
	8	이와부치 히데이치	홋카이도 에베쯔 고등학교
	9	오오바 히데데카	홋카이도 신료 히가시 초등학교
	10	쯔지마사미쯔	나라 쓰바이초등학교
	11	니시쿠보 에리코	나라 미야토 초등학교
	12	미즈노 미쯔요	나라 히가시 특수학교
	13	요시다 미와	나라 히가시 보통 특수학교
	14	소기 미치요	가고시마 쓰루마루 초등학교
	15	후쿠다 가즈타카	가고시마 카와나베 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28)	16	무라야마 유코	가고시마 카이요 고등학교	
	17	가시키 아키후미	가고시마현 교육위원회	
	18	나카우치 노리코	다카라즈카 지방 교육위원회	
	19	미야자와 노리타카	다카라즈카 히카리가오카 중학교	
	19	호리 에이조	다카라즈카 니가와 초등학교	
	20	가메이 류지	사이타마 오야바 중학교	
	21	하야시 수미에	사이타마현 지체장애 특수학교	
	22	다무라 도시야키	시부야 교육학원 마쿠하리 고등학교	
	23	지부 히로미	오사카 교육대학 부설 이케다 고등학교	
	24	치바 노보루	동경 가쿠게이 대학 부설 오이즈미 초등학교	
	25	이이다 가즈로	동경 가쿠게이 대학 부설 오이즈미 초등학교	
	26	다다 마유코	일본문부과학성	
	27	다나카 히로미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	
	28	후지타 요시히코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	
	방일(160)	1	Baek SEUNGHOOON	Miwon Elementary School
		2	Chang TONG MUK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3	Chang HYEYOU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lementary School
		4	Choi KYUNG MEE	Yongnam Middle School
		5	CHOO SU OK	Pohangjecheolsoo Elementary School
		6	HEO YEONG JIN	Inpyeong Elementary School
		7	KANG JUNG GIL	Kangwon National University(Samcheok Campus)
		8	KIM MEUNG SU	Seoul Sinbuk Elementary School
		9	KIM YOUNG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10	KIM YONGMAHN	HanyangHighSchoolAttachedtotheCollegeof Education, HanyangUniversity
		11	KIM KI JOONG	Sujeong Elementary School
		12	KIM HYUN JU	Hyoyang Middle School
		13	KIM SOOJA	AnrakMiddleSchool
		14	KOH EUNKYUNG	Pokchang Elementary School
15		KOH YOUNG SUG	Damyangdong Elementary School	
16		LEE HERRIE	Jowon Middle School	
17		LEE TAESEONG	Daejeon Eoeun Middle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60)	18	LEE YEONG WO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19	LEE CHUNSUK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GNUE
	20	NAM IL UH	Seollin Middle School
	21	PARK HAE PYUNG	Seoul Jung Jin Special School
	22	PARK GI CHON	Cheonma Elementary School
	23	SHIN BYEONGGU	Gwangyang Jaechul Elementary School
	24	SIN YOUN HO	Pohang Jecheol Dong Elementary School
	25	SON MOONOK	Gwangju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GNUE
	26	SON EUN SOOK	Guemrak Elementary School
	27	WON OKSOON	Busan Dongnae District of Education
	28	YANG DONG RUYEL	Nohyung Elementary School
	29	YANG SOONYI	Incheon Jackdong Elementary School
	30	YOON SUKEUN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31	YU YOUNGRAN	Seoul Samyang Elementary School
	32	SEO HYUN SOOK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33	CHIN KEEWAN	Gwangyang Jaechul Elementary School
	34	CHO HAN DUCK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35	CHOI IN SUK	Seoul Bogwang Elementary School
	36	CHUNG SEUNG JUN	Seoul Namsan Elementary School
	37	HAN JUNG MIN	Seoul Woljung Elementary School
	38	JOUNG JIN OK	Seoul Younghwa Elementary School
	39	JU EUN JEONG	Gangjin-dong Elementary School
	40	KIM CHOALNAM	Gangwon-do Taebaek Office of Education
	41	KIM DOO SAM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42	KIM EUN SI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lementary School
	43	GIM HEUI SOOK	Gwangyang Jecheolnam Elementary School
	44	KIM HYEJIN	Jundong Elementary School
	45	KIM HYO JUNG	Daegu Kyungdong Elementary School
	46	KIM HYUN JU	Kwangan Elementary School
	47	KIM SUN SOOK	Soosong Elementary School
	48	KIM YONGHAN	Pohangjecheoldong Elementary School
	49	LEE JINMYOUNG	Paekhap Elementary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60)	50	LEE SOONHWA	Bongjeong Elementary School
	51	LEE TAEGI	Eyon Elementary School
	52	LIM DONG GUN	The Attached Elementary School of GNUE
	53	NO KYUNGOK	Gyeonggido Seongnam Office of Education
	54	PARK AEJA	Yangji Elementary School
	55	PARK MIJEONG	Samgak Elementary School
	56	RA JONG KUK	Seoul Chayang Elementary School
	57	SEO JUNG AH	Jungang Elementary School
	58	SEOK JONGWOO	Cheontae Elementary School
	59	SHIN HYUNJIN	Anseo elementary school
	60	SHIN IN SEOB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
	61	SONG EUN YOUNG	Soyang Elementary School
	62	YUN JUHEE	Daegu Namyang School for Students with disability
	63	YUN JUNG A	Yangun Elementary School
	64	PARK JEONGSEOP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65	BOCK WHAN KUN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66	BYUN CHANG IK	Seogwi Jungang Girl's Middle School
	67	CHAE MYOUNGSUK	Cheongju School for the blind
	68	HONG JONGHWA	Donghae Kwanghee Middle School
	69	HWANG JAEIN	Gangdong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Seoul
	70	CHANG BOHYUN	Anrak Middle School
	71	JEON WON YOUNG	Daejeon Songgang Middle School
	72	JEON YOUNG SIN	Dae-jeon Gwan-jeo Middle School
	73	JO GYUNGHWA	Jurye Girls' Middle School
	74	KIM JISUN	Siheung Eunhaeng Middle School
	75	KIJEONG JONGDEUK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76	KIM KIJEONG	Chilsung Middle School
	77	KIM MI SOON	Bupyeong Seo Girls Middle School
	78	KIM MONGJU	Suncheon Girls' Middle School
	79	KIM RAE SEOB	Bongsan Middle School
	80	KIM YEARN IM	Daekang Middle School
81	KIM YEONHEE	Hamdeok Middle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60)	82	KO SUNGJA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83	LEE KEON-YOUNG	Daejeon Eoeun Middle School
	84	LEE KIJAE	Youngdong Middle School
	85	LEE KYOUNGMI	Munsung Middle School
	86	LEE PAN DONG	Bokdae Middle School
	87	OH KYUNGA	Yonghyun Boys' Middle School
	88	PARK HAENG RAN	Yatap Middle School
	89	PARK JEONG SOOK	Sangmo Middle School
	90	PARK JOON SANG	Daejeon Yongun Middle School
	91	PARK MILUK	Dalsung Middle School
	92	SEO HYE SOOK	Kongjin Middle School
	93	YI BYEONG SEON	Seoul Nationla University Middle School
	94	YOO SHINYOUNG	Boyoung Girls' Middle School
	95	YUNBO HYUN	Seosaeng Middle School
	96	CHUN SUNGMI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97	CHI YOUNGHO	Jeonju High School
	98	CHO JAESANG	Gaesung High School
	99	CHOI DONG SOON	Suwon Girls' High School
	100	CHOI EUNJU	Gimhae Sammoon High School
	101	JEONG JUIL	Daejeon Science High School
	102	JUNG MI RA	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
	103	JUNG TAEHO	HeungDuk High School
	104	KIM HYEON TAE	Daejeon Noeun High School
	105	KIM SO YEONG	Jowon High School
	106	KIM YONGJU	Seongchang Girls' High School
	107	KIM KEE TAG	The Affiliated High School with KNCU
	108	KIM OKHYUN	Sangdang High School
	109	KIM OK JA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110	KIM SUNYI	CheongMyeong High School
	111	KIM YOUNGWON	Hyupsung High School
112	KIM JONG RYUN	Daedeok High School	
113	LEE SONG	Keumjeong High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60)	114	LEE JOONHYOUNG	Sook Myung Grils' High School
	115	LEESANG MI	Gwacheon Joongang High School
	116	LEE HAE YEON	Osu High School
	117	LEE HYUNG MUK	Jochiwon Girls' High School
	118	LEE BYONGUK	Inch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119	LEE BOG SEOM	Jecheon Girls High School
	120	LEE SUN NYO	Chuncheon Girls' High School
	121	LIM MYUNG GYU	Yeongju High School
	122	OH SANGHUN	Geochang High School
	123	PARK YONG S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ttached High School
	124	RO HAE DU	Unnam High School
	125	SHOHN YOUNG SUNG	Cheongj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126	UM YOUNG JOO	Deungchon High School
	127	YI YONGSUB	Nonsandaegyeon High School
	128	LIM HYUN MOOK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29	LEE SAMUE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30	BAIK OKRYEON	Yangji High School
	131	BYUN HOUSUN	Jochiwon Girls' High School
	132	CHUNG KUNSANG	Daejeon Noeun High School
	133	HAM DONG WOO	Byeongcheon High School
	134	HONG SEOUNG SU	Chonnam Science High School
	135	JEON CHANG HO	SNU High School
	136	JEONG TAK MO	HeungDuk High School
	137	JUNG JIYUN	Ulsan Information Communication High School
	138	KANG MIKYONG	Hamyel High School
	139	KIM KYEONG SHIK	Gwacheon Joonang High School
	140	KIM JEONGGYUN	Gyeong-il High School
	141	KIM AE HEE	Geochang High School
	142	KIM JUNHWI	Jungsan High School
	143	KIM FAN GYO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144	KIM WOOTAE	Inchon Yeil High School	
145	KIM SEOK JIN	Namsung Girls' High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60)	146	KWAK SUJUN	The Affiliated High School with KNCU
	147	LEE DAL HOON	CheongMyeong High School
	148	LEE SANGHYUN	Daegu Seobu High School
	149	LEE HYUN JOO	Samhyun Girls' High School
	150	LEEM SON BEUM	Nonsan High School
	151	LEEM JONG SUN	Pui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152	NAH BYUNG YUL	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
	153	NA EUN JUNG	Sangdang High School
	154	OH CHAE HYUN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155	PARK HO JOON	Keumjeong High School
	156	PARK SUN YOUNG	Gwangju Daedong High School
	157	YANG SOOK JA	Jeju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158	YEO DONGHOON	Gaesung High School
	159	YO HA YOUNG	Cheongj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160	SONG JONG JI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방한(52)	1	고자와 기미코
2		이라이 테쓰오	群馬大学教育学部附属小学校 (군마대학교교육학부부속초등학교)
3		마세 아쓰코	江東区立東雲小学校 (고토구립시노노메초등학교)
4		유키 시노부	啓明学園初等学校 (게이메이학원초등학교)
5		이라이 나오시	筑波大学附属中学校 (쓰쿠바대학교부속중학교)
6		가쓰타 도시유키	足立区立第四中学校 (아다치구립제4중학교)
7		사시키 히토미	秋田県立博物館 (아키타현립박물관)
8		사토 가오루	秋田県立秋田明德館高等学校 (아키타현립 아키타메이토쿠칸고등학교)
9		나카무라 다카시	群馬大学教育学部附属幼稚園 (군마대학교교육학부부속유치원)
10		이라이 다카토	富岡市立小野小学校 (도미오카시립오노초등학교)
11		니카타니 이즈미	気仙沼市立松岩小学校 (게센누마시립마쓰이와초등학교)
12		오노데라 다카코	気仙沼市立中井小学校 (게센누마시립나카이초등학교)
13		후지무라 도시미	気仙沼市教育委員会 (게센누마시교육위원회)
14		고지마 사치코	さいたま市立泰平中学校 (사이타마시립다이헤이중학교)
15		히리카에 가쓰미	さいたま市立養護学校 (사이타마시립양호학교)
16		다이쿄쿠 스미에	宝塚市立養護学校 (다카라즈카시립양호학교)
17		미에다 유지	宝塚市立光ヶ丘中学校 (다카라즈카시립 히카리가오카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2)	18	스기야마 가오리	宝塚市立末広小学校 (다카라즈카시립 스에히로초등학교)
	19	사시하라 도요조	広島大学附属中高等学校 (히로시마대학교부속중고등학교)
	20	후지오카 다카시	八王子高等学校 (하치오지고등학교)
	21	오카다 미유코	大阪府立北淀高等学校 (오사카부기타요도고등학교)
	22	요네다 첸조	羽衣学園高等学校 (하고로모학원고등학교)
	23	이타쿠라 나오토	神戸市立葺合高等学校 (고베시립후기아이고등학교)
	24	가니자와미도리	海田町立海田東小学校 (가이타정립(町立) 가이타히가시초등학교)
	25	가와쿠보 유리코	文部科学省 (문부과학성)
	26	기무라 마사쓰구	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27	데라키 슈이치	調布市立布田小学校 (초후시립후다초등학교)
	28	마에강하 히데오미	渋谷区立鳩森小学校 (시부야구립하토모리초등학교)
	29	후카이시 준코	青山学院中等部 (아오야마학원중등부)
	30	야마구치 야스히로	筑波大学附属中学校 (쓰쿠바대학교부속중학교)
	31	이시바시 가즈코	東京都立忍岡高等学校 (동경도립시노부가오카고등학교)
	32	다나카 노리카즈	秋田県立養護学校 天王みどり学園 (아키타현립양호학교 덴노미도리학원)
	33	모치다 아카히로	秋田県立横手清陵学院高等学校 (아키타현립요코테세이료학원 고등학교)
	34	이시히라 다키시	群馬大学教育学部附属 特別支援学校 (군마대학교교육학부부속 특별지원학교)
	35	모테키 히로아키	富岡市立東中学校 (도미오카시립히가시중학교)
	36	구리하라 히토시	渋川市立古巻小学校 (시부카와시립후루마키초등학교)
	37	히티케야마 미치코	気仙沼市立鹿折小学校 (게센누마시립시시오리초등학교)
	38	시리쿠라 다카히로	気仙沼市立面瀬小学校 (게센누마시립오모세초등학교)
	39	오이카와 유키히코	気仙沼市立中井小学校 (게센누마시립나카이초등학교)
	40	아사노 료	気仙沼市教育委員会 (게센누마시교육위원회)
	41	이와시키 유미코	さいたま市立泰平小学校 (사이타마시립다이헤이초등학교)
	42	혼다 요시타카	宝塚市立南ひばりが丘中学校 (다카라즈카시립 미나미히바리가오카중학교)
	43	나가노 히사코	宝塚市立中山五月台幼稚園 (다카라즈카시립 나가야마사쓰키다이유치원)
	44	히라야마 신	宝塚市教育委員会 (다카라즈카시교육위원회)
45	미야모토 아키오	大竹市立栗谷小学校 (오타케시립구리타니초등학교)	
46	기타오 사토루	奈良女子大学附属中等教育学校 (나라여자대학교부속중등교육학교)	
47	고노 요시후미	広島大学附属中高等学校 (히로시마대학교부속중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2)	48	구와바라 요시테루	大阪教育大学附属高等学校 池田校舎 (오사카교육대학교부속고등학교 이케다교정)
	49	이나부 준	和歌山県立古座高等学校 (와카야마현립고자고등학교)
	50	아히로 시게코	奈良教育大学附属中学校 (나라교육대학교부속중학교)
	51	우라타 하루카	文部科学省 (문부과학성)
	52	후지타 요시하코	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2008 - 2009			
방일(150)	1	최성광	광주동곡초등학교
	2	최선정	공주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3	홍리경	제주영지학교
	4	황인성	대전광역시교육청
	5	장영수	충청북도교육청
	6	정영익	연무중앙초등학교
	7	강은하	부평초등학교
	8	김춘희	미원초등학교
	9	김은희	고아초등학교
	10	김기정	제주동초등학교
	11	김순옥	대전가오초등학교
	12	곽영량	남산초등학교
	13	이동연	옥서초등학교
	14	이인선	인평초등학교
	15	이광일	진평초등학교
	16	이미정	수원율전초등학교
	17	류철섭	경상북도교육청
	18	임진수	서울특별시교육청
	19	나은경	영광초등학교
	20	박정미	서울덕의초등학교
	21	박영림	서울청파초등학교
	22	노훈준	인천용유초등학교
	23	신현인	경상남도창녕교육청
	24	손미옥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25	송경민	남원대산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26	성점배	포항제철동초등학교
	27	유진호	인천광역시교육청
	28	심민철	안동대학교(교육과학기술부)
	29	이경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0	송종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1	박철암	제주시교육청
	32	정찬호	경기도교육청
	33	최수진	서곡초등학교
	34	최창준	광양제철남초등학교
	35	하정현	창진초등학교
	36	황상순	울산광역시교육청
	37	장현주	영주동부초등학교
	38	전은정	동수원초등학교
	39	정재훈	대구운암초등학교
	40	강동철	신광초등학교
	41	김진석	입장초등학교
	42	김광태	인천영종초등학교
	43	김미애	구미초등학교
	44	김미실	제천중앙초등학교
	45	김미원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46	김나영	경남혜림학교
	47	김원경	녹번초등학교
	48	김윤희	전주송원초등학교
	49	이봉국	강원도 교육청
	50	이을순	광주서석초등학교
	51	이옥임	광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52	남선아	양지초등학교
	53	박종두	대구다사초등학교
	54	박선미	대전문정초등학교
	55	서영오	인천옥련초등학교
	56	손춘희	북창초등학교
	57	양병숙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50)	58	이선심	천태초등학교
	59	윤명자	서울신방학초등학교
	60	임시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1	변현희	이동중학교
	62	채선미	잠원중학교
	63	조윤주	유봉여자중학교
	64	조기식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65	허영	금일중학교
	66	홍원표	성명여자중학교
	67	홍성혁	대전외삼중학교
	68	현승익	효양중학교
	69	임정현	월촌중학교
	70	장진환	대전어은중학교
	71	정미숙	선린중학교
	72	강명화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73	강지애	운리중학교
	74	강효순	동아중학교
	75	곽상학	선린중학교
	76	김근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77	고신택	저청중학교
	78	이홍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79	이준웅	화정중학교
	80	이재풍	부산서중학교
	81	이원주	부산국제중학교
	82	이영렬	아라중학교
	83	임일균	천안봉서중학교
	84	임영아	성안중학교
	85	남윤희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86	박경란	여수중앙여자중학교
87	신현무	서울정진학교	
88	성종규	학장중학교	
89	윤재일	조천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90	양혜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91	차말단	산마을고등학교
	92	조중배	군산여자고등학교
	93	엄세용	민족사관고등학교
	94	홍은숙	계산여자고등학교
	95	장세근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96	정순성	개성고등학교
	97	조창영	전라남도교육청
	98	김은정	강원명진학교
	99	김혜진	대덕고등학교
	100	김형태	원화여자고등학교
	101	김재익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02	김경희	대전노은고등학교
	103	김나영	부산국제고등학교
	104	김새로나	김해외국어고등학교
	105	고옥현	부흥고등학교
	106	권정건	경일고등학교
	107	이철훈	중산고등학교
	108	이중희	조치원여자고등학교
	109	이행자	수원속지고등학교
	110	이기목	길원여자고등학교
111	이선정	상당고등학교	
112	문호주	남성여자고등학교	
113	오인호	전주영생고등학교	
114	박희순	청명고등학교	
115	신경희	충청남도교육청	
116	손수연	논산고등학교	
117	선은규	광양고등학교	
118	윤혜옥	화천고등학교	
119	김규태	교육과학기술부 제주대학교	
120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21	이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50)	122	홍원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23	정대인	상당고등학교
	124	정도영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125	조정훈	숙명여자고등학교
	126	강희숙	과천중앙고등학교
	127	김동룡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28	김효영	부산교육연구정보원
	129	김홍수	문산여자고등학교
	130	김종석	남성여자고등학교
	131	김선미	충남고등학교
	132	김용철	중산고등학교
	133	김영학	백양고등학교
	134	김윤경	청명고등학교
	135	이창걸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136	이대성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137	이해경	금산여자고등학교
	138	이재철	흥덕고등학교
	139	이지영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40	이승아	경북외국어고등학교
	141	이욱	원화여자고등학교
142	이영동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43	임정희	서울정진학교	
144	박철기	금호고등학교	
145	서울임	기전여자고등학교	
146	유은정	군산여자고등학교	
147	유상철	거창고등학교	
148	윤선주	강진고등학교	
149	윤영소	산마을고등학교	
150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한(53)	1	KISO Isao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Japanes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	TEJIMA	Toshio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3)	3	MASUDA Masao	Tamagawa Academy
	4	TSUCHIYAYoshiji	Life study section, Nishigo Villagge Board of Education
	5	FUKAYA Shoji	Nishigo Village Kawatani Junior High School (Fukushima Prefecture)
	6	NAKASHIMA Shingo	Chubu University Daiichi High School
	7	NISHIMURA	Fumihiro
	8	TANABE	Rika
	9	IIJIMA	Makoto
	10	TORIUMI Kazumi	Nara City Tawara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Nara Prefecture)
	11	MATSUMOTO	Yasukazu
	12	KAWAI Hiroshi	Nara Prefectural Naranishi Special Needs Education School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13	YAMAMOTO Atsumi	Kochi Prefectural Kochi School for the Hearing Impaired
	14	TANI Fuki	Kochi Prefectural Nakamura Senior High School
	15	YAMADA Noriaki	High School Education Division, Kochi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16	KAWAGUCHI Kazutoshi	Kumamoto Prefectural Uto Senior and Junior High School
	17	INOKUCHI Hiroshi	Misato Town Tomochi Elementary School (Kumamoto Prefecture)
	18	SHIOMURA Katsunori	Kumamoto Prefectural Education Center
	19	MATSUSHITA Takeshi	Sendai City Nakano Elementary School (Miyagi Prefecture)
	20	YAMAUCHI Seiko	Kesenuma City Shishiori Elementary School (Miyagi Prefecture)
	21	KUMAGAI Takeya	Kesenuma City Omose Junior High School (Miyagi Prefecture)
	22	SAIKA	Yasuko
	23	MATSUURA Shin	Nara City Asuka Elementary School (Nara Prefecture)
	24	WATANABE Hitoshi	Marumori Town Marumori Higashi Junior High School (Miyagi Prefecture)
	25	SHIMIZ Norihiko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26	IIDA Kazuro	Schoo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Nara University of Education
	27	KOTANI	Masahiko
	28	ISHIDA Katsunori	Ikubunkan Institute of Education
	29	KIM Seng Jun	Human right Education Division, Toyonaka city Board of Education
	30	TSUCHIYA Keiko	Nishigo Village Kumakura Elementary School (Fukushima Prefecture)
	31	TAKANO	Toshimasa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3)	32	TAKAHASHI Naoko	Shiroishi City 2nd Elementary School (Miyagi Prefecture)
	33	KOBAYASHI Ryota	Saitama City Ohara Junior High School
	34	SUGAWARA Susumu	Kesenuma City Board of Education
	35	KASUYA	Michiko
	36	KIGUCHI Atsushi	Nara City Tawara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37	ASAI Ryosuke	Nara City Tomiominami Junior High School (Nara Prefecture)
	38	KOHNO Shinya	Nara City Seibi Elementary School (Nara Prefecture)
	39	IKEZOE Kazuhiro	Kochi Prefectural School for the Visually impaired
	40	TANAKA Kazue	Kochi Prefectural Susaki High School
	41	MIZUTA Naoki	Kochi Prefectural Hata Agricultural High School
	42	ANAN	Seiichiro
	43	HAYASHIDA Toshirou	Kumamoto Prefectural Special School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44	OGATA	Kohsuke
	45	MATSUOKA Toshiaki	Fukuyama City Utsumi Elementary School (Hiroshima Prefecture)
	46	HIRAI	Yoshihiro
	47	HARADA Masukatsu	Osaka Prefectural Sumiyoshi High School
	48	IWATSUKI	Masashi
	49	CHIBA Keiko	Kesenuma City Ohshima Elementary School (Miyagi Prefecture)
	50	YOSHIOKA Mutsumi	Nara University of Education Junior High School
	51	KAJIYAMA Kosei	Hiroshima Universit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52	SHIBANUMA Mutsumi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53	OISHI Aiko	Planning Division,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2010			
방일(150)	1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배영철	안동영명학교
	3	조덕형	인천왕길초등학교
	4	최연규	혜화초등학교
	5	하정임	장서초등학교
	6	현길자	노형초등학교
	7	전상우	충무초등학교
	8	정규명	송림초등학교유부도분교장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9	정영봉	인평초등학교
	10	김형수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11	김광래	서귀포시교육청
	12	김민성	무거초등학교
	13	지오식	안동영명학교
	14	곽원규	평창초등학교
	15	권오범	대전해광학교
	16	이수연	서울덕의초등학교
	17	이영순	서울정진학교
	18	문정숙	해운대교육청
	19	박혜령	광주백운초등학교
	20	박지영	안동영호초등학교
	21	박선경	용성초등학교
	22	박순연	호원초등학교
	23	박성현	상일초등학교(우포생태교육원)
	24	이영란	서울도림초등학교
	25	심외수	용연초등학교
	26	성종복	경상남도통영교육청
	27	윤재열	대전시교육청
	28	윤수한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9	윤보연	각골초등학교
	30	이선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1	안순남	수원신곡초등학교
	32	차향선	서울봉래초등학교
	33	조영임	광주광역시교육청
	34	최병섭	김해합성초등학교
	35	최다영	서울청파초등학교
	36	김미영	남대구초등학교
	37	주효정	전주중앙초등학교
	38	강정이	백록초등학교
	39	강민선	군산수송초등학교
	40	김하철	구성초양각분교장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50)	41	김종철	인천용현남초등학교
	42	김민자	백제초등학교
	43	김선호	옥포초등학교
	44	김영규	제주동초등학교
	45	김영경	유촌초등학교
	46	김영실	사임당교육원
	47	곽병남	양산초등학교
	48	이보령	경기도교육청
	49	이준호	대덕초등학교
	50	이순기	대구경동초등학교
	51	이성근	인평초등학교
	52	임채덕	울산시교육청
	53	임지애	서울석계초등학교
	54	박성웅	여수서초등학교
	55	박소정	의정부부용초등학교
	56	라기정	강릉중앙초등학교
	57	송광희	염포초등학교
	58	여진숙	서울덕의초등학교
	59	강구도	교육과학기술부
	60	김명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1	최현숙	상당중학교
	62	최진영	봉림중학교
	63	최연옥	영광홍농중학교
	64	한상재	전북중학교
	65	홍죽희	함덕중학교
	66	현혜경	조천중학교
	67	장정현	통영여자중학교
	68	정은영	서울정진학교
	69	지명자	인천상정중학교
	70	조백현	조원중학교
	71	정경자	조천중학교
	72	정성용	용암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73	김애순	운남중학교
	74	김창균	광주북성중학교
	75	김다영	시흥은행중학교
	76	김미정	순천풍덕중학교
	77	김미선	후평중학교
	78	김용년	대전어은중학교
	79	김윤희	수일여자중학교
	80	경혜영	시흥은행중학교
	81	이장우	통영여자중학교
	82	이숙경	개웅중학교
	83	오민숙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84	오영규	청구중학교
	85	박은경	용성중학교
	86	서경전	성포중학교
	87	서미영	대구일중학교
	88	서태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89	손영하	법성중학교
	90	김광현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91	배지혜	서울정문학교
	92	백연재	등촌고등학교
	93	조현구	부산혜성학교
	94	조용민	수원여자고등학교
	95	최원범	안면고등학교
	96	하경식	경상남도교육청
	97	홍지표	충청북도청주교육청
	98	장정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99	정미영	전주고등학교
	100	강덕수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01	강종민	밀양여자고등학교
	102	강순옥	충주성모학교
	103	고영득	대성고등학교
	104	김동필	영진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50)	105	김정미	속초고등학교
	106	김태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107	김태균	갈산고등학교
	108	김태진	경상북도교육청
	109	김원호	원화여자고등학교
	110	권혁정	문산여자고등학교
	111	이강서	논산고등학교
	112	이미예	청명고등학교
	113	임희경	경일고등학교
	114	목종욱	부산국제고등학교
	115	문현정	숙명여자고등학교
	116	손미현	한국테크노과학교등학교
	117	양남근	전라남도교육청
	118	윤정일	민족사관고등학교
	119	정민웅	교육과학기술부
	120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21	박종찬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122	조규호	산마을고등학교
	123	최은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24	한정수	산마을고등학교
	125	한상익	안곡고등학교
	126	허지영	중산고등학교
	127	정해중	대덕고등학교
	128	전은숙	숙명여자고등학교
	129	강요식	서울시교육청
	130	김희관	부산국제고등학교
	131	김정수	문산여자고등학교
	132	김지수	제주고등학교
	133	김태욱	부흥고등학교
	134	김용무	남성여자고등학교
	135	김영익	수원외국어고등학교
	136	권정화	대전노은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137	권오민	마산제일고등학교
	138	이혜숙	충청남도교육청
	139	이명희	등촌고등학교
	140	이상민	다운고등학교
	141	이성숙	경상북도안동교육청
	142	이은숙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143	이용환	남성고등학교
	144	박천영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145	박현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46	박재홍	대구광역시교육청
	147	박진우	경일고등학교
	148	송세경	전라북도교육청
	149	우명숙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
	150	장수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한 (53)	1	坂口 一美 (사카구치 히토미)
2		平松 正昭 (히라마쓰 마사아키)	와카야마현립세이린고등학교
3		阿部 陽 (아베 히로시)	이와누마시립이와누마중학교
4		羽鳥 紀子 (하토리 노리코)	시나가와구립소중일관교이토학원
5		林 誠 (하야시 마코토)	지바현립이치카와니시고등학교
6		井本 章子 (이모토 아키코)	나라시립쓰키가세중학교
7		入江 陽子 (이리에 요코)	아라카와구립제9중학교야간학급
8		石丸 新吾 (이시마루 신고)	도요나카시립신덴소학교
9		岩郷 寛 (이와고 히로시)	가나자와시립가나자와마치소학교
10		紀恵 (이즈미 도시에)	가나자와시립도이타소학교
11		加茂 眞由美 (가모 마유미)	와카야마현립구시모토고자고등학교
12		菅野 宏明 (간노 히로아키)	게센누마시립게센누마소학교
13		金生 遵 (김생준)	도요나카시교육위원회인권교육기획과
14		京 俊彦 (교 도시히코)	오사카부립스미요시고등학교
15		南垣内 智宏 (미나미가이토 도모히로)	오사카부립스미요시고등학교지도과
16		宮崎 大輔 (미야자키 다이스케)	쓰쿠바대학부속고마바중·고등학교
17		森田 太郎 (모리타 다로)	오가사와라촌립하하지마소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3)	18	中川 素 (나카가와 하지메)	나라시립쓰바이소학교
	19	奥田 彰 (오쿠다 아키라)	오사카부립나가노고등학교
	20	齊藤 浩 (사이토 히로시)	게센누마시립니쓰키중학교
	21	笹川 清喜 사사가와 세이키	시부야교육학원마쿠하리중고등학교
	22	杉山 裕 스키야마 유지	오사카부립니시노다공과고등학교
	23	渡辺 美千代 와타나베 미치요	게센누마시립시시오리소학교
	24	渡辺 実 와타나베 미노루	게센누마시립오치아이소학교
	25	八木 五十鈴 야기 이스즈	에도구립시노메소학교
	26	植村 正樹 우에무라 마사키	文部科学省 日本ユネスコ国内委員会 (문부과학성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27	島津 正數 시마즈 마사카즈	재단법인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28	俊治 다나베 순지	金沢大学 人間社会研究域 学校教育系 (가나자와대학인간사회연구역 학교교육계)
	29	阿部 行広 아베 유키히로	게센누마시립하시카미중학교
	30	有馬 一彦 아리마 가즈히코	나라교육대학부속중학교
	31	福原 量子 후쿠하라 가즈코	豊中市立上野小学校 (도요나카시립우에노소학교)
	32	畑 和郎 하타우에 가즈로	와카야마현립구시모토고자고등학교고자분교사
	33	伊地智 咲 이지치 사키	明浄学院高等学校 (메이조학원고등학교)
	34	伊藤 錦之助 이토 긴노스케	아라카와구립미나미센쥬제2중학교
	35	伊東 毅浩 이토 다카히로	게센누마시교육위원회학교교육과
	36	香川 朋子 가가와 도모코	도요나카시립신덴미나미소학교
	37	河村 真吾 가와무라 신고	가나자와시교육위원회학교지도과
	38	昆野 興三 곤노 오키미쓰	게센누마시립나카이소학교
	39	前田 正 마에다 다다시	게센누마시립마쓰이와소학교
	40	宮地 尚子 미야지 나오코	도요나카시립다카가와소학교
	41	西田 早智子 니시다 사치코	오사카부립하나조노고등학교
	42	小倉 良之 오구라 요시유키	도쿄도립고게이고등학교
	43	岡田 涉 오키다 와타루	요코하마국립대학교육인간과학부부속가마쿠라소학교
	44	大西 浩明 오니시 히로아키	奈良市立済美小学校 (나라시립세이비소학교)
	45	坂本 真理 사카모토 마리	와카야마현교육청학교교육국학교지도과
	46	笹井 晋吾 사사이 신고	와카야마현교육청학교교육국학교지도과
	47	笹島 茂樹 사사지마 시게키	지바현립이치가와키타고등학교
	48	渋谷 和子 시부야 가즈코	시부야교육학원시부야중·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 (53)	49	高田 悟 다카타 사토루	히로시마대학부속중·고등학교
	50	쓰즈키 야스시	학교법인이치카와학원이치카와중·고등학교
	51	야기누마 히로시	가쿠다시립히가시네소학교
	52	기무라 쓰토무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 国際教育課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 국제교육과)
	53	杉原 由美子 스키하라 유미코	재단법인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ACCU)
방일 (150)	1	백금숙	인평초등학교
	2	차정화	각골초등학교
	3	장인숙	삼성초등학교
	4	최종호	호저초등학교
	5	최경	광주양산초등학교
	6	최승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7	강병두	서울정진학교
	8	김지연	서울백운초등학교
	9	김경현	포항제철동초등학교
	10	김나영	신성초등학교
	11	김승진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12	김용구	경희초등학교
	13	김유나	용연초등학교
	14	이철구	대구광역시교육청
	15	이화영	포항제철서초등학교
	16	이미애	내북초등학교
	17	이소현	구서초등학교
	18	이수민	성원초등학교
	19	이영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0	문미진	무거초등학교
	21	오세희	청주혜화학교
	22	박지연	전주대정초등학교
	23	박민영	해남서초등학교
	24	박영희	청룡초등학교 장고분교
	25	손미라	서울덕의초등학교
	26	양길례	각골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27	양남희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28	유영갑	아성초등학교
	29	박혜원	교육과학기술부
	30	정용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1	배현숙	충청북도교육청
	32	최만	하남중앙초등학교
	33	허범	매탄초등학교
	34	정옥자	진례초등학교
	35	강영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6	김향남	서울덕의초등학교
	37	김효정	개신초등학교
	38	김지영	인천만월초등학교
	39	김진경	영춘초등학교
	40	김종범	구죽초등학교
	41	고상우	센텀초등학교
	42	구자현	해운대교육지원청
	43	이종금	대구가창초등학교
	44	이기웅	호저초등학교
	45	이영진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46	오희숙	반안초등학교
	47	오세현	경상남도교육청
	48	박미애	천천초등학교
	49	박선주	서울청파초등학교
	50	서윤경	서울신용산초등학교
	51	심재희	진주초등학교
	52	신윤정	서울양목초등학교
	53	송만선	제주동초등학교
	54	이명건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55	유병수	경상북도교육청
	56	유정희	청주혜화학교
	57	윤병주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58	김태훈	기획재정부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59	홍성장	교육과학기술부
	60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1	차지영	서귀포온성학교
	62	조춘기	시흥은행중학교
	63	조성윤	덕수고등학교
	64	최인종	제주중앙고등학교
	65	최용남	전주고등학교
	66	정진영	신남중학교
	67	한성기	울산광역시교육청
	68	황정규	숙명여자고등학교
	69	임혜숙	대전가오중학교
	70	장용순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71	정권홍	원화여자고등학교
	72	강기현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73	김은정	계양중학교
	74	김환승	인천국제고등학교
	75	김지혜	거창고등학교
	76	김명숙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77	김유정	시지중학교
	78	고아라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79	고영실	제주제일고등학교
	80	공현주	군산남중학교
	81	이덕만	부산국제중학교
	82	이효춘	광주중앙중학교
	83	이형진	브니엘예술고등학교
	84	이명호	서울특별시교육청
	85	이평복	상당고등학교
	86	이새롬	부산장안고등학교
	87	박은순	조원중학교
	88	윤선경	명인중학교
	89	유서영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90	김현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91	조영민	경기도교육청
	92	정갑이	남성여자고등학교
	93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94	장규화	부산국제고등학교
	95	장경임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96	김보선	논산고등학교
	97	김동연	조치원여자고등학교
	98	김응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99	김형남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
	100	김진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101	김진수	울산공업고등학교
	102	김미연	상당고등학교
	103	김택수	능인고등학교
	104	김용순	숙지고등학교
	105	김영란	화순이양고등학교
	106	권은영	안동여자고등학교
	107	이희정	상일여자고등학교
	108	이재성	인천공항고등학교
	109	이국용	산마을고등학교
	110	이미경	경일고등학교
	111	이미라	등촌고등학교
	112	이승미	전주고등학교
113	문아량	전북외국어고등학교	
114	오승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15	박은경	진해고등학교	
116	박정화	해강고등학교	
117	박미영	청명고등학교	
118	박상호	충남고등학교	
119	유미란	대전외국어고등학교	
120	노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21	권대봉	KNCU교육분과위원회부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2	배희숙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50)	123	방극만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124	조찬희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25	최경희	진천여자중학교	
	126	최성애	양양고등학교	
	127	한인환	남성여자고등학교	
	128	임미정	서천여자고등학교	
	129	장봉규	전주영생고등학교	
	130	장윤정	대덕고등학교	
	131	김보선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132	김기열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133	김관제	수원외국어고등학교	
	134	김명옥	전라남도교육청	
	135	고정은	신남중학교	
	136	구철진	유봉여자중학교	
	137	권순근	거제중앙중학교	
	138	이병학	갈산고등학교	
	139	이현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140	이경식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41	이미애	북원여자중학교	
	142	이민선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43	이옥분	시흥은행중학교	
	144	이선복	대전외국어고등학교	
	145	이영호	함덕중학교	
	146	오문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147	박부춘	문산여자고등학교	
	148	박미옥	원이중학교	
	149	박미선	영광대마중학교	
	150	송종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한 (53)	1	가토 히사오	나라교육대학
		2	모라가키 가오루	요사노초립가야중학교
3		후지타 아쓰시	게센누마시립게센누마중학교	
4		하라다지카	도요나키시립우에노소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3)	5	호시노 아키히토	미쓰케시립미쓰케소학교
	6	이토 고지	게센누마시립오야중학교
	7	가키미 히로아키	나라시립도난중학교
	8	고다마 겐지	야치요기립무쓰미중학교
	9	구라마에 고타로	이치카와고등학교 중학교
	10	마쓰오 사토코	지바현립지바중학교
	11	모토야마 사나에	게이센조카쿠엔중,고등학교
	12	무라카미 사나에	게이게누마시립미즈나시소학교
	13	나카무라 노리유키	사이타마시립우에미즈소학교
	14	노무라 겐타로	오비린중,고등학교
	15	오타니 기요토	오카야마시립다이니후지타소학교
	16	오코시 리에코	신주쿠 구립에도가와소학교
	17	오쿠마 다다시	학교법인 지유학원
	18	오치 다케오	에도구립야나가와소학교
	19	스다 나쓰키	요코하마시립나가타다이소학교
	20	쓰지쿠라 후미코	나라시립도미가오카소학교
	21	야마모토 야스히사	요사노초교육위원회사무교육추진과
	22	야마토 고지	후쿠오카 현립모지다이쇼칸고교
	23	요시다 와타루	가나자와주오소학교
	24	히기시 히데아키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25	시마즈 마사카즈	재단법인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26	혼다 나라히토	이치카와시립이나고소학교
	27	후지즈카 다다시	다마시립히가시야차중학교
	28	히라모토마이	야치요시립니시차카쓰소학교
	29	아나가키 시게미쓰	요사노초립고치소학교
	30	아시하라 노부히로	나라시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31	이시이 기와코	나라시립도미오키차유치원
	32	기카치 도루	사이타마시립양호학교
	33	기무라 쇼타	오가사와라촌립하하지마소중학교
	34	곤도 마리	고토구립시노노메소학교
	35	구로토비 마사키	야치료시립겨야다나미소학교
	36	마쓰모토 가즈코	오카야마시립제일후지타소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 (53)	37	마쓰오카 기요타카	게센누마시립신조소학교
	38	모리우치 나오코	세이비학원소학교
	39	나가야마 세이야	나라헤이조나시중학교
	40	오바라 아이코	지바현립이치가와사바루소학교
	41	오이카와 아쓰시	릿쿄니자중,고등학교
	42	오카호 후미오	요사노초립가야소학교
	43	오케타니 게이스케	나가오카시립미나미중학교
	44	오도네라 다쓰야	게센누마시립구조소학교
	45	사이토다케시	후쿠오카현립후쿠오카고린칸교교
	46	시미다 데쓰야	고쿠사이학원고등학교
	47	스즈키 세이지	시로이시시립오바라중학교
	48	다나카 마사카쓰	니혼대학부잔중고등학교
	49	오코야마 도요하루	학교법인 세이메이가쿠엔 초등학교
	50	아이카와 슈지	문부과학성 초주등교육국 특별 지원교육과
	51	요네시마 유리코	재단법인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
	52	히라다 지카	도요나키시립우에노소학교
	53	하나마코 요코	네야가와시립제 10중학교
2011			
방일 (148)	1	안상수	천일초등학교
	2	최순옥	경기도교육청
	3	하재영	포항제철서초등학교
	4	장현순	진례초등학교
	5	정명희	울산혜인학교
	6	정성종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7	정은홍	호원초등학교
	8	강민	구성초등학교
	9	김희수	안동영명학교
	10	김종덕	서울신용산초등학교
	11	김주현	남산초등학교
	12	김경남	인천용정초등학교
	13	김명지	충렬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48)	14	김수연	해룡초등학교
	15	김선영	문우초등학교
	16	권영근	경상북도교육청
	17	이희열	서울덕의초등학교
	18	이기태	충청북도교육청
	19	이상우	대전동문초등학교
	20	이선경	대구관문초등학교
	21	박선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2	성현미	내북초등학교
	23	성시열	대전광역시교육청
	24	신인섭	인평초등학교
	25	신상훈	강원명진학교
	26	양길호	전주미산초등학교
	27	양경진	남외초등학교
	28	유경아	서울정진학교
	29	윤현비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0	박명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1	배진희	신암초등학교
	32	장진혜	서울중계초등학교
	33	최일호	강원도교육청
	34	최명심	해룡초등학교
	35	하정화	진영대창초등학교
	36	하영리	대화초등학교
	37	김은아	대교초등학교
	38	김인성	우포생태교육원
	39	김정중	용연초등학교
	40	김경희	서울신용산초등학교
	41	김명기	대소초등학교
	42	김명남	범일초등학교
	43	김완금	시흥매화초등학교
	44	김윤범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45	권두식	인천계산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48)	46	권종원	포항제철동초등학교
	47	이기석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48	이희근	외서초등학교
	49	이현정	서울정진학교
	50	이혜영	지석초등학교
	51	이진희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52	이말숙	부산광역시교육청
	53	이여송	진례초등학교
	54	임진숙	광명초등학교
	55	임병제	소천초등학교
	56	임관욱	제주영지학교
	57	임성채	월성초등학교
	58	성한섭	국산초등학교
	59	성경제	양산초등학교
	60	김민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1	박은경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한국물포럼
	62	차은정	광주여자고등학교
	63	최병섭	진례초등학교
	64	황형주	민족사관고등학교
	65	장석두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66	장순복	성화중학교
	67	전용우	대전노은고등학교
	68	정구창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69	정숙희	마산용마고등학교
	70	강인숙	고금중학교
	71	김병호	전주신흥고등학교
	72	김다영	시흥은행중학교
	73	김광수	제주제일고등학교
	74	김형근	청주외국어고등학교
	75	김기호	거창고등학교
	76	김태우	울산광역시교육청
	77	김원명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48)	78	곽병남	양산초등학교
	79	경혜영	성포고등학교
	80	이대구	충청남도교육청
	81	이동균	대전외국어고등학교
	82	이만대	신남중학교
	83	오유나	전남외국어고등학교
	84	박혜선	민족사관고등학교
	85	송용근	대덕고등학교
	86	성창준	상당고등학교
	87	서예식	청명고등학교
	88	이준호	원화여자고등학교
	89	유대환	서울특별시교육청
	90	김승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1	백경실	시흥은행중학교
	92	차미정	안남중학교
	93	최현숙	창덕중학교
	94	홍자순	보성여자중학교
	95	홍수연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96	황효경	학산여자중학교
97	정민서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98	정아름	신남중학교	
99	강은희	남원중학교	
100	김부훈	성창여자고등학교	
101	김동호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02	김현희	담양중학교	
103	김진숙	동진여자중학교	
104	김영준	오남고등학교	
105	이은영	진천여자중학교	
106	이희동	안남중학교	
107	이혜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08	이정엽	용강중학교	
109	이경애	대덕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48)	110	이삼식	순천여자고등학교
	111	이성철	만월중학교
	112	이수영	센텀중학교
	113	임미은	수원외국어고등학교
	114	오종숙	밀양여자고등학교
	115	박석완	대청중학교
	116	박명식	웅촌중학교
	117	김애영	대전복수고등학교
	118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9	부재호	제주중앙고등학교
	120	최준호	전주영생고등학교
	121	최경윤	문산여자고등학교
	122	최수경	영신여자고등학교
	123	하진수	충남고등학교
	124	허상배	순천여자고등학교
	125	황성석	전남과학고등학교
	126	전기윤	성포고등학교
	127	정경자	문향고등학교
	128	정영현	경상여자고등학교
	129	김대일	포항중앙고등학교
	130	김한기	대구제일고등학교
	131	김정숙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32	김나경	당진고등학교
	133	김영환	밀양여자고등학교
	134	권택문	청주대성고등학교
	135	이기성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36	이경복	흥덕고등학교
	137	이상호	산마을고등학교
	138	이소형	의성고등학교
	139	문영희	숙명여자고등학교
	140	박경미	강릉여자고등학교
	141	박윤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48)	142	성헌제	민족사관고등학교
	143	신호광	부산국제고등학교
	144	윤혜정	경남여자고등학교
	145	유성중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46	권희정	교육과학기술부
	147	최유순	대한민국국회
	148	정소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한(54)	1	岩本 涉 (이와모토 와타루)
2		大江 信 (오에 시노부)	与謝野町立与謝小学校 (요사노초립요사소학교)
3		安部 有美子 (아베 유미코)	寝屋川市立第十中学校 (네야가와시립제10중학교)
4		藤本 健一 (후지모토 겐이치)	岡山市立岡山後楽館高等学校 (오카야마시립오카야마코라쿠칸고등학교)
5		板倉 真由美 (이타쿠라 마유미)	岡山市立第三藤田小学校 (오카야마시립제3후지타소학교)
6		川上 有正 (가와카미 아리마사)	筑波大学附属坂戸高等学校 (쓰쿠바대학부속사카도고등학교)
7		川上 麻耶 (가와카미 마야)	横浜市立永田台小学校 (요코하마시립나가타다이소학교)
8		北野 勝久 (기타노 가쓰히사)	小松市教育委員会 (코마쯔시교육위원회)
9		小泉 卓史 (고이즈미 다카시)	学校法人 市川学園 市川中学校 高等学校 (학교법인 이치카와학원 이치카와중학교 고등학교)
10		峯岸 愛 (미네기시 아이)	さいたま市立桜木小学校 사이타마시립사쿠라기소학교)
11		村上 賢吾 (무라카미 겐고)	気仙沼市立鹿折小学校 (게센누마시립시시오리소학교)
12		中村 友弥 (나카무라 유야)	奈良市立飛鳥小学校 (나라시립아스카소학교)
13		中野 敏昭 (나카노 도시아키)	福岡県教育庁教育振興部高校教育課 (후쿠오카현교육청교육진흥부고교교육과)
14		中山 明美 (나카야마 아케미)	愛知県立中川商業高等学校 (아이치현립나카가와상업고등학교)
15		大川 直樹 (오카와 나오키)	荒川区立原中学校 (아라카와구립하라중학교)
16		小野寺 信弘 (오노데라 노부히로)	気仙沼市立松岩中学校 (게센누마시립마쓰이와중학교)
17		佐伯 貴昭 (사에키 다카아키)	熊野町立熊野東中学校 (쿠마노초립쿠마노히가시중학교)
18		関根 寿典 (세 키네 히사노리)	成田市立玉造中学校 (나리타시립타마즈쿠리중학교)
19		杉本 伸樹 (스기모토 노부키)	八千代市立大和田西小学校 (야치요시립오와다니소학교)
20		田中 文子 (다나카 아야코)	福岡県立ひびき高等学校 (후쿠오카현립히비키고등학교)
21		田中 秀周 (다나카 히데치카)	多摩市立東愛宕中学校 (타마시립히가시야타고중학교)
22		田中 誠一 (다나카 세이치)	大阪教育大学附属高等学校池田校舎 (오사카교육대학부속고등학교이케다교사)
23		東垣 茂男 (도가키 시게오)	与謝野町教育委員会 (요사노초교육위원회)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4)	24	土田 惠久 (쓰치다 요시히사)	橋本市立高野口小学校 (하시모토시립코야구치소학교)
	25	秋葉 正嗣 (아키바 마사시)	國際連合大学 (국제연합대학)
	26	佐藤 圭一 (사토 게이치)	文部科学省 (문부과학성)
	27	米島 百合子 (요네시마 유리코)	公益財団法人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공익재단법인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28	伊藤 公一 (이토 고키치)	黒川郡大和町立鶴巣小学校 (쿠로카와군타이와초립쓰루쓰소학교)
	29	枝本 亜希 (에다모토 아키)	岡山市立福南中学校 (오카야마시립후쿠난중학교)
	30	藤山 里香 (후지야마 리카)	千葉県立佐倉南高等学校 (치바현립사쿠라미나미고등학교)
	31	飯島 政範 (이이지마 마사노리)	さいたま市立ひまわり特別支援学校 (사이타마시립히마와리특수학교)
	32	亀井 規生 (가메이 노리오)	奈良市教育委員会事務局 学校教育課 (나라시교육위원회사무국 학교교육과)
	33	窪田 崇之 (구보타 다카유키)	市川市立稲越小学校 (이치카와시립이나고시소학교)
	34	熊谷 美穂子 (구마가이 미호코)	気仙沼市立小原木中学校 (게센누마시립코하라기중학교)
	35	松岡 和俊 (마쓰오카 가즈토시)	岡山市教育委員会事務局指導課 (오카야마시교육위원회사무국지도과)
	36	宮城 明子 (미야기 아키코)	沖縄県立那覇国際高等学校 (오키나와현립나하국제고등학교)
	37	宮成 達啓 (미야나리 다쓰히로)	千葉県八千代市立八千代台西小学校 (치바현야치요시립야치요다이니시소학교)
	38	宮崎 圭司 (미야자키 게이지)	福岡県立玄界高等学校 (후쿠오카현립겐카이고등학교)
	39	二宮 浩司 (니노미야 고지)	福岡県立城南高等学校 (후쿠오카현립쨌난고등학교)
	40	則武 千裕 (노리타케 치히로)	京都市立梅津北小学校 (교토시립우메즈키타소학교)
	41	及川 敦 (오이카와 아쓰시)	南三陸町立志津川中学校 (미니미산리쿠초립시즈가와중학교)
	42	岡崎 利夫 (오카자키 도시오)	与謝野町立市場小学校 (요사노초립이치바소학교)
	43	佐々木 裕作 (사사키 유사쿠)	気仙沼市立浦島小学校 (게센누마시립우라시마소학교)
	44	関口 芳平 (세키구치 요시히라)	小千谷市立小千谷中学校 (오지야시립오지야중학교)
	45	清水 佐登美 (시미즈 사토미)	江東区立八名川小学校 (코토구립야나가와소학교)
	46	高田 貴 (다카다 다카시)	自由学園男子部中等科 (자유학원남자부중등과)
	47	田中 誠治 (다나카 세이지)	河内長野市立美加の台小学校 (카와치나가노시립미카노다이소학교)
	48	谷 慎介 (다니 신스케)	福岡県立福岡魁誠高等学校 (후쿠오카현립후쿠오카이세이고등학교)
	49	辻脇 昌義 (쓰지와키 마사요시)	橋本市教育委員会学校教育課 (하시모토시교육위원회학교교육과)
	50	山崎 聡司 (야마자키 사토시)	小松市立今江小学校 (코마쓰시립이마에소학교)
	51	渡邊 明香 (와타나베 사야카)	千葉県立鎌ヶ谷西高等学校 (치바현립카마가야니시고등학교)
	52	渡邊 重則 (와타나베 시게노리)	与謝野町立三河内小学校 (요사노초립미고치소학교)
	53	藤澤 秀俊 (후지사와 히데토시)	文部科学省 (문부과학성)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4)	54	霜中 路世 (시모나카 미치요)	公益財団法人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공익재단법인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2012 - 2013			
방일(146)	1	안혜진	서울양동초등학교
	2	최만식	수양초등학교
	3	최명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4	장혜란	마송중앙초등학교
	5	전관표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6	지성철	동백초등학교
	7	지소영	새서귀초등학교
	8	진정연	광령초등학교
	9	강미라	강원명진학교
	10	김경수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1	김정숙	진례초등학교
	12	김미영	월산초등학교
	13	고영철	제주동초등학교
	14	고영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5	이동익	홍남초등학교
	16	이광민	서울강신초등학교
	17	이영희	양산초등학교
	18	남윤제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9	오성균	광양제철남초등학교
	20	박효진	무극초등학교
	21	박인배	인천광역시교육청
	22	박지은	군내초등학교
	23	신찬이	동삼초등학교
	24	신익호	백사초등학교
	25	신예숙	서울덕의초등학교
	26	송하인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27	양형욱	전라남도교육청
	28	유호정	칠성초등학교
	29	강민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46)	30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31	백판덕	용연초등학교
	32	부성찬	계남초등학교
	33	조민희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34	최영미	무극중학교
	35	홍성은	논산여자중학교
	36	전성은	서울덕의초등학교
	37	김찬우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38	김인원	서울고등학교
	39	김정순	시흥은행중학교
	40	김종숙	인평초등학교
	41	김종욱	삼일여자고등학교
	42	김경옥	신남중학교
	43	김미란	부산광역시교육청
	44	김명순	민족사관고등학교
	45	김순실	조천중학교
	46	김영보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47	국명희	후평중학교
	48	이학인	군내초등학교
	49	이희옥	봉곡중학교
	50	이형수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51	이석재	전주고등학교
	52	이순희	잠원중학교
	53	노영문	서울신용산초등학교
	54	신승균	경기도교육청
	55	송인봉	갈산고등학교
	56	우해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57	이효숙	도산중학교
	58	윤용재	포곡중학교
	59	정소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	배혜경	학산여자중학교
	61	조도연	청명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46)	62	조규호	태안여자중학교
	63	최보길	산마을고등학교
	64	정진숙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65	허군진	저청초중학교
	66	황학영	경상북도교육청
	67	황장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68	황윤숙	제주제일중학교
	69	임기식	반송초등학교
	70	정선주	포곡중학교
	71	주진영	논산여자중학교
	72	강은영	진건중학교
	73	강정훈	이방초등학교
	74	김희정	보성여자중학교
	75	김후배	서귀중앙여자중학교
	76	김현모	상명고등학교
	77	김종렬	충청북도교육청
	78	김주혁	안동영명학교
	79	김영희	진영대창초등학교
	80	고명옥	대전광역시교육청
	81	이어진	양성초등학교
	82	이광수	부산국제중학교
	83	박혜연	서울신용산초등학교
	84	유위준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85	김윤정	교육과학기술부
	86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7	안정숙	경기여자고등학교
	88	차혁성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89	장혜경	봉일천고등학교
	90	최유영	동탄국제고등학교
	91	정근목	논산고등학교
	92	한을수	대덕고등학교
	93	정은기	흥덕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46)	94	강희봉	수원외국어고등학교
	95	강인순	경일고등학교
	96	김창욱	제주외국어고등학교
	97	김진규	원화여자고등학교
	98	김용현	구례고등학교
	99	권상규	능인고등학교
	100	이병례	충청남도교육청
	101	이춘원	은행고등학교
	102	이현숙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03	이정주	밀양여자고등학교
	104	이상범	대전노은고등학교
	105	오용식	청주대성고등학교
	106	박인수	포항중앙고등학교
	107	박미선	부산국제고등학교
	108	박순재	성남고등학교
	109	서혜승	부광고등학교
	110	서종숙	개성고등학교
	111	손진	부산보건고등학교
	112	원도석	문산여자고등학교
	113	우혜경	관악고등학교
	114	이영호	광주광역시교육청
	115	유보성	거창고등학교
	116	윤선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7	배정연	등촌고등학교
	118	봉만영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19	지향림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120	조항정	상당고등학교	
121	한명훈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122	홍경희	경기여자고등학교	
123	임기혁	청주고등학교	
124	장상석	밀양여자고등학교	
125	정명석	경상남도교육청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46)	126	강희진	제주제일고등학교
	127	김보선	문산여자고등학교
	128	김병학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129	김치복	제주중앙고등학교
	130	김준호	숙명여자고등학교
	131	김규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32	김명식	중산고등학교
	133	김상열	창원태봉고등학교
	134	김성종	거제애광학교
	135	권부연	남성여자고등학교
	136	이경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37	이만형	광양백운고등학교
	138	이민숙	대덕고등학교
	139	남기홍	성포고등학교
	140	남정호	대전외국어고등학교
	141	박주희	논산고등학교
142	박용주	대구고등학교	
143	송정선	수원외국어고등학교	
144	송용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145	김은희	교육과학기술부	
146	신종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한 (50)	1	아베 히로후미	오카야마대학
	2	이시이 아사미	야치요다이히가시소학교
	3	하마나카 마키	가마나와시립이즈미중학교
	4	하가시구치 유키오	고마쓰시교육위원회학교교육과
	5	하라이시 가쓰히코	가나가와현립아리마고등학교
	6	이토 히데오	아라카와구립오구미야마에소학교
	7	이와미 리카	효교현립아시아국제중등교육학교
	8	가지 히로키	히로시마현아키군코마노초립쿠마노제4소학교
	9	가라카와 가즈키	기타큐슈시립아카시카소학교
	10	기지마 유이치	이치하라췌오고등학교
	11	오타케 마사시	게이오키췌큐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 (50)	12	미우라요시토	미야기현가시로이시시립시로이제제2소학교
	13	모리 야스히토	나라시교육위원회사무국학교교육과
	14	모리시타 마치코	하시모토시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15	오키 야스코	하시모토시립고야구치소학교
	16	시바타 요시히코	도쿄도립고툼분지고등학교
	17	시미즈 사오리	요코하마시립나가타가이소학교
	18	소가유지	나고야대학교육학부부속중고등학교
	19	다카가키 다이스케	이나기시립이나기제2소학교
	20	다카하시 가쓰야	도쿄도립오슈칸중등교육학교
	21	데즈카 미요코	사가시립혼조소학교
	22	아마테 요시후미	후쿠오카마이주루고등학교
	23	아키바 마사시	국제연합대학
	24	가모시타 유코	문부과학성
	25	요네시마 유리코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26	아이사카 도모코	도쿄도립오지종합고등학교
	27	아키야마 미쓰요	시즈오카현립 요시와라공업고등학교
	28	이노마타 고	아오마리현립산본기고등학교
	29	가마타 아키로	지바현립 나가레야마 오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30	가와치 세쓰코	가나가와현립 오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31	가자하리 다카시	야치요시립니이키도소학교
	32	고지마 덴이치로	나라시립도우이치소학교
	33	나가이시 도시에	지바현야치요시교육위원회
	34	나가타니 다마키	나라여자대학부속중등교육학교
	35	네이시 마사토	오키모토우기학원아다치구입오우기중학교
	36	니시카와리카	마쓰비라시립미야케소학교
	37	니시노마사야키	하시모토시립기미히가시중학교
	38	사가키 히로시	와카야마현하시모토시립 아야노다이소학교
	39	사키시타 가즈유키	고마츠시립아타카소학교
	40	다카세 고지	지바현립특별지원학교 이키차와오노고등학교원
	41	다케노우치 마사루	이나기시교육위원회
	42	다니구치 기미	하시모토시립기미소학교
	43	도모베 나오코	이나기시립이나기제6소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 (50)	44	쓰보이 히로야스	효교현립 기타스마고등학교
	45	우라니시 요헤이	네아가와시립제10중학교
	46	시노자키 요사히로	시부야교육학원마쿠하리중고등학교
	47	구리야마 가즈히로	문부과학성
	48	스기하라 유미코	유네스코아시아 문화센터
	49	야머나카 아쓰요	나라시립후시미소학교
	50	시나다 다이스케	사이타마현사이타마시립다카사고소학교
2014			
방일 (120)	1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	장명순	경상북도교육청
	3	최혜원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4	최정아	월산초등학교
	5	최경화	전라남도교육청
	6	정주용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7	정승진	형석중학교
	8	구민지	밀양여자고등학교
	9	한철형	보성여자중학교
	10	정미향	공현진초등학교
	11	진여주	대전노은고등학교
	12	강성도	전주고등학교
	13	강연철	원평초등학교
	14	김갑성	신동초등학교
	15	김성춘	제주영송학교
	16	고춘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7	이봉연	양산초등학교
	18	이재홍	수원외국어고등학교
	19	이정민	서울신용산초등학교
	20	이경희	저청중학교
	21	이명호	방배중학교
	22	이상철	분평초등학교
	23	임문택	백사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20)	24	나경관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25	박진실	보정고등학교
	26	박경옥	충청북도교육청
	27	서은영	보평고등학교
	28	성주경	수촌초등학교
	29	이진구	교육부
	30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1	안종협	경기외국어고등학교
	32	백태금	광양백운고등학교
	33	변경숙	봉곡중학교
	34	채성용	선일여자중학교
	35	조창남	정선남산초등학교
	36	최종구	금정고등학교
	37	한경옥	남성중학교
	38	정지황	흥덕고등학교
	39	정원옥	진영제일고등학교
	40	강은정	진건중학교
	41	강금진	제주시교육지원청
	42	강인희	논산고등학교
	43	강재성	거창고등학교
	44	김봉기	성포고등학교
	45	김봉남	산남초등학교
	46	김두환	학산여자중학교
	47	김희경	제주중앙고등학교
	48	김재진	양성초등학교
	49	김선호	함백고등학교
	50	김선혜	안현초등학교
	51	공세옥	보성여자중학교
	52	마은경	첨단고등학교
	53	박순식	신남중학교
	54	박혜련	대구학정초등학교
	55	박세량	상당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20)	56	신호래	한겨레고등학교
	57	송영기	인천광역시교육청
	58	유지원	도곡초등학교
	59	이동명	교육부
	60	류은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1	안중렬	경일고등학교
	62	안수영	순천왕지초등학교
	63	배현영	강원외국어고등학교
	64	전영희	남산초등학교
	65	조두환	백사초등학교
	66	최성미	부산광역시교육청
	67	최창순	성원초등학교
	68	장인권	부산국제고등학교
	69	정송자	서울덕의초등학교
	70	강은정	신제주초등학교
	71	김대갑	울산광역시교육청
	72	김진영	한겨레고등학교
	73	김정숙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74	김남수	제주제일중학교
	75	고수진	봉일천고등학교
	76	이미경	안동영명학교
	77	권은라	원화여자고등학교
	78	이해석	은행고등학교
	79	이현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80	이지언	제천중앙초등학교
	81	이영주	신양초등학교
	82	나현선	수원외국어고등학교
83	박호철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84	박정희	전주신흥고등학교	
85	박지현	한솔중학교	
86	박민옥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87	유영덕	충청남도교육청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20)	88	유정해	상당고등학교
	89	윤혜경	강원명진학교
	90	홍보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1	배윤영	서울월촌초등학교
	92	백광운	문산여자고등학교
	93	차미순	경기도교육청
	94	장현실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95	조혜경	대전광역시교육청
	96	조현종	경상남도교육청
	97	정연주	학산여자중학교
	98	강승식	진건중학교
	99	김혜경	인천국제고등학교
	100	김계산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101	김미희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02	김미미	서울특별시교육청
	103	김령희	제주동초등학교
	104	김선	호원초등학교
	105	이병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106	이병준	월촌중학교
107	이철수	원주여자고등학교	
108	이재돈	석봉초등학교	
109	이정환	강원명진학교	
110	이정수	만대초등학교	
111	임용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112	박순정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13	서영애	다향고등학교	
114	신현만	경주정보고등학교	
115	손진철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116	서종문	대구서부고등학교	
117	양정미	시흥은행중학교	
118	염은정	원평초등학교	
119	윤혜정	청주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20)	120	배연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	이케마 시게루	나라시립미야토초등학교
	2	이시리하 야스요	가가와현립간온지중양고등학교
	3	오하시 유키	이나기시립이나기제2초등학교
	4	가야키 지에	게센누마시립산조초등학교
	5	가와니시 요시유키	도야마국제대학부속고등학교
	6	가와베 도모미	기후쇼토쿠학원고등학교
	7	기쿠치 가즈코	도쿄도가쓰시카구립후타바중학교
	8	기즈무토 히로키	네아가와시립제10중학교
	9	고다 아키노리	에히메현립미시마고등학교
	10	스가누마 유코	세이신중고등학교
	11	디케다 구니히로	가미이타초립간야케초등학교
	12	다나카 아사코	릿쿄니이자중고등학교
	13	쓰지모토 가즈노리	하시모토시립하시모토초등학교
	14	나카데 야스히코	고마쓰시립료조초등학교
방한(50)	15	니시지마 아쓰시	와카야마현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지도과
	16	하야시 루미코	지바현립사쿠라가오카특수학교
	17	히사다마이코	가나자와시립고쇼마치중학교트각분교
	18	히로키 게이코	요코하마시립나가타다이초등학교
	19	호소노 노리코	시부야교육학원마쿠하리중고등학교
	20	무나카타 히로시	오와다미나미초등학교
	21	모리 쓰토무	오비린중고등학교
	22	요시오카 다이스케	도쿄도립오시마고등학교
	23	오쓰 가즈코	홋카이도교육대학
	24	모리 유스케	문부과학성
	25	요네시마 유리코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26	아라히라 유타카	나라시립이치조고등학교
	27	가가와 게이코	도쿠시마현립조세이고등학교
	28	사토 게이코	오사카시립맛타기타초등학교
	29	기무라 마유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교육위원회
	30	고토 다키에	가나자와시립민마초등학교
	31	사코 미호	나고야대학교 교육학부 부설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0)	32	다카이 유코	가와피나가노시립마카노다이초등학교
	33	다카라시 가즈요시	지바현립이치카와스바루고등학교
	34	다나카 모토코	나라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교육과 이지메대책학생지도실
	35	지바 다카시	후쿠시마현립아다치고등학교
	36	쓰카모토 가즈토시	고마쓰시립고등학교
	37	나카구치 겐타로	가나자와시립하나조노초등학교
	38	나가야마 유키	야치오텍립아소초등학교
	39	하라다 히로키	와카마야현립세이린고등학교
	40	마쓰쿠라 사야카	사이타마현아게오시립히가시중학교
	41	마쓰야마 다케히코	하시모토시립고야구치초등학교
	42	미나미 테쓰타	가나자와시립모리아마초초등학교
	43	무라카미 슌	미야기현게센누마기립쓰키다테초등학교
	44	모토카와 리에	이치카와중고등학교
	45	이타바시 나오	야치요시 교육위원회
	46	야기 애미	고마쓰기립이타즈중학교
	47	나카무라 유키	문부과학성
	48	이와사 다카아키	UN대학
	49	아리조노 요시코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50	니시우라 히로유키	와카야마현립고사다오카중학교, 하시모토 고등학교(병설형중고통합학교)
	2015		
방일(100)	1	고기식	영선중학교
	2	고영남	원통고등학교
	3	김우찬	익산교육지원청
	4	김원중	대덕고등학교
	5	김임식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6	김정혜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7	김정환	영동초등학교
	8	마숙자	경상북도교육청
	9	박미정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10	방경진	황지초등학교
	11	변도열	상명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00)	12	송해선	흥덕고등학교
	13	안수진A	서울고등학교
	14	양옥경	선일여자중학교
	15	오혜성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16	유홍열	거창고등학교
	17	이성기	원화중학교
	18	이은정	영광고등학교
	19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20	이창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21	이호남	충청남도교육청
	22	임미리	순천왕지초등학교
	23	임정순	성포고등학교
	24	장형기	교육부
	25	전명금	시흥은행중학교
	26	최윤환	석봉초등학교
	27	정상숙	구서여자중학교
	28	최관영	민족사관고등학교
	29	최기용	강원도교육청
	30	한정훈	청주신흥고등학교
	31	허재형	안현초등학교
	32	홍보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3	황혜경	제주중앙고등학교
	34	강명희	진건중학교
	35	강성춘	강원외국어고등학교
	36	고용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7	고채영	수원외국어고등학교
	38	권경희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39	김남선	공현진초등학교
	40	김대수	가곡초중학교
	41	김대영	숙명여자고등학교
	42	김명심	전남외국어고등학교
	43	김미연	어방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00)	44	김용운	월산초등학교
	45	남윤미	충청북도교육청
	46	남호명	금장초등학교
	47	류재용	경주교육지원청
	48	박남철	대구서부고등학교
	49	박석동	양성초등학교
	50	박종관	조천중학교
	51	박지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52	백상목	청주고등학교
	53	서미진	부산보건고등학교
	54	서혜선	교육부
	55	안수진B	안동영명학교
	56	안형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7	엄준성	신남중학교
	58	윤경식	서울특별시교육청
	59	이경석	용강중학교
	60	이장원	논산고등학교
	61	이혜영	용연초등학교
	62	정수교	안동중앙고등학교
	63	정인숙	전북외국어고등학교
	64	최미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65	최상현	대전외국어고등학교
	66	피봉호	봉일천고등학교
	67	권오진	안동교육지원청
	68	김경은	대룡중학교
	69	김경희	제주동초등학교
	70	김동성	효양고등학교
	71	김병규	상당고등학교
	72	김영미	강원명진학교
	73	김응조	대전복수고등학교
	74	김훈영	문산여자고등학교
	75	문성혜	봉곡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00)	76	문종훈	흥덕고등학교
	77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8	박대중	부산국제고등학교
	79	박수진	병점고등학교
	80	소정선	서울덕의초등학교
	81	오선자	부산시교육청
	82	오수정	이천교육지원청
	83	윤건선	인천국제고등학교
	84	윤여흥	수춘초등학교
	85	윤현아	서울신용산초등학교
	86	이경목	공현진초등학교
	87	이상철	광영고등학교
	88	이석종	강원외국어고등학교
	89	이주호	원화여자고등학교
	90	임훈	가곡초등학교
	91	장형진	전주신흥고등학교
	92	정미경	대릉중학교
	93	정옥남	광산중학교
	94	정유선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95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6	주자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7	최수환	대구외국어고등학교	
98	하순용	전라남도교육청	
99	한혁	대전광역시교육청	
100	황경미	창원과학고등학교	
방한(50)	1	스노하라 아키오	나가노현교육청 교학지도과
	2	아타라기 요시유키	나라시립 쓰게초등학교
	3	하라 아야노	사이타마시립 하루노초등학교
	4	하라가야 겐타	지유학원남자중고등학교
	5	호쇼야 슌타로	고마에시 교육청
	6	이시다 고헤이	쇼토쿠학원중고등학교
	7	지비키 지히로	지바현립 자바히가시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0)	8	가와사키 게이코	나가사키현립 이사하야상업고등학교
	9	미야타 사토에	와카야마현교육청
	10	미즈노 데쓰야	나가노현 나가노니시고등학교
	11	나카가와 도모코	기니기와현립 아리마고등학교
	12	나카지마 다야	나라교육대학부속중학교
	13	나리후 노부코	도쿄대학교육학부부속중학교
	14	노기 마사오	야치요시립 무라마키타초등학교
	15	소소기 신이치로	고마에시립이즈미초등학교
	16	다가시라 겐타로	간토국제고등학교
	17	다카하시 마쓰오	시로이시시립 시라카와중학교
	18	다나카 후쿠토	노트르담세이신학원 세이킨여자중고등학교
	19	우쓰미 마유미	오타구립 오토리제6중학교
	20	와다 게이코	효고현립 기타스마고등학교
	21	야마지요코	지바현립고쿠분고등학교
	22	야나가와 마유미	구마노정립구마노제1초등학교
	23	니시카와 다로	문부과학성
	24	이와사 다카야키	국제연합대학 대학원
	25	다카마쓰 아야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총무부
	26	하구치 도요타카	고마에시립 고마에제1중학교
	27	가와사키 다카시	고마에시립 고마에제6초등학교
	28	아오시카 요시히로	게이센여학원중고등학교
	29	아라이 마리	요코하마시립 나가타다이초등학교
	30	도시로 마사미치	와카야마현립 다치바나지원(특수)학교
	31	하라노 고스케	오무타시립 다카토리초등학교
	32	호사코 고지	구마노정립 구마노제4초등학교
	33	이케다 야스토	야치요시립 니시타가쓰초등학교
	34	진초 야스테루	와카야마현교육청학교교육국 현립학교교육과
	35	가토 겐지로	지바현립 특별지원학교 이차카와오노고등학교
	36	고이데 가즈야	나가노현 이야마고등학교
	37	마치다 나오미	도쿄도 기타구립 다키노다와초등학교
	38	마키다 마사에	다마시립 아이와초등학교
	39	미타무라 쓰요시	홋카이도교육대학부속삿포로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0)	40	무로이 아키라	나가노현 나카오니시고등학교
	41	오하라 요시에	이치가와시립 나카야마초등학교
	42	오니시 요시히로	오사카부립 센보쿠고동지원(특수)학교
	43	사사키 데쓰야	다마시립 다마제2초등학교
	44	스가와라 리에	게센누마시립 오모세초등학교
	45	다나와키 히카리	야치요시립오와다중학교
	46	다노우에 가즈히로	기타큐슈시립 미나미가오초등학교
	47	야마모토 미즈에	리쓰메이칸우지중고등학교
	48	야마모토 쓰요시	문부과학성
	49	기소 이사오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50	사이토 세이고	유네스코아시아 문화센터 인물교류부	
2016			
방일(114)	1	안승렬	동식초등학교
	2	차재원	석봉초등학교
	3	최승애	목일중학교
	4	최승욱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5	강인구	순천왕지초등학교
	6	함재우	경기자동차과학교등학교
	7	한봉희	용강중학교
	8	허순행	순천팔마고등학교
	9	임흥빈	상당고등학교
	10	김봉수	귀둔초등학교
	11	김동식	반포고등학교
	12	김덕보	조천중학교
	13	김재환	서울특별시교육청
	14	김명동	봉일천고등학교
	15	김성민	어방초등학교
	16	김용철	월촌중학교
	17	고득환	영선중학교
	18	고은주	진건중학교
	19	고경희	송화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14)	20	구선영	보성여자중학교
	21	권오우	강원도교육청
	22	이병희	경기도교육청
	23	이동재	신용산초등학교
	24	이혜경	선일여자중학교
	25	이종복	문성중학교
	26	이종미	별말초등학교
	27	이수정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28	이미화	부산국제중학교
	29	오동석	충청남도교육청
	30	박향춘	서귀중앙여자중학교
	31	박석현	안현초등학교
	32	박승호	명도초등학교
	33	박소연	박달초등학교
	34	류동윤	충남고등학교
	35	송진숙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36	송관영	양산초등학교
	37	윤현정	웅천초등학교
	38	박은숙	교육부
	39	홍보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0	배호영	전라남도교육청
	41	최재은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42	최세라	봉일천중학교
	43	정채기	문산수역중학교
	44	한기환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45	한상영	해미중학교
	46	장수미	울산광역시교육청
	47	정용주	염경초등학교
	48	진유선	안현초등학교
	49	조성남	단양중학교
	50	곽영문	청주신흥고등학교
	51	강문석	신송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14)	52	강영미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53	김보현	양강초등학교
	54	김익준	서귀포중학교
	55	김일환	대덕고등학교
	56	김정은	인천국제고등학교
	57	김경순	탄현중학교
	58	김미선	수춘초등학교
	59	김순례	교문중학교
	60	김성렬	순천왕지초등학교
	61	고수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2	곽태현	충청북도교육청
	63	권화자	마송중앙초등학교
	64	이은혜	양성초등학교
	65	이정희	숙명여자고등학교
	66	이진숙	백사초등학교
	67	이명신	한솔중학교
	68	민웅기	아산성심학교
	69	문우철	함덕중학교
	70	나미경	도원초등학교
	71	오장환	시흥은행중학교
	72	박경재	고삼초등학교
	73	송경미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74	육상숙	대전광역시교육청
	75	윤수은	남악고등학교
	76	이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7	박흥순	선문대학교
	78	안수영	창원과학고등학교
	79	안준표	진경여자고등학교
	80	조준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81	최정순	송현여자고등학교
	82	최태중	흥덕고등학교
	83	전상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14)	84	전혜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85	황지화	인천광역시교육청
	86	장옥진	보정고등학교
	87	정하경	경상북도교육청
	88	정완채	대전복수고등학교
	89	지경림	경일고등학교
	90	정윤자	원화여자고등학교
	91	김대환	부산국제고등학교
	92	김은미	목포덕인고등학교
	93	김진희	문산수역고등학교
	94	김기현	안동영명학교
	95	김경배	청주외국어고등학교
	96	김석순	제주중앙고등학교
	97	김태분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98	김태석	충남외국어고등학교	
99	김수빈	해강고등학교	
100	고병대	순천팔마고등학교	
101	구소형	대전외국어고등학교	
102	이병만	상명고등학교	
103	이정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4	이지혜	하남고등학교	
105	이태영	광주광역시교육청	
106	이용우	전남외국어고등학교	
107	나종욱	민족사관고등학교	
108	오석규	서울고등학교	
109	박소영	오천고등학교	
110	신혜정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111	심예원	성포고등학교	
112	배선연	교육부	
113	이선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4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한(48)	1	가나자와 유지	홋카이도 라우수초 교육위원회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48)	2	아베 노리코	요코하마시립 나가타다이초등학교
	3	아오키 노부히로	야마노우치초립 히가시초등학교
	4	혼다 마사타카	야치요시립 가쓰다다이초등학교
	5	이마모토 마사타카	구마노초립 구마노제4초등학교
	6	가스야 아키히로	게센누마시립 게센누마초등학교
	7	고바야시 조코	다마시립 히가시야타고중학교
	8	미쓰하시 데쓰	지바현립 사쿠라가오카특수학교
	9	모모타 아키히로	마치다시립 오야마다초등학교
	10	모리모토 아사코	요코하마시립 고가야초등학교
	11	모리야 도루	고마에시립 고마에제3초등학교
	12	노다 히로유키	야치요시립 가야초등학교
	13	오바 가즈테르	고마에시립 미도리노초등학교
	14	오노 마사미	이치카와시립 쓰루사시초등학교
	15	시카모토 나오키	고마에시교육위원회 교육부 지도실
	16	시바타 호사쿠	고마에 시립 고마에제1초등학교
	17	스가와라 아야	도마에시립 마이야초등학교
	18	스가야 마키	고마에시립 고마에제6초등학교
	19	스즈키 후미야	고마에시립이즈미초등학교
	20	다케야 마사아키	고마에 시립 고마에제5초등학교
	21	우치다 아쓰코	사이타마대학 교육학부 부속 중학교
	22	우메자와 가즈히사	지바현교육청 교육진흥부 생애학습과
	23	오카모토 아야	문부과학성 국제통관관부 유네스코일본국가위원회
	24	사이토 세이고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25	신도유미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센터
	26	네모토 아키히코	지바레이메이고등학교
	27	후쿠이 히로카즈	미호비가쿠인 중등교육학교
	28	하다 마코토	와세다개학 혼조고등학교
	29	호소다 리에	네아가사와시립 제10중학교
	30	가케하시 다이조	아와시립 요시노중학교
	31	가네다 아키코	도쿄도립 국제고등학교
	32	고바야기미호	야치요시립 가야다중학교
	33	구보키 에미	지바현립 후나바시토요토미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48)	34	미야사카 다케시	아사노중고등학교
	35	나카무라 히로코	나가노현 나가노시고등학교
	36	나시아마 나오코	후쿠오카현립 도바타공업고등학교
	37	노무라 나오미	오키나와현교육청 문화재과
	38	오쿠보 세이코	지바현립 가마가야니시고등학교
	39	오자키 사오리	지바현아치요시교육위원회
	40	사쿠라순	나가노현교육위원회사무국 교학지도과
	41	사야마 요시히데	시부야구립 하라주쿠가이엔중학교
	42	신쵸 후토시	히로시마현립야후르이치고등학교
	43	다치바나 하야토	지유가쿠엔중고등부(남자)
	44	아마사키 히데키	미에대학 교육학부 부속중학교
	45	후루타 도모미	유엔대학 지속가능선고등연구소
	46	다카마쓰 아야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47	시부타니 미즈에	가코가와시립 가고가와중학교
	48	가와사마 이사유키	도쿄도립 국제고등학교

2017

방일 (118)	1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2	차지연	물메초등학교
	3	조영주	광주매곡초등학교
	4	최연실	길주초등학교
	5	최돌남	울산광역시교육청
	6	전성화	광일초등학교
	7	홍기승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8	홍경희	서울충무초등학교
	9	황경태	안양남초등학교
	10	장국수	길주초등학교
	11	장명수	군북초등학교
	12	정유미	양성초등학교
	13	진지민	신림초등학교
	14	정동조	순천왕지초등학교
	15	김은아	참샘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18)	16	김학기	인천청량초등학교
	17	김정희	예림초등학교
	18	김지선	서울염경초등학교
	19	김승익	서울특별시교육청
	20	김원준	동산초등학교
	21	김영태	용연초등학교
	22	권혁준	강원도교육청
	23	이하진	남원주초등학교
	24	이향아	서울상월초등학교
	25	이향자	석봉초등학교
	26	이정순	양산초등학교
	27	이지현	자란초등학교
	28	임규선	안동동부초등학교
	29	노화연	연현초등학교
	30	노혁	경기도교육청
	31	박지원	반천초등학교
	32	박태연	석천초등학교
	33	박영자	영동초등학교
	34	노정아	안천초등학교
	35	선광식	대련한국국제학교
	36	임진환	세종시교육청
	37	이하나	교육부
	38	한미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9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0	조선옥	금정고등학교
	41	추성식	충청남도교육청
	42	길미선	마송중학교
	43	홍성심	보성여자중학교
	44	황성희	영훈국제중학교
	45	정정호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46	정지연	시흥은행중학교
	47	강성	염광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18)	48	강윤희	광주광역시교육청
	49	강영호	창원중앙고등학교
	50	길영주	대전태평중학교
	51	김도영	진해여자고등학교
	52	김규하	함창중학교
	53	김인숙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54	정종문	신라공업고등학교
	55	김남훈	세종국제고등학교
	56	김요섭	전남외국어고등학교
	57	이안옥	선일여자중학교
	58	이병곤	염광중학교
	59	이경환	화양중학교
	60	이해경	만수고등학교
	61	이현덕	충남외국어고등학교
	62	이지영	영훈국제중학교
	63	이기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64	이미선	대룡중학교
	65	이상기	송면중학교
	66	이연숙	인천양촌중학교
	67	문태성	제주중앙고등학교
	68	노복순	늘푸른중학교
	69	오성숙	대전광역시교육청
	70	박찬임	용강중학교
	71	박경숙	진건중학교
	72	서왕원	해미중학교
	73	선종복	여의도중학교
	74	양성윤	대구서부고등학교
	75	양완국	월촌중학교
	76	윤소희	원봉중학교
77	윤선옥	인천양촌중학교	
78	박기연	교육부	
79	이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118)	80	채광희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81	장재만	장성여자고등학교
	82	조재승	전주신흥고등학교
	83	조상길	효성여자고등학교
	84	천현봉	상록고등학교
	85	하태완	안동영명학교
	86	이효숙	경상북도교육청
	87	전영대	인천광역시교육청
	88	정은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89	정세리	남악고등학교
	90	주진영	대전외국어고등학교
	91	전형숙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92	정경아	한국관광고등학교
	93	강민구	아산성심학교
	94	김두봉	경성전자고등학교
	95	김형승	대전지족고등학교
	96	김지숙	동일여자고등학교
	97	김종선	문산수억고등학교
	98	김문인	동탄국제고등학교
	99	김순자	애월고등학교
	100	김영보	송현여자고등학교
101	고경천	성포고등학교	
102	고옥란	만수고등학교	
103	권영춘	안동영명학교	
104	이한나	진경여자고등학교	
105	이재오	경상남도교육청	
106	이종민	진해고등학교	
107	이신애	서울고등학교	
108	이영세	원화여자고등학교	
109	임성표	덕이고등학교	
110	민경희	작전여자고등학교	
111	문윤주	삼호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118)	112	오재훈	대전송촌고등학교
	113	박현숙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114	박정옥	중화고등학교
	115	서동신	수원외국어고등학교
	116	우제환	충남고등학교
	117	윤영선	인천국제고등학교
	118	백승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한(49)	1	오타 가오리
2		지바 다카유키	게센누마시립 게센누마초등학교
3		후지마루 코지	미노 코도모노모리학원
4		히라노 와카코	아오모리현립 미사와상업고등학교
5		호소야 구니히로	요코하마시립 나가타다이초등학교
6		가시와바 야키히토	도쿄도 마치다시립 오아마다초등학교
7		가토 요시에	아이치현립 미요시고등학교
8		가와니시 유키오	오사카시립 세이메이가오카초등학교
9		고다마 가쿠	이케다초립 이케다중학교
10		마루야마 히로후미	나라시립 아스카초등학교
11		야마가타 다카노부	나라시립 미야토초등학교
12		사쿠마 마노리	삿포로시립 추키사무초등학교
13		미즈노야미	이케다마치야쿠바 교육위원회
14		나카마 다카유키	치바현 야치오시 니시타카초초등학교
15		나카타 미키	카나가와시립 켄로쿠중학교
16		나시카와 유키	치바현 야치오시 니시타카초초등학교
17		오와다 사토코	후쿠야마현 후쿠야마시립 와타리 초등학교
18		스가야 다다요시	치바현 교육위원회
19		도다 히로토	라우스 초립 라우스 유치원
20		도가세 유키	야치오시립 미도리가오카초등학교
21		우에시게 다쿠히로	야마구치시 교육위원회
22		야마사키 다카오	고치현립 고치히가시공업고등학교
23		요기모토 유스케	나라시 교육센터
24		나가시마 가즈키	문부과학성
25		사이토 세이고	공익재단법인 유네그코아시아문화센터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49)	26	아쿠쓰 준코	히타치시립 주요중학교
	27	히코사카 에리코	아이치현 교육위원회
	28	히라오 교이치	나라시립 와카쿠사중학교
	29	이치하시 나쓰미	오사카부립 노세고등학교
	30	구로이와 유이	치바현립 사쿠라가오카특수학교
	31	모리 유키코	치바현립 오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32	오에 다카키	오키나와현립 아에야마고등학교
	33	오가와 히로아키	사립 분쿄가큐인대학여자고등학교
	34	오구라 모모코	후쿠시마현립 후타바미래학원고등학교
	35	스기다니 히카루	사가현립 사가농업고등학교
	36	다카하시 가즈키	이케다초립 이케다중학교
	37	다이마 노부히토	아오모리현립 아오모리고등학교
	38	다카하시 슌스케	치바현립 인바특수학교
	39	다카히타 게이치	츠클바대학부속사카도고등학교
	40	다나카 슌스케	미호미용학원중등교육학교
	41	도쿠하시 유아	고치현립 하타농업고등학교
	42	도모미쓰 리에	사이타마시립 미소노중학교
	43	쓰야마 나오키	도쿄학예대학부속국제중등교육학교
	44	요시카와 마모루	나라시교육위원회
	45	유토 순교	아이치현립 치구사고등학교
	46	구바 마사하루	문부과학성
	47	후루타 도모미	유엔대학
	48	가와구치 에리코	공익재단법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49	나카타 이쿠코	치바현립 오오타카노모리고등학교
2018			
방일(97)	1	김경희	인천광역시교육청
	2	김광래	보성여자중학교
	3	김영현	성포고등학교
	4	김용한	대구서부고등학교
	5	김정희	대청초등학교
	6	김지현	광양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97)	7	김한내	서울안천초등학교
	8	문정현	목포덕인고등학교
	9	박귀자	서울특별시교육청
	10	박선미	도담중학교
	11	박정수	금정고등학교
	12	백에스더	연수여자고등학교
	13	백지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14	변은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15	송지영	상록고등학교
	16	유진태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17	이우형	원통고등학교
	18	이재택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19	이현정	원화여자고등학교
	20	이환희	양청고등학교
	21	임영희	진건중학교
	22	임현정	반천초등학교
	23	임희종	전주신흥고등학교
	24	정달훈	흥덕고등학교
	25	정흥순	양청중학교
	26	채지연	선일여자중학교
	27	최병삼	마송중앙초등학교
	28	하순용	전라남도교육청
	29	황종해	경일고등학교
	30	강성화	교육부
	31	김용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2	강한원	강원도교육청
	33	김광석	인천청량초등학교
	34	김기순	공현진초등학교
	35	김미숙	광일초등학교
	36	김영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7	김영철	서울이태원초등학교
	38	김용옥	위례중앙중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97)	39	김정민	해미중학교
	40	김치곤	광주광역시교육청
	41	김형준	울산광역시교육청
	42	김혜온	서울안천초등학교
	43	문현진	구영초등학교
	44	박소영	서울상월초등학교
	45	박연실	수촌초등학교
	46	박종남	광양제철남초등학교
	47	송명규	석봉초등학교
	48	심주영	용연초등학교
	49	안봉선	송정동초등학교
	50	오광래	문산중학교
	51	오희숙	한솔중학교
	52	윤미숙	시흥은행중학교
	53	윤시중	선일여자중학교
	54	이세란	서울신용산초등학교
	55	이수옥	안현초등학교
	56	이순남	경상북도교육청
	57	이승중	여수삼일중학교
	58	이재학	대구광역시교육청
	59	임현주	인천양촌중학교
	60	전선정	양청중학교
	61	조승균	위미중학교
	62	최영은	신선중학교
	63	임시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4	김미향	동탄국제고등학교
	65	김범년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66	김상우	대구선명학교
	67	김석수	전남외국어고등학교
	68	김소형	해성여자고등학교
69	김수현	안동영명학교	
70	김승태	대전노은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97)	71	김은식	양청고등학교	
	72	김정자	울산행복학교	
	73	박선희	경기도교육청	
	74	박재학	수원외국어고등학교	
	75	박철진	대구세명학교	
	76	신덕재	함열여자고등학교	
	77	오경자	충청북도교육청	
	78	이건희	개성고등학교	
	79	이경임	인천대건고등학교	
	80	이옥	원화여자고등학교	
	81	이은숙	대구세명학교	
	82	이정규	원주상지여자고등학교	
	83	이정아	남악고등학교	
	84	이종애	충청남도교육청	
	85	이종혁	충남외국어고등학교	
	86	임권섭	김해외국어고등학교	
	87	전병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88	전정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89	조정익	상명고등학교	
	90	최문학	경상남도교육청	
	91	최병국	중산고등학교	
	92	최복연	창원과학고등학교	
	93	김봉련	해강고등학교	
	94	홍시연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95	김천홍	교육부	
	96	송종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7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방한(50)	1	요시다 신야	나라시립 이치조고등학교
		2	아오야마 리에코	아이치현립 카리아키타고등학교
3		우시마루 지에	타카야마시립 마츠쿠라중학교	
4		오타 아무	네아가와시립 제10중학교	
5		오타 류이치	이치카와 중 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0)	6	기쿠치 히데아키	도쿄학예대학부속국제중등교육학교
	7	구시다 신이치로	아이치현립 치구사고등학교
	8	사토 아야카	사이타마현립 후지미고등학교
	9	시모이 지카	나가노현 이이다시립 아사히가오카중학교
	10	다카쿠라 나다미	오무타시 교육위원회
	11	니시무라 도시카즈	효고현립 카와니시메이호고등학교
	12	니시지마 모모코	코지마치가쿠엔여자중고등학교
	13	하타케야마 나오유키	오사카부립 키타요도고등학교
	14	나카가키 나오코	미에대학교교육학부부속중학교
	15	히코사카 에리코	아이치현 교육위원회
	16	훗타 마사아키	이케다초립 이케다중학교
	17	마에다 아사미	시즈오카현립 니라야마고등학교
	18	마츠오카 유미코	사이타마현립 우라와니시고등학교
	19	야마시로 후미토	시즈오카시립 타마가와중학교
	20	야마모토 에이지	히가시오사카시립 나와테중학교
	21	야마와키 이쓰키	오사카교육대학부속이케다고등학교
	22	요시오카 시즈카	츠클바대학부속사카도고등학교
	23	요시카와 다이치	오카야마 류코쿠고등학교
	24	니시 아키오	문부과학성(MEXT)
	25	오카노 고이치	공익재단법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
	26	이이 나오히로	오사카부립대학
	27	아사노 도모히로	오카야마시립 산군초등학교
	28	아리타 모모코	아이즈미초립 아이즈미키타초등학교
	29	이호시 노조미	요코하마시립 나가타다이초등학교
	30	이케스기 마미	토쿠시마현아난시립 쿠와노초등학교
	31	이나가키 아키코	야치요시 교육위원회
	32	오츠카 아츠시	나라시립 카스가중학교
	33	오부키 고헤이	치바현야치요시립 니시타카초등학교
	34	가지야마 아카네	오사카시립 세이메이가오카초등학교
	35	가토 요시코	토요타시립 카노초등학교
	36	구치이와 류마	이시카리시립 미나미센초등학교
	37	고이데 미즈키	치바현립 치바맹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50)	38	스기야마 지카	야마구치현립 시모노세키종합특수학교
	39	쿠라타 나오코	샤리초립 아사히초등학교
	40	초지 마미	치바현야치요시립 오와다초등학교
	41	나가오 겐타로	아이치현립 미아이특수학교
	42	스미타 마사하루	요코하마시립 히에초등학교
	43	니시하라 다카히로	시즈오카현립 이즈시립 아마기중학교
	44	하야시 히데키	이케다초립 온치초등학교
	45	히로카와 다카시	홋카이도아사히카와시립 치카부미제1초등학교
	46	후지타 유키	쿠마노초립 쿠마노제1초등학교
	47	모리타 마사요시	타마시립 아이와초등학교
	48	요시하라 야스요	나라시 교육위원회
	49	오가타 유스케	문부과학성(MEXT)
	50	이토 다에	공익재단법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

2019

방일 (94)	1	양준식	상문고등학교
	2	민정현	서울공항초등학교
	3	김수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4	임재민	서울안천초등학교
	5	김자영	서울중대초등학교
	6	윤향옥	서울청파초등학교
	7	양소영	여의도중학교
	8	이혜원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9	이수열	정원여자중학교
	10	김지선	정원여자중학교
	11	유용택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12	이미지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13	김해경	서울특별시교육청
	14	김경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15	김승미	내손초등학교
	16	김혜경	늘푸른중학교
	17	박순자	마송중앙초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94)	18	안정수	수원외국어고등학교
	19	허기순	안현초등학교
	20	송은숙	연무중학교
	21	지선아	자란초등학교
	22	김영배	진건중학교
	23	신미애	토평고등학교
	24	최빛나	한국관광고등학교
	25	노승현	흥덕중학교
	26	최현주	경기도교육청
	27	박성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28	박주영	신송중학교
	29	임단철	안남고등학교
	30	조광한	인천대건고등학교
	31	서용식	작전여자고등학교
	32	한단비	강원명진학교
	33	이경숙	대룡중학교
	34	지해숙	북평여자고등학교
	35	이선경	옥동초등학교
	36	황혜정	강원도교육청
	37	서주선	단양소백산중학교
	38	방성필	비상초등학교
	39	김은선	삼성중학교
	40	최윤희	송면중학교
	41	박미화	청주외국어고등학교
	42	강찬우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43	노하예진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44	김영미	충청북도교육청
	45	정복순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46	박성준	천안신당고등학교
	47	주진호	충남외국어고등학교
	48	이병도	충청남도교육청
	49	노현주	대전노은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94)	50	신현자	대전신계중학교
	51	이승자	대전용산고등학교
	52	김순례	대전지족고등학교
	53	배철웅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4	홍진수	늘봄초등학교
	55	신주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6	조규탁	경일고등학교
	57	김희성	문성중학교
	58	박광은	산자연중학교
	59	임정희	안동영명학교
	60	류현수	경상북도교육청
	61	우경원	국산초등학교
	62	조영래	석봉초등학교
	63	강신영	진해고등학교
	64	정영권	창원과학고등학교
	65	홍도순	충렬여자고등학교
	66	하영익	대청중학교
	67	문윤순	대청중학교
	68	김민서	창원용호고등학교
	69	정성진	창원용호고등학교
	70	이정미	경상남도교육청
	71	김현배	원화여자고등학교
	72	임종기	효성여자고등학교
	73	최윤정	대구광역시교육청
	74	왕윤숙	반천초등학교
	75	이연숙	울산남산초등학교
	76	송순조	언양초등학교
	77	조구순	언양초등학교
	78	박옥례	울산행복학교
	79	김은채	울산행복학교
	80	곽도영	울산광역시교육청
81	이한성	경성전자고등학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일 (94)	82	김상호	부산보건고등학교
	83	이정주	부산광역시교육청
	84	김영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85	윤희경	전주근영중학교
	86	고기	함열여자고등학교
	87	이행수	남악고등학교
	88	조선용	순천효천고등학교
	89	고경란	전남외국어고등학교
	90	정미경	전라남도교육청
	91	최영순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92	박혜경	광주광역시교육청
	93	송동림	신성여자고등학교
	94	홍재호	제주제일중학교
	방한 (50)	1	기타오 카야츠키 (北岡 淳子)
2		스즈키 미오코 (鈴木未央子)	야치요시립오와다미나미초등학교 (八千代市立大和田南小学校)
3		이와츠키 아리사 (岩附ありさ)	야치요시립미도리가오카초등학교 (八千代市立みどりが丘小学校)
4		나카자토 다카히로 (中里孝洋)	야치요시립오와다니시초등학교 (八千代市立大和田西小学校)
5		가와사키 요시아키 (川崎義昭)	아오모리현하치노헤시립시로시타초등학교
6		가모 구니히로 (蒲生邦博)	어섬선국제초등학교 (アサンブション国際小学校)
7		가네코 아키라 (金子瑛)	세이메이가오카초등학교 (晴明丘小学校)
8		미키 게이스케 (三木恵介)	나라시립미타오초등학교 (奈良市立都跡小学校)
9		미즈카미 도모히로 (水上智裕)	나라시교육위원회 (奈良市教育委員会)
10		아사히 히토미 (朝日仁美)	이토이가와시립이토이가와초등학교 (糸魚川市立糸魚川小学校)
11		에비사와 유타카 (海老沢穰)	도쿄도립사쿠지이특별지원학교 (東京都立石神井特別支援学校)
12		야마기 시가오리 (山岸香織)	에치젠시키타신조초등학교 (越前市北新庄小学校)
13		구지메아키후미 (久次米晶文)	가미아타초립타카시초등학교
14		구보츠히로미 (窪津宏美)	요코하마시립미나미요시다초등학교
15		와타나베 치와 (渡邊知和)	요코하마시립히에다초등학교
16		사카시타 미츠아키 (坂下充輝)	삿포로시립키타다이라초등학교 (札幌市立北野平小学校)
17		노무라 게이코 (野村恵子)	이세시립유슈초등학교 (伊勢市立有緡小学校)
18		마츠모토 교코 (松本恭子)	메구로구립고흥기초등학교 (目黒区立五本木小学校)
19		후키코시나오 (吹越菜央)	후추시립후추제3초등학교 (府中市立府中第三小学校)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방한 (50)	20	구보 도모아키 (久保智章)	후쿠오카현립고쿠라청각특별지원학교 (福岡県立小倉聴覚特別支援学校)
	21	우다 아야에 (宇田綾恵)	간온지시립오노하라초등학교 (観音寺市立大野原小学校)
	22	나리타 준야 (成田潤也)	카나가와현교육위원회 (神奈川県教育委員会)
	23	사이토 사라사 (斎藤 更紗)	문부과학성(MEXT) (文部科学省)
	24	후지사와 야요이 (藤澤弥生)	공익재단법인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 (ユ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25	다치바나 고스케 (立花宏介)	나라육영중학교·고등학교
	26	혼다 아키라 (本多光)	효고현립카와니시메이호고등학교 (兵庫県立川西明峰高等学校)
	27	가와모토 하루카 (川本明香)	오사카세이케이여자고등학교
	28	진나이 치나미 (神内千波)	오사카교육대학부속고등학교이케다교사 (大阪教育大学附属高等学校池田校舎)
	29	오카와 사오리 (大川沙織)	리츠메이칸우지중학교·고등학교 (立命館宇治中学・高等学校)
	30	오쿠가와 미키 (奥川美希)	나라시립케이세이중학교 (奈良市立京西中学校)
	31	가네미야 히데노부 (金宮嗣允)	오사카가쿠게이중학교 (大阪学芸中等教育学校)
	32	히라이와 나오키 (平岩尚子)	AICJ중학교·고등학교 (AICJ中学高等学校)
	33	다카무라 가츠노리 (高村克徳)	홋카이도삿포로시립시노로니시중학교
	34	가메다 료코 (亀田涼子)	아오모리현립아오모리히가시고등학교 (青森県立青森東高等学校)
	35	모리타 마사히로 (森田真広)	오카야마류코쿠고등학교
	36	베후 신이치 (別府信一)	코이치현립코이치히가시공업고등학교 (高知県立高知東工業高等学校)
	37	곤도 가즈히사 (近藤和久)	아이치현립아스케고등학교 (愛知県立足助高等学校)
	38	요코이 나ومي (横井尚美)	아이치현교육위원회 (愛知県教育委員会)
	39	야스다 교코 (安田享子)	쿠마모토시립사쿠라야마중학교
	40	나카다이라 세이코 (中平聖子)	나가노현하쿠바고등학교 (長野県白馬高等学校)
	41	야마구치 세이케이 (山口晴敬)	홋카이도삿포로초키사무고등학교
	42	이시이 준 (石井淳)	후지사와종합고등학교
	43	다케우에 유스케 (武上雄輔)	후지이학원산가와고등학교 (藤井学園寒川高等学校)
	44	오카다 마사루 (岡田勝)	후지이학원산가와고등학교 (藤井学園寒川高等学校)
	45	사이토 신고 (斎藤真吾)	쓰쿠바대학부속사카도고등학교
	46	진노 도시히코 (陣野俊彦)	도쿄도립오시마해양국제고등학교
	47	마츠노 이타루 (松野至)	나고야경제대학이치무라고등학교 (名古屋経済大学市邨高等学校)
	48	오다 슌 (織田俊)	카나가와현교육위원회 (神奈川県教育委員会)
	49	오구치 마오 (小口真緒)	문부과학성(MEXT) (文部科学省)
	50	오카노 고이치 (岡野晃一)	공익재단법인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CCU)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2020			
한일 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43)	1	한양희	충남외국어고등학교
	2	정정은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3	김지영	고양국제고등학교
	4	이밝음	동원고등학교
	5	최우석	청주신흥고등학교
	6	황석균	논산대건고등학교
	7	도희정	문성중학교
	8	조은경	전주 근영중학교
	9	박성기	하남고등학교
	10	고영남	신남고등학교
	11	신정훈	창녕대성고등학교
	12	석경원	인천명선초등학교
	13	강치영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4	문윤주	무안고등학교(전남교육연수원파견)
	15	윤지은	청학고등학교
	16	이지영	마산여자고등학교
	17	한상준	진경여자고등학교
	18	이수진	청주고등학교
	19	김다현	개산초등학교
	20	신종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1	이수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2	박소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3	Matsuoka Yumiko	Urawanishi High School
	24	Musha Asuka	Fuchie Junior High School, Adachi, Tokyo
	25	Matsuno Itaru	Nagoya University of Economics, Ichimura Senior High School
	26	Kubotsu Hiromi	Minami-Yoshida Primary School
	27	Jinno Toshihiko	Tokyo Metropolitan Oshima Marine International High School
	28	Suzuki Mioko	Owada Minami Elementary School
	29	Takakura Nadami	Omuta City Board of Education
	30	Machida Naomi	Tokyo Metropolitan OJI Special Needs Education School

구분	연번	성명	소속 학교
한일 교직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43)	31	Matsukura Sayaka	Ageo Oishi JHS, Saitama
	32	Machida Toshiko	Chiba Prefectural Matsudo Kokusai High School
	33	Kinoshita Kazunori	Aogashima elementary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34	Shimada Takuya	Chiba Prefectural Matsudo Kokusai High School
	35	Takeda Takahiro	Seiryuu Junior high school
	36	Mochizuki Hiroaki	Kanagawa prefectural Atsugi Higashi High school
	37	Asahi Hitomi	Itoigawa Municipal Itoigawa Elementary school, etc.
	38	Kogure Naoya	Tamaki Junior High School
	39	Numano Taro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Research (NIER-Japan)
	40	Shindo Yumi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41	Takamatsu Ayano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42	Temma Mika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43	Ito Tae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역대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

2001



2005



2006



2007



2007 Invitation Programme for Japanese Teachers(2007.6.10-17/UNESCO 韓國委員)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편찬후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시작된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기에 더욱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한일교사대화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류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한일교사대화의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한일교사대화는 양국 교직원이 상호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유네스코 교육 이념을 확산하고 미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서로 고립되고 단절되는 이 때, 지속적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다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내놓는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는 대화가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서로를 알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소통 수단임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를 편찬하면서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의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와 발전의 역사를 정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양국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어, 한일 양국,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서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정신으로 평화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발간에 만전을 기해주신 시하기획의 김종훈 대표님, 박세진 실장님, 박철우 작가님 및 김도훈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가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현숙 팀장님, 담당자 및 책임자로서 이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송종진, 송지은, 이지은, 임시연, 정소여, 조우진, 홍보강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현직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난 20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주신 전국 유네스코학교 교직원 및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학교팀
신종범 팀장, 이수연 전문관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년사

도움을 주신 분들

기획·제작	(주)시하기획 www.sihacnc.com
총괄책임	김종훈
기획·진행	박세진
집필	김도훈, 민소연
감수	박철우
교정교열	이준희
디자인	한수연
취재	김성윤
제작	김석

펴낸날	2020년 11월 30일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편집	조우진, 신종범, 이수연
자문 및 감수	서현숙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www.unesco.or.kr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학교팀
전화	02-6958-4183
팩스	02-6958-4250
전자우편	unescoteacher@unesco.or.kr
한위간행물등록번호	ED-2020-BK-2



